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최영표 이현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kinu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추진하였다. 우선 올해에는 중국과 일본의 변화와 교육의 특성, 그리고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동북아 국가의 동질성 증대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체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인접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상호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3국의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국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중국과 일본의 교육문화 특성, 그리고 국제 교육협력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중국 및 일본 교육의 특징

중국 사회의 변화와 교육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면서 1992년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비약적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의 교육 체제는 문화혁명이 끝난 1970년대 후반 4대 현대화 정책을 내걸면서 많은 변화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 무렵 과거 훼손된 교육체제를 급히 복구한 이후 사회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기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1987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사회개혁의 이론적 기저로 공인된 이후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 양성제를 도입한 이후 한 단계 높여 부분적으로 수익자 부담방식인 자비생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실험을 거쳤다. 이 시기는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하면서 시장경제기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인재를 양성하는 시기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교육체제의 본격적인 개혁은 1992년 중국정부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공식화한 이후 시작되었다. 1993년 2월에 발표된 『中國教育改革과 發展剛要』라는 교육개혁문서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과 일선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하였으며, 고등교육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수월성 신장을 위한 211공정을 내세워 과거 중점학교와는 다른 방식의 우수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과거 계열별로 분화되어 설립되어 있던 대학들을 과감히 통합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정책도 획기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계획경제시대에는 국가가 모든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무상으로 교육시켰으나 이제는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교육 재원도 스스로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를 건설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잠들어 있었던 실사구시의 풍조가 되살아나 사회는 교육기관도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중국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지위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교육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등학교단계부터 개설되어 있는 중점학교 때문에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하다. 이들 학교에 다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상급단계 중점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입시위주 교육이 만연되어 있으며 일찍부터 과외를 받는 등 우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사립학교가 아닌 소위 국공립 명문학교까지도 매우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받아 학생을 입학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고등학교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하지 않고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 가정 한 자녀만을 두도록 강력히 산아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자녀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부모는 최근의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부도 축적하면서도 한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켜 훌륭하게 키우는 데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각종 과외가 성행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재수생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 인척이 있으면 연계하여 만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자비로라도 어떻게든 외국에 유학하려는 풍조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 유학하여 외국의 발달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면 상당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해외투자가 급속히 늘어나 외자기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일어 또는 중국에 투자한 국가의 언어나 문화를 습득하고 취업하면 중국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유학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구조도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앞으로 우수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임과 아울러 외국교육기관도 중국에 학교를 개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고급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11공정을 통한 세계선진수준의 대학 육성, 세계 유명대학과의 교육협력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유학생 유치와 교류·협력에 대한 중국 정부 및 학교 당국자의 높은 관심을 들 수 있다. 둘째, 외국 유학생 유치와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지원 및 배려를 들 수 있다. 셋째, 외국 유학생 유치와 교류·협력을 위한 각급 학교의 자발적·자체적 노력을 들 수 있다. 넷째, 외국 유학생 유치와 교류·협력을 위한 독창적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빠르게 개발·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으로 인하여 한·중 수교 이후 교류 기반이 조성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교육 교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변화와 교육

일본의 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기회균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등 그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올려왔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상황에 눈을 돌려보면,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이다.

첫째, 도시화가 진전되고 자녀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열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학교내부의 문제로는 이지메(왕따), 등교거부, 교내폭력 등으로 이른바 학교붕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으며, 학교외부에서는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청소년에 의한 흉악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사이에 공적인 윤리를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전의 군국주의 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해 온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아이들이 사람이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연마할 기회가 감소함으로써 사회성이 저하된 것이다.

셋째, 지나친 평등주의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와 과도한 지식의 주입에 의해, 아이들의 개성이나 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이 경시되어 왔다. 또한 학

교제도나 입시교육 등 현행의 교육제도가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이나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 규모가 확대하면서 교육제도가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2001년 「21세기 교육신생 플랜」을 제시하였다. 2002년 8월에는 의무교육에서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까지를 관통하는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전망으로 「인간력(人間力) 전략비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능률한 일본인 육성」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률한 일본인, 다시 말하면 지의 세계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육성, 풍부한 감성의 문화와 사회와 계승하고 창조하는 일본인,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교양 있는 일본인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본의 국제교육 교류·협력정책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위에 걸맞게 국제공헌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이 ‘국제적인 공헌’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국제적인 공헌도는 자국의 국제인지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이 국제화시대에 부합되는 국제이해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이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실용성 위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셋째,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일본의 다양한 국제교육 교류정책을 들 수 있다. 일본은 ① 유학생 교류추진, ② 교육의 국제교류, ③ 일본어 교육의

진흥, ④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일본어 지도, ⑤ 문화의 국제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85년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세워 그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새로이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에 돌입한 상태이다.

넷째, 일본의 국제교육 교류정책 가운데 한국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교육 교류이다. 일본의 전쟁의 후유증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나라들에 대한 국제교육협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국가신뢰도를 높이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남미에 관한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이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기관을 통한 일본의 국제교육협력의 다양성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다양한 국제기관에 대해 학교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나중에 국제기관에서 봉사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3. 한국과 중국의 교육 교류·협력 실태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교류·협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의 교육 교류·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수교 10여 년 만에 교육 교류·협력은 초기 정부기관의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기반을 다져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짧은 기간에 양국간의 교육 교류는 급속히 신장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간에는 매년 대표단이 파견되어 상호간에 이해를 넓히고 주요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점차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국비 유학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동북아 협력시대의 도래에 부응하여 양국의 호혜적인 발전의 기대도 커지고 상호관심도 폭증함에 따라 유학교육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양국의 유학유형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교류보다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대학차원의 민간형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교육 교류 부문에서 중국보다도 한국 측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교류 유형인 유학에 있어 한국의 수요가 중국보다 5배를 초과하고 있어 한국의 중국 유학 수요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동북아 공영의 시대에 부응하고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따른 중국전문가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교육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까지의 교류·협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과 대학교육단계에서는 자율의사에 따르고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섯째, 향후 중국전문인재가 매우 많이 소요될 것임에 비추어 현재의 접근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중 교육 교류·협력은 중국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전문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교류사례별로 볼 때 추진경비상, 유학생 관리상, 효과적인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교류기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기관의 지원도 없어 개별학교가 자체경비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유학생의 개인차가 심한데 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 한국과 일본의 교육 교류·협력 실태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체결된 ‘문화협정’을 토대로 지속적인 한·일 교류·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정부도 한·일 간의 인적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서는 청소년 교류확대가 합의되고, 2002년 7월 1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프로젝트』실시가 합의되어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 한·일청소년, 그리고 스포츠와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한·일우정의 해 2005』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실시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면, 일본과의 교육 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쌍방향 교류보다는 일본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국교정상화 40여년 만에 교육 교류·협력은 초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는 정부주관 교류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일선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창기의 한·일 교육 교류는 문화협정을 바탕으로 ①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② 재외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 등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① 국비유학생교류, ② 정부초청장학생교류, ③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 ④ 한·일 중고생교류 등 국가차원의 다양한 방면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일선 학교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한·일 양국의 꾸준한 교육 교류에도 불구하고 유학에 있어서는 한국 측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기준 일본으로 유학하는 한국학생 수는 17,339명인 데 반해, 한국에 유학하는 일본인학생 수는 2,486명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한국

학생이 약 7배나 많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일본인 유학생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류·협력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자매학교를 찾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교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기관이 없다. 대부분 개별적인 지인이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의 학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협정체결 후에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일간의 특수사정과 단계별·유형별 교류를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학교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교류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어 학교 및 학생개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 교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모든 경비가 대부분 학생에게 전과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국제교육 교류의 참 의미를 실현하기는 힘들고, 지속적인 교류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5.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

동북아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협력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상호 간의 현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 교류, 상호 방문, 자매결연,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한·중간의 고구려사 문제

나 한·일 간의 고대사, 독도 문제에 대하여 학술적인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적인 지역 연합을 통하여 공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 조약을 통하여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청소년프로그램(Youth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이웃나라를 방문하면서 상호 이해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상호간의 교류·협력 정책을 별도로 추진할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 한·일의 사안이 다를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을 통하여 각각의 우호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한·일 우정의 해 2005』를 맞이하여 제 사업이 결실을 맺고,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사업의 확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는 한·일 청소년 간의 우호증진과 문화이해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넷째, 교육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민간형 전문교육 교류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교육 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 교류 통계 및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교육 교류현황을 파악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각 기관 및 학교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교육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알차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일선 학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그들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단계별·유형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앞으로의 교육 교류 및 협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여섯째, 한국은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다양한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식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가칭 「동북아교육협력교류기금」을 확보하여 한·중일교육 교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국제교육 교류의 의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문화공동체 형성과 상호 이해의 관점	4
3. 동북아 3국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6
II. 중국과 일본 사회의 변화와 교육	9
1. 중국 사회의 변화와 교육	11
2. 일본 사회의 변화와 교육	26
3. 중국 및 일본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50
III. 중국과 일본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 정책	61
1. 중국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 정책	63
2. 일본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 정책	74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104
IV. 교육기관별 교육 교류 실태 조사	115
1. 실태조사 방법	117
2. 교육 교류의 현황	119
3. 교육 교류의 목적 및 내용	122
4. 교육 교류의 성과 및 문제점	126
5. 교육 교류사업의 과제	134
V. 한국과 중국의 교육 교류 실태 분석	141
1. 현황	143
2. 서울 광남고등학교 사례	157
3. 전남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 사례	168
4. 대구대학교 사례	176
5. 분석 및 평가	191

VI. 한국과 일본의 교육 교류·협력 실태 분석	201
1. 현황	203
2. 서울 광남고등학교 사례	222
3. 서울 잠실고등학교 사례	235
4. 건국대학교 사례	246
5. 시·도교육청 사례	254
6. 분석 및 평가	264
VII. 결론	275
참고문헌	285
부 록	295

표 차례

<표 III-1> 외국어지도조수 국가별 유치 인원수(2001년 7월 현재) · 78	
<표 III-2> 주요국가의 유학생 유치상황	83
<표 III-3> 출신국가별 유학생수(2002년 5월 2일 현재)	84
<표 III-4> 일본인의 주된 유학처 및 유학생 수	89
<표 III-5> 국제연구교류대학촌의 주요시설 개요	91
<표 III-6> 일본이 협력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주된 사업	101
<표 IV-1> 시·도별 초중등학교 교류·협력 학교수	117
<표 IV-2> 실태 조사를 위한 초·중·고·대학교별 표본학교 수 ·	118
<표 IV-3>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육 교류 실태조사지의 구성 ·	118
<표 IV-4> 설문조사 대상학교의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소재지별 분포	119
<표 IV-5> 학교급별 교류 상대국	120
<표 IV-6> 교류국가 방문 시 참가 인원	122
<표 IV-7> 교류 사업의 추진 목적(복수응답)	123
<표 IV-8> 교류 사업의 추진 목적(기타의견)	123
<표 IV-9> 교육 교류의 내용/프로그램(복수응답)	124
<표 IV-10> 교육 교류의 내용/프로그램(기타의견)	124
<표 IV-11> 광남고의 일본 문화 체험단 활동 일정(2003. 1. 27~31)	125
<표 IV-12> 교류를 통해 얻은 성과의 정도	126
<표 IV-13> 교류의 성과	128
<표 IV-14> 중국/일본과의 교류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129
<표 IV-15> 교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130
<표 IV-16> 교류 성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이유	131
<표 IV-17> 향후 중국·일본과의 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여부	132
<표 IV-18>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 (복수응답)	133

<표 IV-19>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 (기타의견)	134
<표 IV-20> 교류 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 (복수응답)	135
<표 IV-21> 교육 교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복수응답)	136
<표 IV-22>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소감 및 건의사항	139
<표 V-1> 중국학생의 한국 유학생 수(2002년)	145
<표 V-2> 초중등단계 유학 동기별 현황(2002)	146
<표 V-3> 초중등단계 출신 지역별 현황(2002년)	147
<표 V-4> 대학단계 중국 유학생 수(2003.9.1)	149
<표 V-5> 대학단계 유학생 유학 동기별 현황(2002년)	149
<표 V-6> 대학단계 유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2002년)	150
<표 V-7> 중국학술교류협정대학 현황	177
<표 V-8> 협정체결 대학	179
<표 V-9> 교환학생 교류실적	179
<표 V-10> 교환학생 파견조건	180
<표 V-11> 협정체결 대학	181
<표 V-12> 교류실적	181
<표 V-13> 단기어학연수 파견실적	183
<표 V-14> 연도별 유학생 유치 실적	185
<표 V-15> 성별 현황	186
<표 V-16> 거주유형별 현황	187
<표 VI-1> 2001~2003년 제 2외국어(일본어)교사 국외연수현황 ..	204
<표 VI-2> 2001~2003 재외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현황	204

<표 VI-3> 2003년도와 2001년도 주요 출신국 별 외국인 유학생 수	207
<표 VI-4> 2003년도와 2001년도의 국가별 한국인 유학생 수	207
<표 VI-5> 일본공과대학 학부유학생 교류	208
<표 VI-6> 1967~2003년도 한국정부초청 일본인 장학생 현황	210
<표 VI-7> 1965~2003년도 일본정부초청 장학생 현황	210
<표 VI-8> 2003년도 중고생·대학생·교원의 학술문화교류 현황	212
<표 VI-9> 2001~2003년도 일본어교사 연수현황	213
<표 VI-10> 2001~2003 재외 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 현황	213
<표 VI-11> 2003년 서울시 초·중등학교의 일본기관과의 자매결연 현황	214
<표 VI-12> 외국으로의 수학여행	216
<표 VI-13> 자매결연 학교	216
<표 VI-14> 학생의 유학	217
<표 VI-15>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218
<표 VI-16> 영어이외의 외국어 개설	219
<표 VI-17> 협정수의 추이	220
<표 VI-18> 협정상대국의 상위 5개국	220
<표 VI-19> 서울시내 대학 별 교류협정 현황(2004년 현재)	221
<표 VI-20> 협정체결 대학	246
<표 VI-21> 교환학생 파견실적	247
<표 VI-22> 교환학생 초청실적	247
<표 VI-23> 한·일 교육 교류 및 협력의 현황과 분석	266

그림차례

<그림 II-1>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12
<그림 V-1> 중국인유학생 출신지역별 현황	185
<그림 V-2> 학부과정 단과대학별 중국인학생 현황 (2004년 11월 현재)	186
<그림 V-3> 외국인관리시스템	187
<그림 V-4>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중국어판-종합게시판	18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한반도의 주요 이해 당사 국가는 역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놀라운 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를 추월해 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우리의 경쟁국이자 협력 국가로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들 주변국가와의 협력과 경쟁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 강대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발전과 번영, 통일과 평화의 진로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의 결정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역량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남북한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로 하여금 주변 강대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종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주변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최근 참여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구상을 경제 분야에만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은 동북아시아

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의 구상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의 건설 구상은 경쟁을 본질로 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상 동북아 국가들의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대 구상은 경제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와 같은 감성적 주제를 포함시켜 동북아 구상을 상호 보완적인 작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 시대 구상은 한반도의 중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전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동북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의 ‘문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공동체 형성과 상호 이해의 관점

문화란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장시간 적응하는 가운데 좀 더 효율적인 적응을 가능케 하는 체계를 만든 것, 즉 적응 체계”가 되며,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로서의 가치관, 철학, 세계관,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체계, 상징체계 뿐 아니라 규칙 체계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 자체를 모두 포함한 생활 양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 내는 전 과정의 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이 된다.¹

사회·문화 변동의 대표적인 이론인 ‘근대화 이론’ 및 ‘산업화 결정론’에 의하면 기술과 산업 발전의 양태가 사회·문화 구조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²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신념과 행위는 인간이 부를 획득하고 경제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에 의해 규정지어지며, 기본적으로는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산업화 결정론적 시각에서 보면, 산업화의 양태가 사회·문화 구조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산업화 과정은 산업화의 바탕이 되는 기술혁신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생산 및 기술형태에 따라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등으로 산업화과정을 구분하고 있다.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문화구조는 가치체계의 측면에서 세속화, 합리화, 생활형태에서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 사회계층 구조에서 분화, 전문화 방향으로 변화한다.

사회·문화구조의 변동방향 및 변화내용이 두 사회간의 동질성 증대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는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변동론’을 들 수 있다. 사회·문화 구조의 변동 방향 및 변화 내용과 관련하여 ‘기능주의적 통합론’은 독립된 두 사회가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문화구조에 대한 과학, 기술, 사상적 우위를 확인하게 될 때 열등한 사회가 보다 우월한 사회에 동질화된다고 본다. 이 이론은 과학 기술의 우위나 이상의 우월성 등이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문화변동론’은 상이한 문화 간에 접촉과정이 일어난 경우, 그 중 한 문화 또는 양쪽 모두가 변화하며, 접촉이 빈번해질수록 사회·문화 체계의 유사성이 증대되고 통합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³

문화적 동질성은 공통된 가치관, 공통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분열된 사람들 간의 ‘인적 교류’의 개념을 중시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둘 이상의 자율적인 문화체계들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변동”으로 정

¹ 전경수 (1994), p. 7.

² D. Bell (1973), p. 117.

³ 윤덕희 외 (1992).

의되는 문화 변용은 상이한 문화간의 접촉 과정에서 한 문화 또는 두 문화 모두가 변화한다는 것과 문화를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로 구별하여 문화들 간의 문화 변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교류는 동북아 국가의 동질성 증대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문화 교류를 통하여 사회·문화 체계의 동질성 증대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문화 체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질화된 두 사회간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은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오랜 동안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시사점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의 과제를 모색하는 데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3국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은 유교 문화라는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또한 개인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나이와 지위에 따른 위계의식은 동북아 3국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도 산업화의 추세로 인하여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순차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가족주의와 서열의식에 기초한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관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퇴색하고 있으며, 전사회적으로 개인주의와 시민의식이 점차 고양되고 있는 것이 공통의 문화적 특징이다.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3국의 청소년 대중문화는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 의존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교역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및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3개 국가의 순차적인 경제성장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촉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 인구의 증가, 대중문화의 상호 교류가 확산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데 소위 “한류” 열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동북아 3국은 침략과 저항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호 적대적인 민족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다. 과거사로 인한 민족 감정으로 인해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잠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3국은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자국 중심주의적 해석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간의 경쟁과 대립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3국 간에 경험한 바 있는 전쟁과 갈등, 침략과 지배 관계는 오늘날 3국의 관계에서도 회피할 수 없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황국사관에 기초한 자국의 정체감을 갖고 있으며,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먼저 서구적인 선진국가로 성장한 데 대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중화사상에 기초하여 중국 중심의 아시아관을 갖고 있으며, 주변국가에 대한 대국의식과 패권의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일본은 한국 고대사의 왜곡 문제, 일제 침략의 정당화 등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 합리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 또한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 문제를 비롯하여 중국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이 한국과의 대등한 상

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동북아 3국의 교육 교류·협력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적 긴장과 갈등의 경험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중·일 3국의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학생들에게 상대방으로 개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과 존중감, 관용의 태도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인접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상호간의 괴리감과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동북아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역의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⁴ 동북아 국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⁴ 윤철경 (2004).

II

중국과 일본 사회의 변화와 교육

1. 중국 사회의 변화와 교육⁵

가. 중국의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 11기 3차 전체회의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반좌파 연합세력이 당내 다수파를 장악,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함으로써 중국은 모택동 시대와는 전혀 다른 개혁시대를 맞이하게 된다.⁶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은 3중전회에서 우선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중국의 당면과제로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사상해방, 체제개혁 그리고 대담한 문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런 개혁파들의 논리는 모택동과 좌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혁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실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서방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좌파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믿고 있는 보수파들에게 있어서 개혁개방이란 사회주의의 개선과 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를 부인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었으므로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었다. 이에 이런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등소평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한 반체제인사들을 구속하고, 이른바 4항 기본원칙을 선언하였다. 즉,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4가지 기본원칙, 즉,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독재, 공산당의 영도, 그리고 마스-레닌주의, 모택동주의의 견지라는 기본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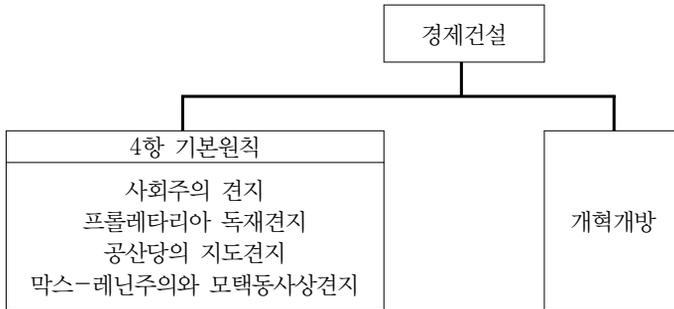
⁵ 중국 교육은 강일규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작성한 원고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⁶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는 1977년에 개최된 제11기 전국당대회에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의 제3차 전체회의를 지칭한다.

⁷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다시 말해서 등소평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경제발전과 현대화라는 국가적 중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담한 개혁개방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은 4가지 기본원칙 견지라는 범주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⁸

<그림 II-1>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자료: 임반석, 『중국경제: 두 가지 기적과 딜레마』 (서울: 해남, 1999), p. 157.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는 처음부터 이런 모순적 성향을 안고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개방을 선언했던 3중전회의의 정신은 자유화-개방화-다원화에 있었다면, 4항 기본원칙은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란 점에서 상호 갈등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등소평의 개혁 리더십이 보여준 특징은 바로 이런 상호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세력과 성향 간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체제전환의 범위를 확대 심화해 갔다는 것이다.⁹

⁸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경기: 나남, 1997), p. 66;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노선,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 견지는 반드시 서로 모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갈등적인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다. 따라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등소평의 리더십 하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적 개혁파와 기존 사회주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폭을 제한하려는 보수적 개혁파간의 갈등과 경쟁 및 타협을 통해 전개되었다.

⁹ 박치정,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의 특성 연구”, 『중소연구』, 17(4) (1993), pp. 19-20

중국은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체제전환 경제를 추진하였다.

나. 중국 시장경제체제에서 교육체제의 전환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중국의 잠재적인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중국이 고속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무대의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정부주도 하에 무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에서 교육재정의 일부를 학교와 교육수요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잠재되어 있던 전통적 교육열이 부활하여 흘러갈 방향을 보여준 것과 같아서, 한번 시작된 교육열의 새로운 결합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가 교육에 끼친 영향은 매우 중대한 관심사이다. 시장경제체제가 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중국의 교육이 다층화·개방화·다양화한 현대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둘째, 시장경제의 발전이 교육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는 중국의 교육체제 개혁을 촉진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영향으로, 정부가 직접 학교를 관리하고 모든 경비를 책임지던 것에서 학교로 부분 책임이 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넷째, 시장경제는 교육받은 인재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의식, 창의성, 넓은 시야, 과감한 결단력, 개척 정신을 갖춘,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도입된 후 중국의 교육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지 못한 커다란 업적을 이룬 것만은 확실하다. 아마도 제일 큰 업적은 의무교육의 보급과 문맹의 퇴치, 그리고 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과감한 노력 등일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상교육'의 경우 개혁개방 전에는 중국정부가 학교의 경비를 모두 부담했지만, 개방 후에는 학교 경비의 많은 부분들을 학교자체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 유상교육으로 부분 전환하면서 학교체제의 큰 변화가 왔다. 중국의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북경대학교에서는 '방정집단'이라는 우수기업을 운영하여 학교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등 대학교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엄청난 학비를 요구하는 '귀족학교'가 많이 생기고, 수많은 잡부금을 거두어들이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상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되어,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에 자본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경제기제가 도입'된 것이다. 90년대 이후 '학력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하였고, 학교는 진학훈련을 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많은 학생들이 과중한 학업부담을 안게 되었다.

중국의 언론과 교육전문가들은 몇 년 전부터 교육의 병리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교육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들이 지적하는 중국의 교육병은 귀족학교, 과열된 진학경쟁, 택교생과 택교비, 가교, 고고이민 등 상당히 많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중국이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다.

중국에서 명문대 입학은 상류층 진입의 첫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언론은 입시전쟁이 생사를 가를 정도로 치열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해마다 7월 말이면 최고득점 소식으로 환호성이 들리는가 하면, 점수를 비관해 자살하는 수험생들도 나온다. 중국 고교생들에게 대학은 출세를 보장하

는 관문이다. 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일류·이류·삼류를 구분한다. 일류 중학교에 들어가야만 일류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그래야만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쉽다는 것이다. 일단 일류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6년 동안 책과 씨름을 시작한다. 베이징의 한 유명인사는 “학생들 차림이나 행동만 보아도 일류·이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명문학교 출신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대학 진학이 목표인 지방의 수험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부터 그야말로 ‘새벽별보기 운동’에 들어간다. 아침 6시30분에 학교에 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온다.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한국인 유학생 최 00(19)는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중국 친구들과 교류가 많아 학교생활이 무척 즐거웠지만, 2학년이 되면서부터 친구들에게 말을 걸기가 미안할 정도로 시험 준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면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여길 정도로 학교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전한다.

중국에서 대학 진학은 사회적인 성공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는 당사자의 성공을 의미할 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 나아가서는 그가 속한 집단에도 영광이 된다. 부모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자녀가 성공해야 완전한 성공이 된다. 자녀가 출세하면 부모가 잘 가르친 결과로 인식하여, 그 공을 부모에게 돌린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는 헌신적으로 노력한다.¹⁰

중국 고교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첫째 이유는 ‘고소득 보장’이다. 특히 취직이 잘 되는 이과계열의 학과를 선호해,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10%이하다. 실리를 추구하는 중국인들의 속성이 대학입시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명문대 선호는 한국 못지않다.

중국에서는 1차 대학 원서접수가 끝나기도 전에 재수를 하겠다는 고득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부속 실험고등학교에서 ‘고4학년 반’

¹⁰ 자오윤대, “중국사회의 교육열 형성요인 분석,” 『한·중·일·이스라엘 교육열의 진단해부 대책』, 2002교육열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2002), pp. 89-100.

을 모집하는 첫날에 300명의 학생들이 몰려 정원을 훨씬 넘어섰다. 이 가운데 600점 이상의 고득점자들도 수십 명에 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겠다.”고 말한다. 재수생들은 대부분 출신 고등학교로 돌아가 4학년 반에 들어간다. 학교에서는 4학년을 3학년과 똑같이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설학원까지 등장하였다.¹¹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지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하여,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8년부터 대입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한국과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중국의 교육계에도 상업주의가 불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1990년대 이후 최근의 교육 발전을 살펴보면, 국무원이 1993년 2월 13일에 발표한 중국교육 개혁과 발전요강은 중국 제14차 전당대회 이후 교육 발전에 대하여 발표된 정식 공문으로서 교육문제에 관하여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교육의 당면 과제, 교육 사업 발전의 목표·전략·지도방침, 교육체제 개혁, 전면적인 교육 방침의 관철과 교육의 질과 양의 제고, 교사의 권위 확립, 교육 경비 등이다. 또한 본 요강에서 ‘새로운 형세 하에 교육의 임무는 공산당의 14대 정신을 준수하고 전면적으로 교육 방침을 관철하며 현대

¹¹ 이종각, “교육열의 개념 재정립,”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구조』 (경기: 한국정신문화원, 2000), p. 58.

¹² 『中國教育報』 (北京: 中央國務院, 1993), p. 1.

화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¹³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하며 더 나아가서는 노동자의 자질을 제고하며 인재를 배양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정치·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필요한 교육 체제를 건립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봉사하도록 한다¹⁴라고 제시하였다.

중국교육개혁과 발전 요강 중에서 제시한 90년대 각급 교류 교육 발전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전국에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한다. 대도시와 연해 경제 발달 지역에 대대적으로 초·중·고 교육을 보급한다. 중소 도시에 유아교육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학전 교육을 농촌지역에도 확대시킨다. 둘째, 고등학교 단계 직업기술학교의 재학생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고 미진학 된 초·중생과 고등학교 졸업생을 연한이 다른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도시·농촌의 새로이 증가된 노동력 현장에 취업 전 필요한 필수적인 직업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고등학교에서 배출된 전문 인재가 경제·과학 및 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여 집중적으로 중점 대학과 중점 학과를 양성하여 고도의 전문 인재 양성이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 자리하여 교육의 질·양·과학기술 수준 및 장학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 지역에 청·장년 문맹을 해소하고 청·장년의 문맹률이 5/100이하로 절감시킨다. 각 단위의 훈련과 계속적인 교육 및 현직교육을 통하여 종사자의 사상과 문화소양 및 직업 기술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중국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학교의 입시교육으로 국민교양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일반 고등학교의 설립체제 및 운영 방식을 다양화시킨다. 셋째, 각급 정부에서 고도의 직업 기술교육을 중시하도록 강조한다. 넷째, 고등교육의 발전은 점차적으로 내적 발전을 지향한다. 다섯째, 성인교육은 여전히

¹³ 이는 三個面向이라 불리우며, 중국교육의 중요한 방침일 뿐 아니라 중국교육 개혁의 방향이다.

¹⁴ 『中國教育報』(北京: 中央國務院, 1993).

중시하며 이와 병행하여 경제 건설·사회 발전과 종사자의 실제 수요와 배합하며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다. 여섯째, 소수 민족교육사업을 중시한다. 일곱째, 특수 장애교육사업을 육성한다. 여덟째, 교육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국제 교육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학을 지지하며 귀국할 것을 장려한다’는 방침으로 해외 유학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창학 체제를 개혁하고 학교설립 형태를 변형하여,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동으로 설립하는 체제를 점차적으로 유도한다.

다. 중국 교육제도의 특징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로서 전국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계획, 관리하고 있다. 각 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각 지방 시, 구, 현에는 상응하는 교육국 혹은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전 국민 교육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국민은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며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들어 중국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科教興國’을 전략방침으로 내세우고 교육체제개혁과 전인교육을 계속 심화시키고, ‘9년 의무교육제 보급’과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츠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으로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각급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여러 채널과 형식의 사학설립을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학제 상 중국교육단계를 구분 지으면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취학전 교육은 3~5세의 아동이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일컫는다. 전국에는 111,752개의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 명에 달하며 유치원 재학아동은 2036만여 명이다. 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민간이 설립하며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 중도시에서는 유아들의 취학전 교육 수요를 이미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 유아교육사업의 발전은 도시에서 출발하여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면 단위(郷또는 鎮이라 함)는 이미 취학 전 1년 교육이 보급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의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말한다. 전국에는 456903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교직원은 634만여 명에 달하며, 초등학생은 1억2156만여 명이 있다. 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하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설립한 곳도 있다.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합한 것을 일컫는다. 12~17세의 청소년이 중등학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말한다.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직업고급중학교와 중등전문학교는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중학교는 전반기 초급중학교와 후반기 고급중학교로 나뉘며 각각 3년이다. 초급중학교 졸업생의 일부는 고급중학교로 진학하고, 일부는 직업고급중학교나 중등전문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전국에는 93,968개의 중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 여명이며 중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을 말한다. 즉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대학원 교육을 말한다.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대학과 학원(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 기능을 갖는다. 전국에는 1,396개 보통대학교와 민간이 설립한 72개 대학교가 있으며 교직원은 103만 여 명이고 재학생은 413만 명이다. 또 718개의 성인대학교와 민간이 설립한 4개의 성인대학교가 있으며 교직원은 201만여 명이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국가 '9.5' 계획기간에 '211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1세기를 맞아 100여 개의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을 들 수 있다. 평생교육은 성인 기술훈련, 성인 고등교육 및 문맹퇴치교육 등을 포함한 것이다. 전국 성인 기술훈련학교는 46만여 개로 재학생은 6,293만 명이 있다. 전국 각종 성인 고등교육 수료생은 28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라. 최근 중국 교육정책의 변화

세계은행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는 중국 정부가 1950년대 이후 문맹퇴치와 의무교육 보급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여러 차례 높이 평가했다. 1949년 중국은 전국 취학 연령 아동의 205만이 진학할 수 있었고, 성인 문맹률은 80%나 되었다. 그러나 2002년 9년제 의무 교육 보급률과 청소년 문맹 퇴치율은 모두 90%를 넘어섰고 청장년 문맹률은 5%이하로 떨어졌으며 중학교 입학률은 88.6%에 달한다. 교육 분야는 특히 최근 10년간의 성장이 눈부시다. 10년 전 400여만 명의 수험생 가운데 75만 명가량이 일반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 할 수 있었으나 2002년에는 527만 명의 수험생 가운데 320만 명의 학생이 일반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재학생 수는 10년 전의 218만 명에서 2002년의 903만 명으로 증가했고 대학원 재학생 수는 9만 4000명에서 50만 1000명으로 증가 했다. 1995년 18~22세 인구의 고등 교육기관 재학생 비율은 7.2%에 불과 했으나 2002년 이 수치는 15%로 증가, 현재 총 재학생 수는 1500만 명에 달한다. 10년 전, MBA는 이름조차 낯선 것이었지만 2002년 MBA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62개소로 늘어났고 3만 명의 학생을 모집했다. 최근 MBA뿐 아니라 EMBA, MPA 등과 청화대학 등 24개 대학은 국무원학위위원회의 전권을 위임 받아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2,400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교육비 투자는 최근 몇 년 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998년부터 중앙정부 재정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년 연속 매년 1%씩 꾸준히 증가했고, 대부분 성과 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재정지출 가운데 교육비의 비중을

높았다. 2001년 전국의 재정 교육비는 3,366억 위엔으로 GDP의 3.3%를 차지하였으므로 이는 본 지표 측정 이래 최고 수치다.

교육 각 단계, 각 영역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육 법률 체계가 완비되고 현대적인 학교관리 제도와 운영 시스템이 확립 되었으며 예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새로운 교육 관념들이 서서히 대중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다. 교육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외국어와 각종 전문자격증 관련교육과 시험이 붐을 타고 있다. 또한 재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육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에서 20년 내에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교육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0년 까지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를 약 1만 3500명,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를 3만 1000여 명까지 늘리고, 문맹과 반문맹의 비율을 3%이하로 낮추며 1인당 평균 교육연한을 현재의 8년보다 많은 11년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중국은 과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위해 가르치고, 시험을 위해 배우는 교육’의 풍조가 만연했다. 이는 1인당 평균 교육의 수혜기회가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기 이후 인성 교육 관념이 점차 중시되고 21세기에 들어 교육계는 학생의 창의성과 실천 능력을 기르고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연구, 근면함 등을 제창하는 등 인성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육 모델과 교수법이 모색되고 있다. 새로운 교과 과정 체계를 세우고 교재를 개혁하고 있으며, 인성 교육에 필요한 평가를 곧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제정한 의무 교육 단계 18개 교과과정의 새 표준이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새 교과 과정의 연구와 실험 작업도 전면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2001년 가을, 새 교과서가 전국 26개 성·자치구와 직할시의 시범 지구에서 사용되었다. 새 교과서는 일부 중복되고, 낡고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 내용을 삭제하여 현대 과학 기

술과 관련한 최신 지식을 보충하였다. 교재가 실제 생활과 괴리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기존의 교과과정과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과정에 외국어·정보 기술과목을 첨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실천 교육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촌에서 '綠色證書'를 포함한 대학원은 2003년보다 33%증가한 21만 70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등 교육기관의 과학 연구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어 이미 중국의 과학 기술, 특히 기초 연구 영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고등 교육기관의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학 기술 연구 성과로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이테크 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핵심 기술을 혁신한 제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22개 대학 내 국가 대학과기원이 신기술 성과의 산업화에 주요 전초 기지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 당국은 교사진에 대한 질적·양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 교육기관의 교원 가운데 교수와 부교수는 각각 전체 교원의 9.5%와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장년층이 교사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45세 이하 교원이 전체 고등교육기관 교원 총수의 79%, 35세 이하의 교원이 46%에 이른다. 고등 교육기관의 교원은 과학 연구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과학 연구나 지식 창조, 기술 개발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현재 中國科學院 원사 234명이 전국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평생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자질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2001년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45세 이하가 전체의 86%를 넘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직업의 안정성이 인정받고 보수가 높아지면서 교사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되었다.

우수한 교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수 정책인 '장강 학자 장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이미 69개 고등 교육 기관에서 특별 초빙 교수 412명과 석좌교수 33명을 채용했다. 많은 성(省)과 시(市)가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이 귀국해 좋은 근무 조건과 대우로 교직에 종사할 수 있

도록 대형 인력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2년 4월 28일에 칭화대학은 해외의 중국인 학자 28명에게 교수 초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의 연봉은 1인당 100만 위엔 선이며 매년 칭화대학의 經濟管理學院에서 3, 4개월 가량 근무하게 된다.

한편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대학교의 경우는 현재 한해 등록비가 평균 4,000위엔 이상에 달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1994년부터 총리 예비금과 긴급 재정으로 10억4500만 위엔을 투입해 고등 교육기관 재학생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87년 이래 중국 교육부 및 재정부와 각지 인민 정부는 중국 국정을 고려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학금, 학비보조대출, 아르바이트 제공, 특수 보조금 지급과 학비 감면 등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는 각 고등 교육기관이 “녹색라인” 제도를 운용해 가장 형편이 어려운 신입생들을 먼저 입학하도록 한 다음 이후 심사를 통해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의 학비 보조 대출은 현재 빈곤 가정의 학생이 진학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1999년에 시작되어 현재 어느 정도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다. 빈곤 학생은 신분 증명만 거치면 학비와 기본 생활비를 무담보로 신용대출 받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국가 재정으로 50%의 이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연 8,000위엔 정도이며 대출 기한은 8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출을 받은 학생 중 대학 졸업 후 계속 대학원이나 제2학위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출 기한이 그에 상응하여 연장된다. 국가 학비 보조 대출 이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동 기간의 대출 이율에 따르며 이보다 높을 수 없다. 中國工商銀行의 국가 학비 보조 대출 누계액은 2002년 7월 30일 기준으로 14억 500만 위엔에 달하며 461개 고등 교육기관의 20만 8900명의 학생이 공상은행 국가학비 보조 대출의 혜택을 받았다. 관련 교육 정책의 수혜 대상자인 불우 학생에는 빈곤

지역의 초·중·고교생도 포함된다.

2001년부터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전국 빈곤 농촌의 초·중·고교생에게는 매년 교과서 대금과 잡비에 대해 최고 한도액을 정하고 이 외에는 학생들로부터 다른 명목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2002년 이 한도액 표준은 농촌 초등학교의 경우 1인당 160위엔이고, 농촌 중·고등학교의 경우 1인당 260위엔 이었다. 이 정책은 초·중·고교생을 둔 농촌 가정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 정부의 빈곤 가정에 대한 교육 우대 정책은 이 외에도 1995년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총 89억 위엔을 투입해 빈곤 지역의 9년제 의무 교육 활성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1억 3000만 위엔을 투입해 소수민족 가정 가운데 빈곤 가정의 취학연령 학생의 취학을 보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정책과 2000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에 티베트 반과 신장 반을 개설, 티베트자치구와 신장 자치구에서 온 중학교 졸업생이 대도시의 일반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01년 5월 관련 법률을 제정해 1억5000만 명의 유동인구 자녀가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립교육은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립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사립 교육촉진법’이 2002년 12월 28일에 반포되었으며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립학교의 경영 방식은 날로 다양화 되어 유치원에서 4년제 대학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아우르고 있다. 2001년 말까지 각급 교육 행정 부처에서 준비한 각 사립 고등 교육기관은 1,202개로 등록 학생 수는 113만여 명에 달한다.

사립학교는 외국과의 교류·협력 면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많은 외국의 대학이 사립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과 외국의 합작 경영은 중국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주었으며 사립학교와 외국 학교와의 협력은 학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립학교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일부 사립 교육기관은 아직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내부 관리를

강화하며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고 신뢰와 명예를 쌓는 단계에 있다. 사립 교육과 공립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교육은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일부 대자본가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인터넷 교육은 이제 교육업계의 새로운 투자 핫 포인트가 되었다. 교육계 인사들은 현대 정보 기술이 만들어 낸 ‘벽 없는 대학’이 청년들에게 우수한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또 하나의 그린카드가 되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

1999년 사이버 대학이 개설된 곳은 북경대학, 칭화대학, 북경우전대학, 절강대학, 호남대학과 중앙 TV 방송대학의 6개 대학교에 불과 했으나 2000년 여름 베이징의 인민대학, 북경외국어 대학, 등 9개 대학교와 헤이룽장성과 산둥성, 상하이등 성과 대도시의 16개 고등 교육기관도 사이버 대학을 설립하였다. 사이버 대학의 최대 수혜자는 산간벽지와 교육 시스템이 발달 하지 못한 지역의 학생이며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들과 직장 인들도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광대역 기술의 점진적 보급도 인터넷 교육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다. 2001년 말까지 중국교육과학 연구망은 이미 2만km의 고속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28개의 국제 및 지역 채널이 전국의 주요 도시를 지나고 있어 중국 제2의 인터넷이 되었다. 전국 고등 교육기관의 70% 가량이 이미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이며, ‘서부 대학 캠퍼스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2000년에 개통된 ‘중국 교육 방송국 위성 광대역 멀티미디어 전송 플랫폼’은 8개의 TV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다. 이는 중국교육과학 연구망과 함께 현대 원격 교육을 위한 훌륭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특수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관련 법률, 법규의 반포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00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특수학교는 10년 전보다 네 배 증가한 37만 5000여 명이다. 장애인 직업 훈련 기관이 1,000곳, 장애인이 직업 훈련이 받을 수 있는 보통 직업 훈련과 기관이 약3,000곳에 달한다. 청각 장

에 아동의 재활 훈련 기관은 1,700여 곳이며 이미 훈련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고 있는 아동은 7만 여명에 이른다. 2001년 2,166명의 장애 학생이 일반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 했다. 2002년 9월, 상해 사범대학 외국어 학원에서는 시각 장애 응시자를 합격 시켰는데, 이는 대학 입시를 통해 장애인이 보통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첫 사례이다.

중국 ‘직업교육법’은 1996년에 반포되었다. 직업 교육은 주로 고등직업 학교, 중등 기술학교, 기술 공업학교, 직업 중·고교, 취업훈련센터와 기타 성인 기술훈련학교, 사회 훈련기관으로 구성된다. 중등 직업교육은 매우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001년 중등 직업학교 재학생은 1988년의 두 배인 1164만 명에 이르렀고 중등 직업교육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4,500여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01년 독립적으로 설립된 고등 직업기술 학교는 모두 386곳이며 재학생은 1985년 보다 11배 증가한 72만 명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서부지역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빈고 현에 186곳의 직업 교육 센터를 새로이 건설하였다.¹⁵

2. 일본 사회의 변화와 교육¹⁶

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최근 한·중·일 상호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연일 민족주의적 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삼국에서 이른바 삼국의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삼국 내의 민족주의의 대두로 분석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쌍방 채널을 통해서 각국의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고, 이로

¹⁵ www.chinapec.or.kr

¹⁶ 일본 교육은 김후련 교수(건국대학교)가 작성한 원고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인해 젊은층의 보수화, 우경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과거 대만에 대해서 50년, 한국에 대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하고, 중국과는 14년 간 중일전쟁을 한 과거사가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중·일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 역사적 문화적 근원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한·중·일의 묵은 감정이 끊임없이 분출할 염려가 있다. 과거사를 다룰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한·일간의 역사문제로 한·일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순수하게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과거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일선학교나 민간단체의 한국행이 취소되는 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파장이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인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일본에 적용했을 때,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 우익의 논리가 기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뿐이고 오히려 한·일관계와 양국 간의 국제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사실상 삼국간의 현안문제는 상호간에 마스크를 통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언론 플레이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로는 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상호간에 관련을 맺고 있는 역사문제에 관해 각국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교육되고 있는가, 그리고 역사교육 내지 문화교류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타지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심화될 따름이다.

한·중·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공방은 국제교류·협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과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최근 일본에서는 일국사(一國史)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진보적인 역사학자나 사상사 전공학자들을 중심으로 일국사의 틀 안에서 왜곡된 타자상과 자아도취적인 자기상을 만들어 내면서 자타인식의 괴리를 확산시키는 연구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 일국사의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하

고 나온 것은 국적(國賊)작가라고 자칭하는 모리스 히로시(森巢博)의 『무경계가족(無境界家族)』이다. 그는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본인’ 내지 ‘일본문화론’을 비판하면서 “일본 국적 소유자라는 의미 이외에 일본인이라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리스는 “만일 일본국적 소유자를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론, 일본문화론, 일본문명론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단정한다. 여기서 모리스가 말하는 일본인론은 일본인의 동질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본문화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는 모리스의 논의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일본열도에는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는 개성적인 사회집단과 지역사회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동질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일본인을 상정해 놓고 그 문화와 역사 연구를 추구하며 그 특질을 논증하려는 시도는 일본국, 즉 국가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허구적 논의이며 본질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니노미야 히로유키(二宮宏之)는 “전후역사학은 모든 것을 국민국가, 국민경제, 국민문화와 같이 국가주의 틀 속에 수렴함으로써 근대역사학의 역사의식에서 탈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 사실 니노미야 히로유키가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의 역사학은 일본사회, 일본민족, 일본문화, 일본인이라는 식으로 항상 ‘일본’을 주어로 서술하면서도 그 내부의 다원성이나 외부와의 연결고리에 눈을 돌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야 겨우 ‘일국사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吉彦)는 “일본 내에 만연하고 있는 일국사관의 폐해는 단순히 근대국민국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세기 말에 정해진 일본이라는 국명이 1300여 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일본은 고립된 섬나라로 주위와 격리된 채 일본국이라는 이름 아래 장시간에 걸쳐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일본인은 단

¹⁷ 『前後歴史學と社會史』.

일민족이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특한 일본문화를 형성해왔다는 허상을 사회적 통념으로서 받아들여왔다. 아미노 교수는 일본열도와 유리된 이러한 시각이 허상임을 깨닫는 동시에, 왜 이러한 그릇된 상식이 일본 내에 이렇게 깊이 침투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당면 과제의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보적인 일본학자들의 문제제기는 한국과 중국에도 똑 같이 해당된다. 똑 같은 논법으로 한국학자들에게 재중동포와 재미교포, 재일교포, 재소교포 등은 한국인인가. 그리고 그들도 한국문화론의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새삼 언급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정도이다.

지난 36년 간 식민지 근대를 경험한 한국의 지성인과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안 14년 간의 일본에 점령당한 경험을 한 중국의 지성인에게 있어서, 일본을 연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해부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타인식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삼국 상호간에는 ‘타자에 함몰된 연구’ 내지 ‘타자를 배제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각자 자신의 관심과 이해관계 속에만 존재하는 타자상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일국사(一國史)에 함몰되어 있는 한, 중, 일 학자들의 연구가 왜곡된 타자상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이버 삼국지’를 연출하며 일국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타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관심과 이해관계 속의 타자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는 한·중·일 삼국에 현재 필요한 것은, 일국사의 경계를 벗어난 관점, 이른바 탈근대, 탈국민국가(post-non-state), 탈문화경계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각이다.

이러한 역사인식 하에 최근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움이 2004년 4월 23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Frontiers or Borders)’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움에 출석한 학자들은 세계의 영토분쟁

과 이를 둘러싼 역사인식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했다. 국제심포지움을 주관한 한양대학교 임지현 교수는, “국가주권과 역사주권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통합하려는 동북공정의 시도는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와 남사군도 등의 주요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를 핵심연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근대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펼쳐진 ‘변경’을 자신의 ‘국경’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지현 교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독도(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해묵은 영토분쟁이 ‘채국민화’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일본의 ‘새역사교과서’와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밑으로부터 민족주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동북아시아의 역사논쟁은 세계화가 동북아시아에 미친 충격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 학술대회에 참가한 웨일즈 글레모건 대학의 크리스 윌리엄스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근대국민국가 시대는 구체적인 영토, 구체적인 문화, 구체적인 국가의 상응성을 강조하며 국경을 형성해 왔다. 국경은 상상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실체로서 국민국가를 대변해 온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경은 우리에게 갈등과 분리만을 제기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에게 공조와 통합의 기회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변경에 관한 연구는 국민국가의 논리 저 편에 존재했던 지역공동체 내지 역사공동체의 과거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역사논쟁과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는 국경의 틀을 해체하고 일국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변경사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각국의 지식인들이 서로 양국의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일·지(知)의 공동체’라는 모임을 함께 운영하여 양국의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

다. 한국과 중국도 고구려사 문제로 양국의 학자들이 모임을 가졌으나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 학자들 사이에는 새로운 연대와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시작하고 있다. 양국의 지식인들은 2004년 11월 18일 ‘한·일, 연대 21’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내년이면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최근 일본 내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과거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도 양국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모임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하여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엄격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진정한 상호이해와 연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팽창하는 중국의 내셔널리즘 속에서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서 고구려사의 자국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학문적 흐름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적어도 한·일의 학문적 흐름은 자국사 내부의 소수파를 돌아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자기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학문적 주류가 되는 시기가 되면 자연히 한·일 간의 학문의 방향이 일국사의 경계를 허물고 외부의 타자와 교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자기인식의 변화 없이는 타자인식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문제나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거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면 한국, 북조선인민공화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대만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교육협력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전후 독일이 역사교과서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로 얽혀 있던 인근 국가들과 함께 ‘국제교과서연구소’를 설립하여 1950년부터 1985년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동북아시아도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유학생 수 10만 명을 넘어선 일본과 중국의 유학생이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한류 열 이 확산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국가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

는 지금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역사나 영토에 관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1)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일본인의 역사인식

나가사키(長崎)에 원폭이 투여되고 일본이 항복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도 일본인의 잘못된 역사적 시각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이는 일본역사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허상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미노 요시히코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최근까지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이라는 국호를 언제, 누가, 어떤 의미로 제정했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패전 후의 그 어떤 역사교육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그 결과 현대 일본인들의 대부분은 일본이라는 국호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의미로 언제 제정되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다. 실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일본이라는 국명에 관한 기술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일본 문부성(文部省)은 일선 학교에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요구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히노마루(日の丸:국기)’와 ‘기미가요(君が代:국가)’를 가르칠 것을 강요하면서, 정작 문부성의 학습지도 요령에는 일본이라는 국호가 언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열도의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본 역사를 가르치려는 문부성이 왜 국호가 확정된 시기의 전후 사정에 관한 것은 가르치려하지 않는 것일까? 일본 문부성이 일본국의 국호 확정 시기에 대해 일본국민에게 가르치려하지 않는 것은 건국기념일의 허위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이다.

일본 국내에는 지금까지도 1966년에 제정된 건국 기념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의 술한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이 건국 기념일 제정을 극력 반대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했다.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재판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저명한 사학자인 이에나가 사브로(家永三朗)교수도 그 반대

론자의 한사람이었다. 1967년에 간행된 이와나미(岩波) 출판사의 『니혼쇼키』의 역주자 중의 한 사람인 이에나가 교수는, 교과서 검정과 건국기념일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앞으로 『니혼쇼키』 연구에 있어서는, 정치권력과 그 주구에 의한 진실의 왜곡을 단호히 거부하는 강인한 과학정신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여러 영역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기 위한 전문가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아미노 교수는 국기 국가법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과 아마도 국회의원과 각료 대부분이 자국의 국명이 정해진 때를 알지 못한 채, 게다가 그 나라가 허구, 신화로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기와 국가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자로서 허탈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현재 일본인의 자기인식에 관한 실상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는 메이지 이후의 국가교육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패전 후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후역사학이 일본을 모호하게 정의하면서 일본을 단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일본인론의 틀 속에서 학문적 성과를 올려온 결과인 것이다. 그 결과 1999년 니시오 칸지(西尾幹二)의 ‘국민의 역사(國民の歴史)’라는 새로운 역사관을 출현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이라는 국체에 대한 일본인의 애매모호한 인식이 ‘천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방해한 것이다. 그 결과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국체(國體)가 유지됨으로써, 차례로 ‘건국기념일’과 ‘원호(元號)법안’ 그리고 ‘국기 및 국가의 법제화’가 실현된 것이다. 이 법안은 일본의 건국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적 허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은폐한 것이다. 기원절은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폐지되었는데, 1966년에 건국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기른다고 하는 취지로 ‘건국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애매모호한 역사인식은 200년 5월 15일 당시 일본 수상이던 모리 요시로(森喜朗)가 국회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일본국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국(神國)’이라고 공언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같은 학문의 국가주의로의 선화에 편승해서, 1999년 8월 9일 일본 국회는 ‘히노마루(日の丸)’를 국기로, 그리고 ‘기미가요(君が代)’를 국가(國歌)로 규정한다는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안’을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 민주당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가결로 통과시켰다. 33년 만에 마침내 국기인 ‘히노마루’와 국가인 ‘기미가요’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동경의 여러 도립학교에서는, 국기와 국가의 강제 실시를 둘러싸고 올해도 트러블이 종종 발생하였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3월 30일 졸업식에서 기립과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인 교사 약 200명을 직무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국기와 국가에 반감을 품었던 전직교사가 학교의 의식을 방해하여 경시청에 업무방해로 고소장이 청구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 의식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히로시마 현립 학교의 교장이 국기와 국가를 둘러싼 교원과의 대립에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1999년에 국기와 국가를 법제화시켜 버렸다. 이 법률제정을 발판으로, 현재는 전국의 학교에서 국기와 국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일본의 국제교류·협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한일관계

한·일 간의 국제교류·협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다. 단적인 예로 일본 측에는 한·일 간의 과거사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을 몇 년이나 지배했는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 이는 ‘일한 21세기 위원회’라는 단체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앙케트조사를 했을 때,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몇 년이었는데에 대해 36년이라고 정확한 숫자를 낸 사람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았다. 한·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조차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국내에 확산되어 있는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현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글강좌를 시작한지 20년 만에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일본명 ‘겨울소나타’)’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로 힘입어, 4월 6일에 개강될 NHK 교육방송 한글강좌의 교재가 전국의 서점에

서 매진되면서 이례적인 추가인쇄 현상이 나타났다. TV 한글 어학강좌 교재(4월호)의 발행부수는 추가인쇄를 포함하여 20만 부에 달했다. 이는 영어를 제외한 제 2외국어 중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던 중국어 교재가 지금까지 15만 부를 기록했던 것보다 5만 부나 많은 수량이다. 이제까지 한국어의 발행부수는 독어, 불어와 같은 수준의 11만 부였는데, 거의 두 배를 인쇄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NHK 한글강좌는 시작된 것은 1984년으로 올해 20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것도 1976년에 NHK에 한국어 강좌 개설을 요구하는 일본국민의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 8년 후의 일이었고, 강좌명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진통을 겪었다. 강좌를 개설할 당시 남북한의 관계와 재일 조선인과 재일 한국인 문제 등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역학적 관계로 인해 강좌의 명칭을 ‘한국어’로 할지 아니면 ‘조선어’로 할지 NHK는 무척 고심했다. 결국 NHK는 한국어도 조선어도 아닌 문자의 의미인 ‘한글강좌’로 채택하고, 강좌명도 ‘안녕하십니까 한글강좌’가 되었다. 이와 같은 20년 한글강좌에 지각변동이 발생하게 된 것은, NHK가 작년도에 방영된 한국영화,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여 이번 교재에 ‘겨울소나타’의 대사를 수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NHK종합 TV에서 방송되는 겨울연가의 대사로 한국어를 공부하길 원하는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 일고 있는 ‘한류문화’를 대상으로 동경 시부야(澁谷)구에 있는 고쿠렌(國連)대학에서 8월 24일 ‘일한 학생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은 한국문화 붐은 일시적인가, 아니면 계속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양국의 문화, 정치, 역사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주최로 ‘미디어와 인간관계’를 테마로 하여 한·일 양국과 재일 동포 학생들이 31명 참가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일본 학생들은 “일본 드라마는 복잡하고 차갑다, 이에 비해 겨울연가와 같은 한국의 심플한 러브스토리는 잊고 있었던 사랑의 애뜻한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반면에 “겨울연가는 워낙 부드러운 멜로 드라마여서 인기는 있었지만, 다른 한국 드라마에 느낄 수 있는 체취를 느낄 수 없었다”며, 한국드라마 붐은 일본사람들의 단순한 향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어느 재일 동포 학생은 “한국문화 붐은 역사 문제를 뒤엎어 버리고 있다”며 과거 역사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인 학생은 “한류가 과거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걱정은 기우일 뿐이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 오히려 ‘과거’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호기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겨울연가’의 인기에 대해서 한국통인 도카이(東海)대학의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수는 일본의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이토록 열광했던 것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며, 한국이 일본의 동경의 대상이 된 것은 일본의 ‘고대국가 성립기’와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구라 교수는 겨울소나타의 키워드를 부동의 존재인 ‘북극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이와 같은 북극성이 없는 사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고 중심 없이 모든 것이 부유하면서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북극성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의 존재에 대한 동경이 이 드라마의 흡인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내의 한국 붐에 대해서, 한글강좌 개설 운동가였던 조선 문화가인 오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 와세다 명예교수(70세)는 “축구도 그렇고 드라마도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문화적 이질감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진정한 문화이해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보는 안목이 결여된 지금의 상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오무라 교수의 지적은 사실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처럼 일본국민의 한국문화지향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은 한반도 전체를 보는 인식의 결여와 한·일간의 과거사에 눈을 돌리고 싶어 하는 일본인의 애매모호한 역사인식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과거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어디에서 유래하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전(戰前)과 전후(戰後)로 나누어 일본의 교육문화와 그 특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일본의 교육문화 특성이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국민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아시아에 대한 타자인식은 철저하게 전전과 전후의 일본교육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지적에 의하면 일본은 아시아의 역사는커녕 일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한·일의 국제교류·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일본의 교육문화특성을 통해서 일본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 전후 일본의 교육개혁

1945년 패전으로 인해 일본은 천황제 체제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해방된 공산당 지도자들은 ‘천황제 폐지, 천황의 전쟁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연합국측에서도 천황제 폐지가 논의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천황의 지위에 대한 혁명적 변혁을 바라지 않았다.

천황제 폐지가 한창 논의 중이던 1946년 1월 1일 천황은 ‘신일본건설에 대한 조서’이른바 ‘인간선언’을 발표한다. 조서에서 천황은 신일본 건설의 5개 방침으로 5개조의 서문을 제시하며, 이어서 천황과 국민의 유대는 상호간의 유대와 경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발표한다. 즉 신화와 전설에 의한 종전의 왜곡된 신적인 권위를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천황을 신으로 숭상하고 천황을 위해 전쟁을 하고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이 책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이와 같은 천황의 ‘인간선언’을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지지하고 연합국도 포츠담 선언의 취지에 걸 맞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연합국의 점령군은 천황에 대한 일본국민의 전통적 심리를 점령 정책에 유용하게 이용한다.

1946년 1월 일본정부는 천황주권 원칙을 고수하며 부분적 수정에 지나지 않는 ‘헌법개정요강’을 제출한다. 그러자 연합국 총사령부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헌법 초안을 기초해서 채용하도록 요구한다. 1946년 10월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가 ‘대일본제국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자, 일본수상은 내각에 헌법문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하여 ‘헌법개정 초안 요강’을 작성해 3월에 발표한다. 이 초안은 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 추밀원의 심의와 제국의회 의 수정을 거쳐,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주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전전의 일본교육의 중심과제였던 ‘수신’ 과목을 폐지하고, 인권과 평화 교육을 과제로 하는 ‘사회과’를 발족하는 것은 전전과 전후의 교육관의 대전환을 상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지시하는 교육을 보면,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인권의식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국민을 형성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따라서 도덕교육도 특정한 교과서가 아니라 전체교육을 통해서 도덕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교과서도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다. 전전의 국정교과서 체제를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꾼다.

(1) 전후 일본의 교육개혁

패전 직후에 전개된 교육개혁은 외부의 연합군사령부와 내부의 문부성에 의해 주도된 개혁이었으며,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교육정책이었다. 1946년 3월 연합군총사령부의 초청으로 일리노이대학 총장인 스트더트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교육사절단이 일본에 와서 약 1개월 동안 일본의 교육사정을 시찰하고 일본 측 위원회와 토론을 거듭하여 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서 시사하는 바를 감안하고 신헌법의 정신에 근거하여 기초한 것이 ‘교육기본법’이다.

1947년 3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교육칙어’를 대신하여 태평양전쟁

후의 일본의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을 보여주는 법으로, 이른바 교육헌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은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진리와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의 육성을 교육목적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남녀공학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한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교육에 대한 원칙을 명시한다. 학교교육법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이념을 제도나 내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전후의 일본교육은 ‘일본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들면서 전후 민주교육이 재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축으로 해서 새로운 학제가 탄생한다. 전후 일본의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들어있는 이념은 개인존중,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해 온 인류의 투쟁적인 역사발전과 관련을 맺고 있다. 동시에 일본의 새로운 교육이념은 전전의 일본국가체제에 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 속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과 그 기능에도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전후 개혁기의 ‘교육기본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후의 일본교육은 ‘인권’과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창조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은 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교육의 자유 역시 정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함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공포한다. 즉 교육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헌법적인 자유(헌법원리에서 내재적으로 끌어낸 자유)로 간주하여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중심원리의 하나로서 규정한다.

이로 인해 의무교육에 대한 관념도 크게 전환된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헌법 제 26조는 정신적인 자유권(제 13조, 제 21조)을 전제로 해서 직접적으로 제 25조의 생존권 규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생존권적,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문화적인 측면에 관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상정한다.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도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부모 혹은 국가

와 사회가 교육기회를 배려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전전의 교육과는 달리 전후의 교육은 개개인의 인권인 동시에 모든 이들의 권리(공공·공동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통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근거도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이다.

한국전쟁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일본의 독립을 계기로 하여 전후 민주주의를 향한 수정이 시작된다. 이케다(池田)와 로버트슨 회담(1953년)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헌법 제 9조’와 함께 ‘평화교육’이 거론된다. 뒤이어서 교육기본법체제에 관해 수정과 재검토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제 2 법률의 성립(1954년)은 교육의 중립성 원리를 크게 변질시킨다. 본래 중립성의 원리라는 것은 국가가 교육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건을 정비하는 선에서 그 임무를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법률로 인해 올바른 중심역할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국가가 무엇이 편향되어 있는지를 재단하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지방교육행정법의 제정(1956년)으로 교육위원회법은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었고, 교육위원회의 공개선거제도가 임명제로 바뀐다. 교사에 대한 근무평점제도의 실시(1958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과 교과서 검정기구의 개편(1958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학력시험(1961년), 그리고 행정연수의 강화와 자주연수의 통제 등을 통해서 일본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 국가가 복권되는 움직임으로,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주장은 전후교육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다. 전후의 일본교육이 평등을 추구하는 한편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었다고 하면서, 능력주의를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능력에 따라서’라는 구절을 원용하여 합리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을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¹⁸ 호리오 데루히사·가네코 마사시, 『교육과 인권』 (이와나미 서점, 1977), 제 2부 참조.

은 전후 교육개혁의 정신과 입법사상에 따른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육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패전 전의 획일적인 교육을 비판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본경제는 활기를 띠기 시작해 1955년부터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도 고도경제성장 과 국제적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산업계로, 산업계의 선두 주자인 일경련(日經連)이 제시한 ‘능력주의관리’에는 당시의 인력개발중심 교육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

산업계로부터 제시된 인력개발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신교육 재검토에 관한 요망(일경련, 1952년)
- ② 현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요망(일경련, 1954년)
- ③ 신시대의 요청에 대응하는 기술교육에 관한 의견(일경련, 1956년)
- ④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의견(일경련, 1957년)
- ⑤ 소득배중계획에 따른 장기교육계획 보고(경제심의회, 1960년)
- ⑥ 기술교육의 획기적 진흥책의 확립추진에 관한 요망(경단련, 일경련, 1961년)
- ⑦ 후기중등교육에 관한 요망(일경련, 교육특별위원회, 1965년)
- ⑧ 산학관계에 관한 산업계의 기본인식 및 제언(일경련, 1969년)

이와 같이 일본의 산업계가 주도한 교육개혁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 혁신에 따른 기술교육에 관한 확충과, 이를 위해 산업계와 대학의 산학협동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산업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력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해서 문부성도 1962년 ‘일본성장과 교육’이라는 교육백서를 발표한다. 이 교육백서는 국민소득 총증가분의 25%가 교육자본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규명함으로써, 교육투자론이 고도경제성장기 교육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서 1963년에 ‘경제심의회’가 작성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인간능력개발의 과제와 대책’은 일본교육의 능력주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다. 이 책에는 “일본사회도 학교교육도 이제는 능력주의 방식으로 재편성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문부성은 특히 교육투자의 증대, 후기중등교육의 완성, 고등교육의 확충,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목표로 교육의 양적 확충을 도모한다. 고도경제성장기의 교육개혁 논리는 일본경제의 사활을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산업계로부터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는 일본의 기술교육을 비롯해 교육개혁 전반에 걸친 교육개혁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60년대의 교육개혁이 산업계의 주도로 추진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당시의 일본교육은 산학협동의 직업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의 교육정책, 특히 산학협동에 의한 직업교육정책은 ‘산업발달선도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1966년 중앙교육심의회는 ‘기대되는 인간상’을 제안하였는데, 그 요지는 경제성장이 가져온 시민사회의 급격한 팽창과 성숙, 이에 수반하는 인간소외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의욕과 사회연대의식의 함양, 사회봉사정신의 육성 등이 강조된다. 아울러 개인적 이기주의의 배격과 애국애족의 정신이 강조된다.

교육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경제의 고도성장에 수반한 소득수준 향상과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사회가 크게 변모하는 가운데 교육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내용은 전국의 어디에 있어도 질적으로 동일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은 교육과정기준으로서 학습지도요령을 제정한다. 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서 교과서검정이 시행되고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주요한 교재로 이용하면서 아동학생의 발달상황이나 지역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 또한 교직원 수를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1968년에는 45

명 학급, 1975년에서 1991년에 걸쳐서 40명 학급을 실현한다. 교직원 수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가운데, 뛰어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74년에는 교원급여를 일반 공무원에 비교해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이른바 ‘인재확보법’이 정해지고 교원급여 개선이 진전된다.

한편 일본은 경제대국에 걸맞게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교육을 더욱 보급하면서 고학력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양적인 면에서는 의무교육의 연한이 9년으로 정착하고, 해당연령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40%에 육박함으로써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 2위의 교육대국이 된다. 이는 정부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해서 일본 특유의 학력주의 학벌주의에 의해 국민의 교육열이 에스카레이트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의 질적 저하, 교내폭력, 청소년 비행 등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교육황폐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1960년의 경제주의적 인력개발론은 쇠퇴하고 개인의 주체적 교육과 창의성을 중시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평생교육론이 대두한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교육은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1971년 ‘중앙교육심의회’에 의해서 제 3의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진다. 제3의 교육개혁안은 개인의 주체적 학습의욕에 입각한 능력개발을 중시하고 교육기본법체제에 관한 전면적인 개선과 학습기회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1972년부터 이과교육 및 산업교육심의회로부터 ‘직업교육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당시까지 추진 시행되던 고교다양화정책을 유보하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격차가 심한 인문계 학과와 직업계 학과의 교과구성을 양쪽에서 조정하여 고교교육 전체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교육을 중시하고 직업교과 내용을 정선하여 필수교과 35단위로 탄력화하면서, 대학진학의 과도한 경쟁체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직업고교 학생들을 위한 산업대학 구상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 후 정부가 본격적인 고교제도 개혁, 특히 보통과 개혁을 향한 준비를 시작한 것은 1976년의 ‘교육과정심의회의원회의 답신’과 1978년의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이 제기한 탄력적인 다양화 방침 이후부터이다. 이 방침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장기 심의회’에 설치된 고교문제 프로젝트팀이 1979년 새로운 타입의 고교로서 단위제고교, 집합형 선택제 고교, 6년제 고교의 설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정리한다. 이러한 제안은 나중에 ‘중앙교육심의회’와 ‘임시교육심의회’가 전면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개혁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사이타마현(埼玉縣)이 전국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된다. ‘사이타마교육위원회’는 1980년에 종합선택제고교 설치를 결정하고 1983년에는 복합형 전문(직업)고교로서 니이자(新座)종합기술고교를 설치한다. 이어서 1984년 이나(伊奈)학원종합고교(종합선택제 보통고교)를 신설한다. 사이타마현에서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신설 고교 전부가 보통과였는데, 1983년 이후의 신설고교는 보통과 단독고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후 1985년 이후의 신설교를 모두 전문(직업)학교로 한다.

한편 1985년 6월 26일 일본의 ‘임시교육심의회’가 제출한 ‘교육에 관한 제1차 답신’에 의하면, 일본의 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 아래 교육을 중시하는 국민성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일본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온 일본의 교육은 외국에 비하여 초·중등 교육 수준이 높고 전반적으로 지적수준이 높은 국민을 육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전개된 교육정책은 인간의 성장 발달을 위하기보다는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육투자론에 입각하여 능력주의를 축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다.

이후 일본전국 차원에서 ‘새로운 타입의 고교’와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정책은 ‘임시교육심의회답신’을 경유하여 1990년대에 들어가 본격화된다. 보통고교에 대한 새로운 코스 도입(새로운 다양화), 입시선발방법의 다양화, 보통학구의 조정과 확대 등을 병행한다. 1991년 4월에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제반제도 개혁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종합학교고교의 창설(1994년도에 7개 고교 발족)을 실현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타입의 고교 중에 적어도 몇 가지 형태는 민간의 교육운동단체 측에서도 적극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2) 전후 일본의 교육문화 특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단과 사무국 대표는 1970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학교관리자, 교사, 교사단체, 학생, 학생단체, 대학교수, 대학관리자, 각종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토론을 할 기회를 갖는다. 학교, 캠퍼스, 지역사회, 기업, 공장, 지방교육위원회 문부성 등이 회합과 토론 장소가 된다. 이는 조사단이 교육정책에 관한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밀도 있는 토론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합을 통해 조사단은 ‘일본의 경이적인 성장의 비밀’은 교육에 대한 사회투자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견해는 일본의 지식인이나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어 지금까지 공식견해라고 해도 좋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초·중등교육의 견실한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일본만큼 확신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달리 없을 정도이다. 일본의 초등교육은 20세기에 들어간 시점부터 이미 사실상 일반인의 것이 되고 그 이후는 그 기초 위에서 서서 중등교육이 착실하게 대중화의 방향을 걸어왔다. 그 후 전후의 교육개혁의 결과 의무교육의 연한은 9년으로 연장되고 1970년대에 들어가면 이미 고교 진학률이 80%를 넘는다.

조사단의 지적대로 기술과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이 이를 뒷받침해 온 것은 사실이다. 다른 OECD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1970년대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경제성장이었다. 1970년대에 일본은 저개발국가 특유의 이중경제에서 공업생산에서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경이적인 변신을 이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주식회

사'라고 불릴 정도로 관·민·학의 협동체제가 이루어진다.

일본주식회사는 일본 정부와 산업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교육계와 산업계의 관계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경제의 우선 순위가 높은 부문에 있어서 정부와 산업계는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채택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피한다. 이는 일본인의 공통적인 성향으로 각 집단 간에는 물론이고 집단의 내부에서도 서로 상이점을 조장하면서 상호협의 하에 결론에 도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OECD조사단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학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일원론적 가치관이나 일원론적 정치교화의 색채가 지나치게 농후하였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고도경제성장기의 교육정책은 경제합리적인 능력주의를 교육개혁의 기본원리로 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을 인재선발하고 분류해서 배분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인재육성의 장으로 국한시키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진학요구를 배경으로 하여 학교는 한마디로 인재선별하고 배분하는 기구로서 기능한 것이다. '경쟁은 인간사회의 원리'라는 생각 하에 시험을 일상화하고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동을 선별하는 방식을 정착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뀐 이후 경쟁과 선발이라는 압력은 학교교육에서 더욱 거세어진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입시경쟁은 날로 심각해지면서 입시관련 산업이 번창하는 이중 학교현상이 진행되었다. 대학입시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모자라는 잠을 자는 보충하거나 친구끼리 모여서 집담하는 휴식처로서 생각하는 도차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 이로 인해 입시산업은 이제 교육산업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입시 경쟁체제에서 한 번 탈락한 학생은 다시는 그 집단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석차와 중·고등학교의 석차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교육황폐화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등교거부와 집단 이지메(왕따) 현상으로 표출된다. 이지메가 일본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이

지메를 당하는 학생들의 등교거부로 이어지면서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지메는 피해자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 반하여 가해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지메 현상은 일본인들의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빨간 신호등도 셋이서 같이 건너면 두렵지 않다’는 일본인의 집단주의의 폐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지메에 가담하는 학생들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 한다는 것은 일본인들의 도덕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일체 개선되지 않고 일본은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마다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이미 일본에서는 경험한 적이 있는 병리현상이다.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교육의 의미는 완전히 소실되고 사회전체가 입시경쟁체제에 휘말려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입시제도 개혁이 한국의 교육개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한국의 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러한 파행적인 학교교육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특정학생들을 괴롭히는 왕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교육행정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학교제도를 정비하고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진실로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에 관계하는 교육적인 가치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관은 그에 어울리는 인간관 내지 사회관과 직결되어 있다.

다. 일본 사회와 교육의 현재

일본의 교육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기회균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등 그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올려왔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상황에 눈을 돌려보면,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이다.

첫째는 도시화가 진전되고 자녀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
의 교육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학교내부의 문제로는 이지메(왕따),
등교거부, 교내폭력 등으로 이른바 학교붕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
으며, 학교외부에서는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청소년에 의한 흉악한 범죄가 속
출하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 사이에 공적인 윤리를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
는 전전의 군국주의 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해 온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
이 변화하고 아이들이 사람이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연마할 기회
가 감소함으로써 사회성이 저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아이들
의 사회성 저하는 규범의식의 저하로 직결됨으로써 공적인 윤리를 경시하
는 풍조가 확산되고 청소년이 자기만의 고독한 세계로 침잠하는 경향을 조
장하고 있다.

셋째 지나친 평등주의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와 과도한 지식의 주입에 의
해, 아이들의 개성이나 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이 경시되어 왔다. 또한 학교제
도나 입시교육 등 현행의 교육제도가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이나 능력을 최
대함으로써 신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세계적인 규모로 거래되는 경제와 정
보화 등 사회경제의 변화가 급속하여 지금까지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의 교육제도 전체와 이와 관련된 관계자의 의식이 이 시대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행의 일본교육은 사회경제의 변화와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혁과 아울러 시
책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교육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육개혁국민회의보고”를 토대로 2001
년 1월에 금후의 교육개혁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주요시책과 과

제, 그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21세기 교육신생 플랜’을 정리한다. 2001년도에는 이 플랜을 토대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6가지 교육개혁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는 것과 동시에 예산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2002년도에 시행된 교육개혁에 관련된 법률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립대학의 통합, 단기대학부의 폐지 및 고등전문학교의 신설에 대해 규정하는 국립학교 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② 교원면허제도상의 탄력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 사회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교원면허상의 실효 및 취소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교육직원면허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③ 교유(敎諭)로서 재직기관이 10년에 달한 자에 대해 개개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특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한편 2002년 8월 문부과학장관은 의무교육에서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까지를 관통하는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전망으로 ‘인간력(人間力) 전략비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능률한 일본인 육성’을 발표한다. 이 ‘인간력 전략비전’은 금후의 교육행정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능률한 일본인 육성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확실한 학력 육성(국민의 교육수준은 경쟁력의 기반)
- ② 최고수준의 두뇌와 다양한 인재육성(세계를 리드할 인재)
- ③ 「지(知)」의 세기를 리드할 대학개혁(경쟁적 환경 속에서 개성을 발하는 대학 만들기)
- ④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일본인(세계에서 신뢰받는 일본과 일본인)
- ⑤ 감동과 충실
- ⑥ 풍부한 마음의 육성(가치관, 공공심, 배려심)

이와 같은 교육이 실현될 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률한 일본인, 다시 말하면 지의 세계를 리드하는 최고수준의 인재육성, 풍부한 감성의 문화와 사회와 계승하고 창조하는 일본인,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교양 있는 일본인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이 초·중·고교와 대학이 각각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 이들 각 단계별 학교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기를 살아갈 능률한 일본인을 육성한다는 큰 차원에 입각해서 각각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해서 인간형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를 둔 것이다.

3. 중국 및 일본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교육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3국은 사회변화와 함께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교육의 특징을 한국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중국과 일본 교육의 변화 양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중국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먼저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부터 급격히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변화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변화와 함께 교육 개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특징이 혼재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의 사회 체제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도 당연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변화는 모순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변화이며, 사회적으로도 혼란의 와중에 휩싸이게 한 변화이다. 즉

중국의 과거 계획 경제는 국가 주도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경향이 매우 강한 경제 체제이다. 이런 계획 경제 하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각 단위가 시행하는 것을 집행, 감독한다.

이런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개체의 자율성과 경쟁이란 확보되기가 쉽지 않고, 획일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띠기 쉽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는 이러한 획일적이며, 폐쇄적인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시기였다. 예컨대 교직원은 ‘단위 소유제’에 의해 이동이 거의 없었으며, 경직된 학년제 운영, 일률적인 공비에 의한 교육 및 해외 유학, 대학 입학시험 제도의 폐지 등은 고전적 마르크스 이념에 따라 형성된 제도들이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 이전 중국의 교육 체제는 중앙 집중적, 획일적,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대학 학생 선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 과거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하는 대학 학생 선발 방식은 학교에게는 아무런 선발 권한을 주지 않고 단순히 행정적인 선발 업무만이 주어졌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에 의해 대입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970년 초에 이르러 부활되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완전한 대학 입시 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정치사상에 따라 추천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절름발이 대입 제도의 부활이었다. 이때의 신입생 선발 규정을 보면 2년 이상의 실천 경험이 있는 노동자, 농민, 해방군 사병만이 입학 대상이 되었고, 당해연도의 고급중학교 졸업생은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대학에 지원하는 자의 학력조건도 ‘초급중학교 졸업 이상에 상당한 실제적인 문화 수준을 갖추고 있는 정도’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입학시험 제도도 폐지되었다. ‘지원해서 입학신청을 하고, 군중의 추천을 거쳐, 지도자의 비준과 학교의 복심’을 거쳐 입학이 허가되었다.

이러한 추천제 형식은 더욱 국가의 통제를 가져와 대학은 단지 추천된 학생을 받아들이는 거수기로 전락되도록 만들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대학입시 제도가 정식으로 부활되었지만 당시는 개혁 개방이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입시제도 자체가 계획 경제의 체제에 맞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개혁 개방 이후 시장 경제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되면서 입시 제도도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4대 현대화 건설에 주력하면서 실용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보다 개방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대입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비생 제도의 도입은 우리가 말하는 기부금 입학제와 그 성격이 비슷한 제도이며, 1997년부터 입학하는 대부분의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는 학비 제도 등은 계획 경제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계획 경제 시대의 산물인 국가 주도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입시 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 수준의 학생모집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합격 규제 점수선의 설정, 정향 배양 등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계획 경제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한 가지 예를 통해서도 중국의 교육 개혁은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특징이 혼재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 개혁이 체제적 균형 및 기능론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 전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투철한 신념을 지닌 사회주의자를 양성하여야 하고, 학교 또한 계급투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심리 역동적인 접근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을 모집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대부분의 지식인이 박해를 받았다. 교육과정의 내용도 대폭 줄어들고 대신 남은 시간에는 생산 노동에 참가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또한 학교 교육도 많은 부분이 사상 교육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급투쟁이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갈등론적 패러다임은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사회지도층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7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포함한 체제 상호간에 조화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이 교육 쪽에서 체계화 되어서 나타난 것이 중국 정부가 1985년에 발표한 ‘교육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이란 문서이다. 이러한 입장은 등소평이 말한바 있는 黑猫白猫論과 같은 체제 균형적, 기능론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중국의 교육 제도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지켜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4대 현대화¹⁹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띄고 있다. 이는 등소평이 강조한 우홍우전²⁰한 인재 즉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업무의 전문성도 지니고 있는 즉, 양쪽 면이 고루 발달된 인재의 양성을 말하는 것이다.²¹

한편 교육 개혁의 내용으로 본 중국 교육 개혁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교육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중국 교육 개혁의 기본 정신은 등소평의 교육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은 바로 교육 개혁의 내용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등소평의 교육관은 실사구시,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 3개 면향, 지식 및 인재의 존중, 전면 발달과 사회주의 신인의 배양,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²² 그러한 교육에 대한 등소평의 관점은 모두가 사회주의의 입

¹⁹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등 네 부분의 현대화를 말한다.

²⁰ 又紅又專: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사람에게 대해서 정치와 업무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제출해 내온 요구이다. “紅”은 바로 사회주의의 정치방향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상에서 4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專”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紅은 하나의 정치표준이고, 專은 하나의 업무표준이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우홍우전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각오가 있고, 문화가 있는 노동자를 배양하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인재를 구별하는 근본표지라고 본다. 중국에서는 우홍우전의 인재만이 사회주의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본다. 구자역, 『중국의 교육』 (서울: 원미사, 1997), pp. 423-425.

²¹ 위의 책.

²² 구자역, “개방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관 고찰 : 등소평의 교육관과 중국교육의 변화”. 『한국교육』, 제24권 제1호, p. 9.

장을 견지하면서도 교육에 대해 유연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실사구시와 같은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하고 있다. ②교육이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다. ③3개 면향²³과 같은 주장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④사회주의에 맞는 인재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⑤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이라는 공산주의 교육 이론을 밑바탕에 분명히 깔고 있으면서도,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이라는 원리를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²⁴

이상의 논리를 보면 등소평이 교육을 해석하는 입장이 상당히 유연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유연한 해석은 곧바로 중국의 교육 개혁이 사회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교육 문제에 대해 비교적 융통성 있는 개혁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교육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안주해왔다. 그러다가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후 새로이 받아들인 시장 경제는 계획 경제 시대의 논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도 경쟁과 경제의 논리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교사에 대한 성과급제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교육에 경제의 논리를 도입한 것까지는 좋으나, 모든 문제를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가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시장 경제의 논리인 업적주의, 능력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교육 규율인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보조로 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이번 교육 개혁안에서는 평균주의를 배제하고 업적주의, 능력주의를 우선하는

²³ 1983년 10월 등소평이 북경경산학교를 위해서 써준 제사 “교육이 현대화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줄여서 “三個面向”이라고 부른다.

²⁴ 구자역, “개방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관 고찰,” p. 19.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이 시장 경제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면서 봉급 격차를 권장하고, 자율 경쟁을 통해 취업하도록 하고, 교수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 하도록 하며, 국가는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 대학만을 우선하여 중점 육성하겠다는 개혁안들은 이런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덕·지·체가 전면 발달된 인간을 양성한다는 중국의 교육 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든지, 낙후 지역에 교육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장애인 교육의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매우 낮아 이번 개혁에서는 소외된 감을 주고 있다.

넷째, 교육 개혁은 개방 체제 위에서 자율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 문화 혁명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폐쇄 체제를 견지 하였다. 1970년대 후반 개혁 개방이 시작되면서 극소수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개방하면서 그 효과를 그대로 점진 개혁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여전히 계획 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어 폐쇄적이고 타율적이었으며 대부분이 평균주의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을 제시하고 개혁을 가속화시켜오다 드디어 19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공식 도입하게 되어 개방체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 개혁도 맥을 같이하여 개방 풍토 위에서 자율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기조로 전환되었다. 교육 개혁 사항 중에 이런 특성을 띤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취업하도록 한다든지 교수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하며, 각 지방과 학교가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교사 봉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모집 정원, 학부 조정을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섯째, 사회 발전에 따라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문화 수준도 올라감에 따라 교육 수준과 질을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다. 등소평이 강조하였던 4대 현대화는 과학 기술이 관건이며 과학 기술의 발전은 교육이 기초라는 관점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에서 중국 국민의 교육 수준을 올리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기초 교육을 강화하여 9년제 의무 교육을 기본적으로 보편화하고, 대도시와 연해 발달 지역은 유아 교육과 고교 교육의 요구를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문맹수준을 5%로 낮추고 성인교육도 계속 강화하여 정신문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11공정이라는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사 교육의 질도 높여 자질 높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일본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쟁이 날이 격화되고 정보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각각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각국의 새로운 학교구조에 공통하는 것은 ‘학력’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력 문제에 관한 각국의 목적이나 그 해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주나 지방에 대해서 교육과정기준을 설정하고 공통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최근에 급속하게 학력문제가 부상하고 있고, 전국공통의 도달목표를 설정하지는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교육에 대해 반성하면서 교육의 다양화와 탄력성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구미의 선진국가에서는 ‘기초학력’을 지향하고 있고, 일본, 중국, 한국에서는 ‘창조성’을 지향하는 학력을 목표로서 강조하고 있다.

과열된 수험경쟁이나 획일적인 교육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공통

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 인간육성을 목표로 해서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95년에 국제화와 정보화 진전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방향이 책정된다. 이 방침에 따라 1997년에는 교육기본법이 제정된다. 1998년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도 이 방침을 계승하면서 ‘교육을 기초로 한 국가발전’을 주창한다. 특히 초등·중등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제창하면서 학교의 자주성과 자립성 확립을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생활체험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의 기준은 국가가 정하고 있는데, 학생의 학습수준에 따른 수업, 종합적인 학습시간인 ‘재량활동’의 확대, 고교단계의 선택과목의 대폭적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학교교육에서는 예절이나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 사상, 정치면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덕육(德育)이 인성교육이라고 불리며, 중요한 교육활동으로서 확립되어 있다. 인성교육은 기본적인 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와 같은 전통적인 윤리, 예절, 공동체의식 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바른 생활’과 3학년 이상의 ‘도덕’(주 1~2시간)이 중심이 되어 있다. 또한 교원 훈화나 생활지도, 특별활동(주 1~2시간)과 같은 학교행사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중에 학교의 자주성, 자립성을 확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어 예산과 인사를 포함한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6년부터 전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조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원, 학부모, 지역대표 7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고 심의사항은 학교예산과 결산, 교육과정 편성, 교과서 선정, 학칙의 제정과 개정 등 의 중요한 안건이다. 또한 학급편성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초·중학교에 35인 이하의 학급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적 경쟁체제의 틀에서 벗어나면서 아울러 교육의 평등주의라는 이름 하에 발생한 학력저하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스스로 사고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전의 집단주의적 가치나 행동양식에 길들여져 있는 일본인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전후 국제 사회에서 지적 세계를 리드할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라는 면이 중요한 과제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첫째 과제인 확실한 학력 육성, 둘째 과제인 세계를 리드할 최고수준의 두뇌와 다양한 인재육성, 셋째 과제인 ‘지(知)’의 세기를 리드할 대학개혁은 노력 여하에 따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본다. 2004년 4월 1일부터 법인화된 일본의 국립대학들이 치열한 ‘홀로서기’ 경쟁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이다. 법인화는 그동안 국가의 보호 관리를 받던 국립대학교를 국가로부터 분리시켜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제1위의 도쿄(東京)대학은 일본의 사회지도자를 길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으로,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에 비해 일본대학의 위상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한편 교토(京都)대학은 학문의 산실로서 노벨상 수상자를 길러낸 대학이다. 일본 내에서 교토대학의 지명도는 높은 반면 세계에서의 지명도는 거의 무명에 가깝다. 이에 교토대학은 2004년 4월 1일자 국제영자지 『인터내셔널 헤럴드 프리분』에 800만엔을 들여 대형 이미지 광고를 실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해외로부터의 인재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넷째 과제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일본인, 즉 세계에서 신뢰받는 일본과 일본인을 육성한다는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거사와 그리고 과거사를 다루는 일본의 전후교육의 인식부족이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기와 국가에 대한 입장만 해도 교육위원회와 학교장 그리고 일선교사와 학부모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가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체제중심형 교육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인데 반해, 후자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자유주의형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일본정부의 정치적 입장에서 독립해서 교육의 현장에서 과거사에 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는 한 이 과제는 허울 좋은 구호로 그칠 공산이 크다.

다음은 다섯째 과제인 감동과 충실, 그리고 여섯째 과제인 풍부한 마음인데, 이 과제는 더욱더 지난하다. 제도화된 입시교육 때문에 교육이 주는 감동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풍부한 감성을 키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일본사회전체의 가치관이 변화를 전제로 한 개혁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편사치 중심의 교육제도 속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가치다. 더욱이 이러한 과제는 앞에서 제시한 국제적 경쟁력을 염두에 둔 인재육성이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교육본연의 가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가치관 중심의 교육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는 능률주의 교육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려는 교육안을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교육개혁의 향방은 같은 교육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I

중국과 일본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 정책

1. 중국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 정책²⁵

가. 중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최근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과 더불어 중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유학에 대한 관심과 수적인 증가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외국 유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온 일본을 추월할 정도다. 유학 강대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을 잠재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미국도 경계하는 실정이다.²⁶

이러한 중국 유학생 증가 추세는 먼 당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에 와서 건설한 사회주의 중국으로만 한정하면 195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동유럽의 33명 학생이 중국에서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이른바 ‘근대 중국 유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2년에는 8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노선 유지를 다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해외 유학생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 안정과 높은 경제 성장 덕분에 해외 유학생 수가 해마다 30%씩 늘어났다.

한편 중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상당수가 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한때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이들 국가의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폭발적인 추세로 늘기 시작했다. 2000년 5만여 명이던 유학생 수가 2002년에는 8만여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식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방문비자(F)’로 중국에 들어와서 사설 학원 등지에서 공부하

²⁵ 이 부분은 강일규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작성한 원고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²⁶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중국의 팽창을 표지 기사로 내세운 호의 사설에서 ‘미국이 중동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라는 초신성이 고 있다’며, 그 증거로 ‘해외 고급 두뇌의 급격한 중국 유입 현상’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경제 외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는 학생까지 합하면, 현재 중국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 숫자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01년에 있었다. 이 해에 중국에서 해외로 유학하는 학생과, 해외에서 중국으로 유학하는 학생 수가 같아졌다. 그 이후로 유학을 오는 이들의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의 ‘유학생 무역’은 숫자로만 볼 때 2001년을 고비로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선 것이다.

지나해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은 모두 166개국에서 왔고, 국적별로는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공식 통계로 2만 명을 넘어 1위를 기록했고, 일본·미국·인도네시아·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한국 유학생 수는 전체 중국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름 학기 경우, 베이징의 한 대학은 한국 유학생이 폭증하는 바람에 따로 ‘오후반’을 개설했을 정도였다. 또 최근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유학대열에 합류해, 중국에 한국인 ‘조기유학’ 붐이 일고 있다. 베이징에는 유학생 수가 중국 학생 수를 앞지른 중·고등학교도 있다.

중국을 찾는 유학생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을 들고 있다. 텐진 난카이 대학 후스카이 교수는 “특히 경제가 급속히 발전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가 확대되자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세계 각국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최근 들어 홍콩·타이완·마카오 등지에서 대륙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주목한다. 이런 현상은 이들 지역 출신 학생이 중국 대륙을 미래의 생활 터전으로 여기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후스카이 교수는 “특히 타이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륙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젊은이들은 어떤 선택이 자기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륙으로 향하는 U턴 바람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화교 자녀 사이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다. 『난팡르바오(南方日報)』는 최근 동남아시

아에 거주하는 화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당신의 자녀를 어느 나라에 장기 유학 보내고 싶은가’ 하고 물었다. 결과는 ‘중국대륙’이 45%로, 43%인 ‘미국’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중 75% 이상이 자녀들을 단기로라도 꼭 한번은 중국 대륙에 보내 공부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난팡르바오』는 이 같은 결과가 역대 조사에서 내내 미국이 1위를 차지한 것과 대조된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중국 내 주거·교육·사회 환경 개선’으로 풀이했다.

나. 중국 내 한국유학생 현황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의 실태를 살펴보면, 중국 각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는 2003년 말 현재 35,353명으로 2위인 일본의 12,765명에 비해 약 3배가 된다.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총 유학생 수는 175개국의 77,715명이기 때문에 우리 유학생의 비율이 무려 4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학위과정에 유학하고 있는 언어연수생이 전체 유학생 수의 66.1%에 해당하는 23,374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 있는 6만2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2만2000명이 한국인들이지만 이와 별개로 단기연수 등으로 중국을 가는 학생 15만 명을 포함하면 한국인 유학생 규모는 중국 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서울·부산·광주에서 44개 대학이 참여한 ‘중국대학 박람회’ 등 칭화·베이징·푸단·자오통 등 중국 명문대 입학 설명회, 푸단대 부속 중학교 입학 설명회 등 한 달 사이에 유학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발 빠르게 한국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중국유학이 확산되는 데는 서민층의 역할도 컸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어권 국가에 소요되는 거액의 유학비용으로 조기유학을 꿈꾸지도 못했던 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학을 할 수 있어 중국유학이 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이들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교육체계에 따른 또 다른 방식의 영어교육까지 피하면서 중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수능 이후 조기유학 뿐 아니라 중국 대학학위까지 노리는 학생들이 증가해 유학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중국 관련 유학업체 사이에서는 중국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학 입학울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입학 전 예과 과정도 이 여세에 힘입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예과 과정은 베이징대학 등 입학이 어려운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 자체를 돕는 1년 과정으로 한어수업은 물론, 본과생들이 듣는 교양 수업까지 들을 수 있다. 이들 중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자체시험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다.

중국의 대학들이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한국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다. 중국의 명문 칭화대학교는 올해 3월부터 한국에서 40학점을 탄 뒤 내년에 본교 중국어과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개설해 신입생 200여 명을 유치하기로 했으며 이미 고교 졸업생 70여 명이 등록했다.

베이징 연합대학은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달 말까지 법학·경제학·중문학·역사학 등 4개 학과에서 7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고교생 50여 명이 이미 입학 신청을 했고 문의도 많아 이 달 말 두 차례의 입학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중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중국어수평고사 6~8급 정도의 어학실력과 대학별 본고사도 쳐야 하는데, 일부 대학은 기부금을 내면 입학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학생을 유치하기도 한다. 선양공대는 수업료 외에 1인당 한화 350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무시험 입학이 된다고 선전한 결과 고교 졸업자 90여 명이 이미 등록했으며, 입학 문의도 하루 40~50건이나 들어올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99년 9천204명에서 지난해 1만6천372명으로 77.8%늘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은 99년 1천882명에서 지난해 3천여 명으로 늘었다.

다. 중국 유학생 유치 사업의 발전

지난 3월 18일 중국 교육부에서는 2003년도 외국 유학생 관련 통계를 소개하는 언론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세계 175개 국가 출신의 77,715명이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 353개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유학하였다. 그 중 중국 정부의 장학금으로 유학한 학생은 모두 6,152명이며, 나머지 71,562명이 자비 유학생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유학생 중 학위과정 학생은 24,616명이며, 53,099명은 비 학위과정 학생이다. 유학생 출신 국가별 통계를 보면, 한국이 35,353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며, 일본 12,765명, 미국 3,693명이 각각 2,3위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유한 도시는 북경과 상해, 천진으로, 유학생 총수가 각각 29,332명과 13,858명, 4,952명이다.

위의 수치를 2002년과 비교해 보면, 2003년 봄·여름 동안 중국 전역을 강타한 SARS의 영향으로 유학생 총수가 85,829명에서 77,715명으로 9% 정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자비 유학생이 10.3%, 단기 유학생이 48% 감소함으로써 전체 유학생 감소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 장학생은 전년도에 비하여 1.3% 증가하였고, 전체 유학생 중 학위과정 유학생과 장기 유학생의 비율도 2002년에 비하여 각각 17%, 6.54% 증가하여 유학생 구조가 우량화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유학생 유치 사업의 발전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고 있다.

제1기는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시기로, 이 시기 외국 유학생 정책의 특징은 중국 정부에서 장학금을 제공하여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들의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었다. 1950년부터 1978년까지 28년 동안 전국 30여 개의 대학에서 총 12,800명의 유학생을 교육하였고, 그 대부분은 중국 정부 장학생들이었다.

제2기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1978년말부터 1989년까지로, 개혁·개방의 중요 표지 중의 하나로 자비 유학생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

하였다. 1979년의 자비 유학생은 300여 명이었는데, 1989년에는 2,500여 명으로 7배나 증가하였다.

제3기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이 시기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확대·심화한 새로운 시기이자 유학생 교육 사업이 공전의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학교(특히, 대학)가 외국 유학생 교육의 주체가 된 때로서, 전체 유학생 중 자비 유학생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1989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유학생 유치 자격 보유 대학 심사 권한을 지방의 성·자치구 및 직할시 교육 주관 부문에 이양하였으며, 유학생 모집 정원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1991년에는 처음으로 외국 유학생 총수가 10,000명을 돌파하였으며, 자비 유학생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배가 증가한 8,300명에 이르렀다. 그 후 1997년까지 외국 유학생 총수 증가율이 연평균 30%를 넘어섰으며, 자비 유학생 증가 속도 또한 40%를 넘어섰다. 1998년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로 그 증가율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외국 유학생 수 증가율이 다시 30%를 회복하여 2002년에는 유학생 총 수가 85,829명에 이르렀다.

한편 2003년 중국 교육부에서는 ‘2003~2007년 교육 진흥 행동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규모의 확대, 수준의 제고, 질의 보장, 관리의 규범화’ 등 외국 유학생 유치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유학생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 정부 장학생의 정원을 증가시켰으며, 현금 장학금 지급이라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사회보장성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교육부 외국 유학생 프로그램의 관리·평가·서비스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유학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유학생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라. 중앙 정부와 각 성 및 대학의 총체적인 노력

최근 들어 외국 유학생 유치에서 중국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중앙 정부를 위시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교육행정 부문, 대학 등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 교육부의 국제합작교류사(國際合作與交流司)²⁷가 외국 유학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國家留學基金管理委員會)와 중국유학서비스센터(中國留學服務中心)에 각각 전문 부서(‘來華處’)를 설치하여 중국 정부 장학생 및 자비 유학생의 모집·관리, 졸업 후 연락, 중국 유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외국 유학생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회가 존재한다. 중국고등교육학회의 외국유학생교육·관리 분회(分會)가 그것이다. 본 학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두고 외국 유학생 교육·관리 중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학들은 상당히 효율적인 외국 유학생 교육·관리·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 영역의 경우, 유학생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외국 유학생의 중국어 수준에 근거하여 그들을 위한 특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용 교재를 편찬하였으며, 수준별 중국어 보습반을 개설하는 한편, 많은 학교들에서 영어·중국어 이중 언어(bi-lingual)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유학생 유치 사업을 세계 일류대학 건설을 위한 중요 사업 중의 하나이자 교육 영역에서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개혁·개방이래 이미 유학생 유치 사업의 빠른 발전을 이룩하긴 하였지만, 세계 유학생 교육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아직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2002년의 경우, 미국은 총 58만 명의 외국 유학생을 확보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학위과정 유학생 24만 3천 명과 언어 연수생 70만 명을 유치하였고, 러시아의 경우도 외국 유학생이

²⁷ ‘사(司)’는 우리나라의 ‘국(局)’에 해당

총 9만여 명에 이르며, 일본은 2003년도에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중국은 유학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앞에서 소개한 유학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학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외국 유학생 연인원 12만 명 유치” 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국 정부 장학금에 대한 장학금 현금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국 유학생을 위한 종합 의료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며,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노력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²⁸

마. 중국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실천 사례

(1) 외국대학과 합작 추진(경영대학원 중심)

중국에 외국 유명 경영대학원과의 합작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 중국 대학이 외국 경영대학원이나 국제기구와 제휴해 설립한 경영학 석사 과정은 무려 26개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상하이시 정부와 유럽연합이 합작 설립한 중·구 국제공상학원(CBIBS)이다. CEIBS는 지난해 10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해 세계 43위, 아시아 1위의 MBA코스로 랭크 됐다. 이 학교 리페이 홍보부장은 “교수의 70%, 학생의 14%가 외국인”이라고 자랑했다. 아예 외국대학 MBA학위를 주는 곳도 있다. 베이징 대학의 ‘베이징국제’ 졸업생은 베이징대 학위가 아닌 미국 뉴욕주 포드햄대학의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는다. 이 학교는 지난 98년부터 포드햄대 등 미국 내 26개 MBA스쿨과 제휴해 교수와 학생을 교환하고 있다. 또 베이징대와 함께 중국 양대 명문으로 꼽히는 칭화대학 MBA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경영대학원과 제휴, MIT교수들이 직접 베이징에 와서 강의한다.

²⁸ 중국교육부홈페이지 “교육동태” 3월 19일자, http://www.moe.edu.cn/news/2004_03/12.htm, 『中國教育報』, 2004년 3월 19일자.

외국대학과의 합작 또는 제휴인 만큼 학비도 엄청나다. 2년 과정에 10만 위안(1500만원)~25만 위안(3750만원)선으로, 대졸 직장인 초임의 10배 가까운 수준이다. 그래도 입학 경쟁은 치열하다.

칭화대는 지난해 300명 모집에 800여 명이 몰렸고, CEIBS와 베이징대 등은 5~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학교 지원 자격 중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붙어있다. 중국에 MBA 열풍이 불고 있는 원인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MBA학위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남경중의약대학의 사례

남경중의약대학은 중국 江蘇성의 중점대학으로 1995년에 개교하였으며, 남경시내의 경치가 아름다운 용향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경중의약대학은 국가교육위가 최초로 지정한 외국유학생 육성 교육대학으로 전국의 3대 중의학 박사 연구기구, 위생부 지정 중의교수연수교육기지, 임상약리 실습기지, 국제침구훈련센터 및 유엔 세계위생기구 전통의학 합작센터이다. 본교에서는 기초의과대, 제1임상의학원, 제2임상의학원, 중약학원, 국제교육학원, 성인교육학원, 사회과학부, 의학관리학원, 중의약 연구원등이 설치되어 있다.

학교에 중의학, 중의약생각복학, 중의외과, 중약학, 중약제약학, 중약약리학, 침구학, 추나학, 의약국제무역 등 9개 대학본과 전공학과와 중의 간호, 추나학, 중약제약학과 등의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9개 박사과정학과 및 19개 석사과정학과도 개설되어 있다.

우수한 학습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부속병원 3개, 제약공장, 교학 병원 3개, 교학 및 졸업실습기지 58곳 등이 있다. 대학도서관에는 도서 32만 권, 국내외 잡지 20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대학은 국제협력과 학술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10여 개 국가의 대학교 과학연구기관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까지 70여 개 국에 걸쳐 2000여 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였다. 현재 매년 본교에서 장, 단기 외국학생 400

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남경중의약 대학 국제교육학원은 본교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계정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 교육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립하였다. 본교 국제 교육 교류학원은 총장의 지도아래 외국 유학생의 접수, 교학 및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중국남경국제침구훈련센터도 국제교육 교류학원의 부설로 세계 각 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교육학원은 행정실, 유학생과, 교학과, 침구연구실, 통역과, 중국어 센터,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외국학생의 접수사업, 유학생의 전공학습, 교학 및 학적관리, 외국연수생의 교하 및 학적관리, 한어교학 수업, 외국학생의 숙식 등 서비스 제공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

1976년부터 외국유학생을 교육하여 현재까지 세계 각 국 70여 개 국 2000여 명 학생을 배출하였다. 현재는 장기유학생 200여 명, 각종 단기 연수반 학생 2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바. 교류·협력에서 중국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와 문제점

한편 중국 정부는 국내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른바 ‘211공정’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1공정이란 21세기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대학’ 100개와 ‘중점학과’ 6백 개를 선정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00년까지 5년간 1백83억 위안(약 2조7천4백 50억원)을 투자해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너무 분화해 있던 각 대학을 적극 합병·통합해 종합 대학 규모와 질을 갖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각 중점 대학들에 ‘세계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할 세부 계획’을 내라고 독촉했다. 물론 정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엄청난 자금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통과 기준의 하나가 바로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유학생 비율’이다. 베이징 시 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7~10%가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이 정도 비율이면 우리도 세계 일류 대학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관심 증가와 중국 대학의 유학생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진정한 ‘학문강국’이 되는 데에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 그 첫 번째가 턱없이 부족한 유학생에 대한 장학제도와 편의 시설이다. 실제로 중국에 온 유학생 중 중국 정부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또 각 대학이 유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거의 전무하다. 중국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인 베이징 위안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 “중국 학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장사꾼이다”라고 불평한다. “일단 오겠다는 학생들은 무조건 받아놓고 기숙사 등 모든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장학제도는 형편없다”라고 말했다.

행정이 번거로운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중국에 온 모든 유학생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등록금을 낸 기간만큼, 즉 6개월이나 1년짜리 거류증을 발급 받는다. 따라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거류증을 갱신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머무는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지난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 가족은 ‘여행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자는 최장유효기간이 겨우 3개월이다. 3개월마다 유학생이 소속 학교에 가서 증명서를 떼어 다시 이것을 공안국에 제출해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하루라도 시한을 넘기면, 매일 5백 위안(약 7만5천원)씩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상상외로 높은 유학 비용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수용 인원 이상으로 학생을 받아들인 탓에 학교 기숙사 시설은 항상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학교 밖에 방을 구해야 한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기숙사보다 안전이나 비용 면에서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 집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베이징의 대학촌인 우다오코우 근처의 아파트 임대료가 30~40%씩 올랐다. 또 유학생에게는 의료 보험

등 복지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므로, ‘병원 한 번 가면 한 달치 밥값이 날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중국이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아지는 한 중국을 찾는 유학생은 앞으로 늘어갈 전망이다. 유학생은 좀더 중국인과 어울리면서 중국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사랑해 왔다가 증오하며 떠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아시아 각 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2. 일본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 정책²⁹

일본의 『문부과학백서(文部科學白書)』가 밝히고 있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들 수 있다. 둘째는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셋째는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교류이다. 넷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협력이다. 다섯째는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

현대는 정보통신기술(IT)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람, 물건, 돈, 정보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국제화가 나날이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현상은 이제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나 기술 등은 세계적 규모로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국제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뒤쳐진 나라 사이의 격차가 더욱 더 확

²⁹ 이 부분은 김후련 교수(건국대학교)가 작성한 원고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기초를 둔 대립 대신에 민족이나 문화차이에 뿌리를 둔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화하고 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재확인하고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상과 같은 급격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전체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교육, 문화, 스포츠, 그리고 과학기술과 학술에 관한 제반정책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한 동향으로서는 1997년 ‘텐버 서미트’에서 크론 인간의 생산금지에 대한 각국의 적절한 국내조치와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다. 또 1999년 ‘런 서미트’에서는 교육이 처음으로 주요과제의 하나로서 채택되고, 이어서 2000년 ‘큐슈 오키나와 서미트’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 기회 및 성인 문맹율 50% 개선을 목표로 설정한 ‘다카르 행동조직’을 국제기관이나 선진국이 강력하게 도울 것과 국제적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국제적으로 행동을 추진해 갈 것을 결정한다.

또한 2000년 4월에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만인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실현을 위해 ‘다카르 행동조직’이 채택된다. 2001년 7월 ‘제네바 서미트’에서는 또한 국제연합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약’이 국제조약으로 채택되고,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과 같은 국제연합해 국제연합일이 제정되고 ‘사회개발 서미트’와 같은 국제회의를 통해서 교육과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제노바 서미트’에서는 ‘다카르 행동조직’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G8 데스크 포스가 설치된다. ‘다카르 행동조직’추진이 재확인되는 것과 동시에 빈곤삭감전략이나 개발정책에 있어서 ‘교육’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2002년 6월의 ‘카나나스키스 서미트’에서는 ‘만인을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조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도에 대한 제안이 정리되어 보고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과 공생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국가 경제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함과 동시에 국민이

각국 국민들과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풍요한 생활을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에 대한 조직을 강화하고 국제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 전개를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첫째 과제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함께 국제적인 시야와 경험을 몸에 익히고, 21세기의 국제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과제는 외국사람들과 상호 문화, 습관, 가치관 등을 서로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한층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를 통해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해 가는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50여 개에 달하는 국가와 문화협정과 문화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교류와 상대국 언어교육의 보급, 연구자 교류, 스포츠와 문화교류 촉진을 도모해 가고 있다.

셋째 과제는 일본이 인재대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지위에 걸맞게 국제 공헌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에 공헌하는 개발도상국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 OECD, APEC, EU, 고쿠렌대학(國連大學)과 같은 국제기관을 통한 국제협력, 다국 간 협력도 최근에 점점 중요시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본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과제는 과학기술 창조국을 목표로 해서 일본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해결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7개 국가와 과학기술협력협정과 같은 국제약속을 기초로 해서, 이들 나라들과 두 개국 사이의 폭넓은 과학기술협력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국간의 과학기술협력으로서 서미트나 APEC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 육성

(1) 국제이해교육의 추진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인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아동들에게 육성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는 것과 동시에 넓은 시야로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관습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질이나 능력을 아동들에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본문부성은 1999년도에 『국제이해교육지도사례집』(초등학교편)을 작성하고, 2000년도에는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소프트웨어’개발을 실시한다.

(2) 외국어교육의 충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국제이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외국어를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문부성은 외국어에 의한 기초적, 실천적 능력을 한층 더 육성하기 위한 목적 하에 신학습지도 요령의 취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00년 12월 1일 ‘외국어 지도방법의 개선추진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고 2003년 1월 문부과학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예를 들면 학교에 있어서의 영어지도방법의 개선과 소수에 의한 습득도별 지도추진과 입시개선은 물론이고, 학습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아동들이 영어에 접할 기회를 한층 더 확충시키기 위해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금후의 시책 추진에 반영시켜 가고자 하고 있다.

(가) 외국청년 유치사업(JET 프로그램)

문부과학성에서는 어학지도를 하기 위해 ‘외국청년 유치사업(JET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JET 프로그램은 외국어교육의 충실과 지역차원의 국제 교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부과학성, 총무성, 외무성 및 자치제국제화협회의 협력 하에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이 직접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살아있는 언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특히 중시하여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의해 유치한 외국어 지도교수(ALT)의 지도력을 한층 더 향상하기 위하여 외국어지도교수에 대한 각종 연수와 지도,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어지도교수와 외국어 담당교원에 의한 팀 티칭(협동수업)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육성에 큰 효과를 올리고 있다.

<표 III-1> 외국어지도교수 국가별 유치 인원수(2001년 7월 현재)

국 명	인원수
미 국	2,347명
영 국	1,325명
캐나다	1,018명
뉴질랜드	345명
오스트레일리아	344명
자마이카	22명
싱가포르	13명
이스라엘	2명
이탈리아	2명
인 도	2명
핀란드	1명
중 국	10명
프랑스	9명
독 일	3명
호 주	1명
그 외	15명
계	5,583명

(나) 영어담당교원의 질적 향상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육성을 위해서 교원의 질적 향상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2000년도에 중학생 및 고교생의 영어담당교원의 충실한 국내연수를 도모한다. 이로 인해 1999년 연수는 600명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2,000명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 등의 대학에서 연수를 하는 해외파견사업도 연속해서 실시한다. 해외파견연수의 경우 6개월 연수는 118명이 1년 연수는 28명이 받았다.

(다) 초등학교의 외국어 학습

또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있어서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신설되고 초등학교에 있어서도 국제이해에 관한 학습의 일환으로서 외국어를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적인 학습시간’은 이행조치에 의해 2000년도부터 실시되게 된다. 문부과학성은 영어회화학습을 채택하는 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에 초등학교 영어활동실천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영어활동에 관한 수업을 시작한다.

(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외국어 학습

어린이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역에서 추천하는 어린이 외국어 학습 추진사업을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공민관이나 학교교실을 활용해서 외국어지도조수와 같은 네이티브 스피커나 지역인재를 강사로 해서 듣고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인과 함께 하는 캠프 등 야외체험활동이나 이문화에 접하는 교류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마)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 추진

국제화추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인 아시아 여러나라의 외국어를 필두로 해서 영어 이외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교교육의 다양화와 탄력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영어 이외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진흥하고 있다. 1999년에는 전국의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 551개교에 22개 언어가 개설되었다.

한편 대학과 전문대학의 외국어교육은 외국어학부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LL과 비디오와 같은 학습기구를 이용하고 네이티브 스피커를 활용하는 등 외국어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부와 협력해서 대학의 독일어, 불어 담당교원을 외국에서 개최하는 어학교육연수회에 참가시키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30명을 파견했다. 그리고 대학의 외국어 관련 수업과목 개설상황을 보면, 최근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개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도 통계에 의하면 약 70개 언어에 달하고 있다.

(3) 해외자녀교육의 충실

문부과학성에서는 해외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일본인학교³⁰와 보습수업교³¹의 교육을 충실히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국내 국공립 사립의 의무교육학교의 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2001년도는 1,343명을 파견

³⁰ 일본인학교라는 것은 국내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와 동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일제 교육시설이다. 일반적으로 현지 일본인회가 설치 주체가 되어 설립되고, 일본인회와 보호자 대표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재외교육시설 문부과학장관 인정제도에 의해 인정받은 일본인학교 졸업생에게는 국내 상급학교에 대한 입학자격이 인정되고 있다(2001년 4월 15일 통계에 의하면 96개교이고, 그 중에서 중학교는 13개교이다).

³¹ 보습수업교라는 것은 현지교, 국제학교 등에 통학하고 있는 일본인 학생들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방과 후에 일본국내의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의 일부 교과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이며, 고등부나 유치부를 병설하는 경우도 있다(2001년 4월 15일 통계에 의하면, 현재 188개교이며, 그 가운데 9개교는 휴교중이다).

했다. 또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해외자녀교육연구협력교를 선정하여 일본국내와는 다른 환경 하에서 교육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는 외에도 교장의 연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교과서의 무상급여, 교재정비, 통신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 급속히 보급되는 인터넷은 일본인학교에 있어서 이용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에서는 정보인터넷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사용을 위한 컴퓨터 도입에 대한 보조, 해외자녀교육과 귀국아동학생교육에 관한 종합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있다.

(가) 해외에서 귀국한 아동학생들에 대한 교육현황과 시책

2000년도 간에 해외에서 장기간 체재 후에 귀국한 아동 수는 초·중·고교를 합해서 1,805명이다. 이들 아동생도에 대해서는 국내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적응시키는 것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육성된 특성을 한층 더 신장시키고 일반 아동과 상호계발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에서는 국립대학부속학교에 귀국자녀교육학교 설치하여, 귀국 및 외국인 아동학생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국제화추진지역 지정하고 담당교원이나 지도주임을 대상으로 한 연구협의회를 실시한다. 2000년도부터 귀국과 출국 시에 수용학교에서 아동학생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해외자녀교육수첩’ 작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입학자 선발 시의 특별전형을 설정하고 선발방법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나) 중국 등 귀국 아동학생 현황과 시책

중국 등 외국에서 귀국하는 아동은 일본어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본의 문화나 생활습관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어나 학교적응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에서는 원활하게 일본 생활이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교육상담원 파견사

업, 일본어지도를 할 수 있는 교원 증원, 일본어교재의 작성배포, 담당교원과 지도주임을 대상으로 한 연구협의회 실시, 귀국 및 외국인 아동학생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의 국제화추진지역 지정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 상호이해를 추진하는 국제교류

(1) 유학생 교류추진

국제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그 존립과 번영을 위해 외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자 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우호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에 관한 협력은 한층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가) 유학생 유치현황과 과제

유학생을 통한 국제교류는 일본과 외국 상호 간의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이해증진과 국제협조 정신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 나라 인재육성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 귀국유학생이 일본과 그들 모국과의 우호신뢰관계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중요한 가교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유학생교류추진을 '지적인 국제공헌'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II-2> 주요국가의 유학생 유치상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고등교육기관 재학자수 (천 명)	8,582 (파트타임포함 14,549)	1,260	1,801	2,090	686	3,697
유학생 유치 인원수 (명)	547,867 (2000년)	224,640 (1999년)	187,027 (2000년)	140,849 (2000년)	84,304 (2000년)	95,500 (2002년)
국비유학생수 (명)	3,553 (2000년)	4,663 (2001년)	6,233 (1997년)	11,537 (2000년)	3,453 (2000년)	9,009 (2002년)
유학생 유치수/고등교육기관재학자수 (%)	6.4	17.8	10.4	7.9	12.3	2.2

A. 유학생 유치 10만 명 계획

문부과학성에서는 1983년 8월의 ‘21세기 유학생 정책에 관한 제언’을 발판으로 삼아, 21세기에 10만 명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한 ‘유학생 10만 계획’에 기초하여 일본에 도착하기 전부터 귀국 후까지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 유학생 유치 현황

일본 대학 등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는 2001년 5월 통계로 78,812명에 달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23,1%가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국비유학생이 9,173명, 외국정부가 각각 자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자국경비로 파견하는 유학생이 1,369명, 그 외 사비유학생이 68,270명이다. 이들 유학생들 중에서 약 90%가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중국, 한국, 대만 3개국 학생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5월 통계는 95,550명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21,1%가 다시 증가했다. 중국, 한국, 대만 3개국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82%로 전년도

에 비해 그 비율이 조금 줄었다. 출신국가별 유학생수는 다음과 같다.

<표 III-3> 출신국가별 유학생수(2002년 5월 2일 현재)

국가(지역)명	유학생수(명)
중 국	58,533 (1,609)
한 국	15,846 (900)
대 만	4,266 ()
말레이시아	1,855 (253)
태 국	1,504 (561)
인도네시아	1,441 (555)
미합중국	1,217 (129)
베트남	1,115 (443)
방글라데시	823 (454)
몽 고	544 (207)
그 외	8,376 (3,898)
합 계	95,550 (9,009)

C. 유학생 유치과제

최근의 국제유학생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일본이 1983년에 책정한 ‘유학생 유치 10만 명 계획’은 2002년 5월 현재 목표달성이 임박해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새로운 10만 명 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유학생 정책이 2002년 11월 검토에 들어갔다. 단지 숫자만 많으면 되는 아니라, ‘일본에 유학해서 좋았다’고 유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질적인 충실을 위해서 유학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D. 유학생유치제도 100년 기념사업

1901년에 일본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제도적으로 허가하게 된 최초의 규정인 ‘문부성 직할학교 외국인 특별입학 규정’이 제정된 지 100년을 맞이하여, 2001년 11월 2일 국제연구교류대학촌 도쿄국제교류관 ‘프라자

헤이세이(平成)’에서 일본천황과 황후가 출석해서 ‘유학생유치제도 100년 기념식전’ 및 ‘유학생 유치제도 100년 기념 유학생교류 공로자 표창’을 했다.

(나) 유학생 유치체제의 정비충실

A. 유학정보제공체제의 정비

일본국제교육협회 유학정보센터에서는 유학에 관한 국내외의 조화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의 일본유학희망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본 및 일본대학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년 일본의 다수대학의 참가를 받아 ‘일본유학생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중국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현재 유학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 상에 유학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일본의 고등교육제도나 일본유학을 위한 장학금 정보 외에 일본유학시험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링크하는 것을 늘려가고자 하고 있다.

B. 유학생 시험의 충실

종래 일본유학 희망자는 일반적으로 일본에 오고 나서 ‘사비외국인 유학생통일시험’(2001년도로 종료) 및 ‘일본어능력시험’을 종료한 후 다시 대학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대학 입학에는 복수의 시험과 그에 따른 일본입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게다가 구미대학에 비해서 그 수속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일본국제교육협회와 협력해서 해외에서 시험을 널리 실시해서 일본에 오기 전에 입학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학생이 이용하기 쉬운 일본유학시험을 개발해서, 2002년도부터 기존의 양 시험을 대신해서 실시하고 있다. 세계각국에서 뛰어난 유학생을 일본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 많은 대학에서 이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C. 유학생에 대한 지원조치

① 국비유학생유치에 관한 계획적 정비

국비유학생 사업은 외국에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수한 젊은이들을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초청해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84년에 개시되었다. 현재 연구유학생(대학원 수준), 학부유학생 등 7종류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고 2002년도 예산에 의하면 신규유치로 전년도보다 250명이 증가한 5,235명 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지도자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행정관, 경제인 등 젊은 지도자를 일본 대학원에 초청하는 새로운 유학프로그램(영리더스 프로그램:YLP)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부터 유학생유치를 개시하고 있다.

② 사비유학생에 대한 지원

사비유학생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학습장려비(장학금)를 수여하여, 우수한 사비유학생을 국비유학생으로 전환시켜 수업료 감면조치를 한 학교법인에 대해 조성금을 줌으로써 사비유학생이 안정된 생활 분위기 속에서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어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취학생 가운데, 대학진학을 지향하는 자에 대해서도 학습장려비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는 개개의 지원 기업명이나 개인명을 붙인 '얼굴이 보이는' 장학금 지원 사업, 의료비의 80% 보조(전유학생 대상)를 실시하고 있다.

③ 기숙사의 안정적 확보

문부과학성에서는 국립대학의 유학생 기숙사 건설(2001년도 말까지 6,916호 정비)을 추진하는 외에도 일반학생 기숙사 입주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는 유학생 기숙사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체 등에 대한 장학금 교부, 유학생지원기업협력추진협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사원기숙사에 유학생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성, 내외학생센터에 의한 지정 기숙사제도³² 및 내외학생센터에 의한 유학생주택 종합보

상제도³³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D. 대학에 있어서의 유치체제 정비

문부과학성에서는 대학의 지도원조체제 정비를 위해, 국립대학에 대해서 유학생센터 및 유학생과 설치를 필두로 인원과 경비 면에서 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유치 유학생 수를 고려해서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특별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E.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충실

근년에는 일본유학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유학생의 요구에 대응한 매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대학원연구과에서는 39개 국립·사립대학에 유학생을 위해서 영어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66개 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또 학부수준에서는 22개 국립대학 및 22개 사립대학에서 단기유학생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이나 특별코스를 개설해서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F. 지역에 있어서의 유학생 지원

지역별 유학생 지원은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을 지역주민, 사회구성원으로서 영입해서 아울러 이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식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홈스테이 등 유학생과 지역주민 교류,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나 기숙사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³² 외국인 유학생기숙사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내외학생센터가 적절한 민간기숙사를 개척해서 집주인과 사이에 외국인유학생 전용 지정기숙사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협력금(지정계약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³³ 외국인유학생의 민간기숙사에 대한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학생이 보증인을 찾는 어려움과 보증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택종합보험과 보증인보상기금을 결합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학생이 이 제도에 참가함으로써 화재 등에 의한 집주인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나 집세 미불 등에 의해 보증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채무이행을 청구받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관민일체가 된 추진체제 조성이 중요하고, 그 조직으로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지역대학,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민간단체에 의해 구성된 유학생교류추진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G. 귀국 후의 후속지지에 대한 총실

귀국유학생이 유학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모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문지, 학회지 송부, 단기연구를 위한 귀국유학생 초빙사업, 연구지원을 위한 지도교관 파견 등, 귀국유학생의 희망에 따라 후원하고 있다. 또 외무성에도 사회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학생을 일본에 초청하는 ‘일일본유학생모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다) 유학생 상호교류(유치·파견)추진

A. 단기유학의 추진

단기유학이라는 것은 주로 대학 간 교류협정 등에 기초해서 모국의 대학에 재적한 채, 타국의 대학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으며 학점을 취득하거나 연구지도를 받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단기유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간 교류협정에 기초해서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일본인학생 및 외국대학에서 받아들이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로서 ‘단기유학추진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2001년도에는 1,829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554명의 일본인학생을 파견한다.

B. 최첨단분야의 학생교류

사회적 요청이 있고 그 추진을 모모할 필요가 있는 최첨단분야의 선도적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최첨단분야 학생교류추진제도’를 창설한다. 이 제도에 의해 라이프 사이언스,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재료, 환경 등의 최첨단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대학과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교육연구에 참가하는, 일본의 학생과 외국인유학생과의 대

학원 차원의 학생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라) 해외유학 지원체제 정비

A. 해외유학 현황

최근에 일본의 학생 중에서 해외 대학에서 유학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통계에 의하면 해외에 유학한 일본인은 주요 69개국에서 약 76,000명(추정)이다. 유학처 별로 보면, 약 80%가 구미의 여러 나라다.

<표 III-4> 일본인의 주된 유학처 및 유학생 수

국 명	유학생 수(명)
미 국	46,497명(2000년)
중 국	14,692명(2001년)
영 국	6,150명(1999년)
캐나다	2,371명(2001년)
한 국	2,324명(2001년)
독 일	2,182명(2000년)
호 주	1,913명(2000년)
프랑스	1,566명(2000년)
뉴질랜드	1,182명(2000년)
오스트리아	302명(2000년)

B. 해외유학에 관한 시책

문부과학성에서는 대학 간 교류촉진, 국제적 시야를 가진 교원육성, 지역연구자 양성 관점에서 국비일본인학생 해외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외국정부 장학생에 의해 2001년도는 대략 40개국 약 420만 명의 일본인학생이 유학하고 있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모집과 선발에 협력하고 있다. 해외유학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비유학이며, 문부과학성에서는 일본국제교육협회의 유학정보센터를 통해서 유학정보 수집 및 정리를 하

고 1999년부터는 ‘해외유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학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유학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마) 국제연구 대학촌의 정비

한편 국제연구교류 대학촌은 국제교류, 정보발신, 산학관(産學官) 제휴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국공사립대학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와의 교류를 포함해 국내외의 산학관 협동을 도모하고 세계를 향한 지적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발신을 하는 거점 시설로서 도쿄도(東京都) 에히가시구(江東區) 임해 부도심 청해(靑海) 지구에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이 연계협력해서 정비한 것이다.

<표 III-5> 국제연구교류대학촌의 주요시설 개요

구분	시설 명칭	시설내용	구체적 사업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유학생과 (일본국제 교육협회) 부지면적 약 3,6ha	동경국제 교류관	유학생·연구자기숙사 · 단신용 기숙사 · 부부 및 가족용 기숙사	질 높은 생활공간 · 외국인유학생 및 대학, 연구기관에서 초청 받은 외국인연구자에 대한 질 높 은 거주환경 제공
		프리카 헤이세이 · 국제교류회의장 · 미디어 홀 · 자습실, 연구실, 체육실 등	국제적인 교육·연구교류 · 유학생,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학습· 지적교류 장소제공 · 입주하는 유학생·외국인 연구자에 대 한 생활지원 장소제공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학술정책국 기반정책과 (과학기술 진흥사업단) 부지면적 약 2,0ha	일본과학 미래관	· 전시지역 · 개발공방지역 · 교유지역	최첨단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발신 · 국가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과학기술 소개 과학기술 이해증진 수법에 관한 정보발신 · 과학기술이해증진을 위한 신수법 개발 · 과학기술이해증진에 관련된 인재 육성 연구의 추진 교류에 의한 정보 발신 · 연구개발장소공개, 포럼, 심포지엄 개최 등에 의한 교류 · 유동적인 체제에 의한 첨단연구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연구
경제산업성 산업기술 환경국 기술진흥과 (독립행정법 인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부지면적 약 1,0ha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 입해부 도심 센터	· 공동연구 실시 공간 · 산학관 제휴센터 등	산학관 제휴연구에 의한 연구교류 거점 · 국내외, 산학관 각분야의 일선 연구자에 의한 신규산업창출 등으로 연결되는 독 창적 또는 첨단기술분야 연구성과 실시 · 국내외 연구자 교류 및 연구성과 보급 · 정보교류 촉진 등

(2) 교육의 국제교류

(가) 교원의 국제교류

문부과학성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현직연수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시야에 입각한 견식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교원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또 외국과의 상호이해증진과 상대국 이해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중등교육단계의 교원을 호주, 뉴질랜드 등에 파견하고 있다. 대학교원과 연구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의 재외연구원제도(2000년도 723명 파견)와 외국인교사제도(2000년도 398명 유치), 일본학술진흥회 사업(1999년도 5,581명 파견, 11,214명 유치) 등을 통해서 파견 유치하고 있다.

특히 미일간에는 1951년에 발족한 ‘일미교육 교류계획’(이른바 플브라이트 계획)에 의해 2001년도까지 양국이 합해서 약 9,000명의 연구자, 대학원생, 저널리스트 등의 교류가 거행되고 있다(2001년도 합계 108명). 또 ‘일미국민교류’의 포괄적 대처 일환으로서 일미교육위원회를 실시 주제로 한 ‘플브라이트 메모리얼 프로그램’이 1997년부터 개시된다. 이 사업은 양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일미간의 교육과 학술분야에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미국의 초중고교 교원 등 약 600명을 일본에 유치하는 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 사회교육에 관해서는 일본의 사회교육 지도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각국의 사회교육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하는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서 여성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여성단체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조성을 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국립여성교육회관에서는 2001년도에 ‘여성정보국제포럼’을 실시하고 일본을 포함한 23개국 약 162명이 참가함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행정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여성정보처리연수사업’, 개발도상국의 여성교육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교육추진 세미나’ 등의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나) 청소년의 국제교류

문부과학성에서는 세계청소년교류협회, 보이스카우트 일본연맹, 일본청소년봉사협회,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 종합센터 등의 국립청소년 시설에 있어서도 ‘아시아지역 청소년 교육시설 지도자 세미나’와 ‘아시아 청소년 모임’ 등 여러 가지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각지에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이나 사회교육관계단체,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3) 일본어교육의 진흥

(가) 일본어 학습자 현황

최근 일본의 외국인 증가나 외국과의 국제교류 진전에 따라 일본어교육자는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약 210만 명(1998년 국제교류기금 조사) 그리고 국내에서는 약 132,600명(2001년 11월 문화청 조사)에 달하고 있다.

(나) 지역의 일본어교육 지원

최근 일본에서 일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해서 도입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일본어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각각의 지역에서 실정에 맞추어 대처하고 있다. 문화청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어 봉사자가 중핵이 된 지역일본어 교육지원자(코디네이터) 연수와 일본어학습지원에 관한 상담사업 및 심포지엄(공개토론, 협의회)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02년부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부모 자녀 참가형 일본어교실’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일본어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

(다) 일본어교육기관(이른바 일본어학교)의 질적 향상

일본에서 일본어를 학습하는 자들 중에서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태반은 일본어교육기관(이른바 일본어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일본어교육진흥협회가 일정 이상의 수준에 있다고 인정한 기관은 2002년 3월 말 현재 327개 기관이 되어 있으며, 재적자는 2001년 7월 1일 현재 33,757명(전년도 대비 3,126명 증가, 10.2% 증가)이다.

(라) 일본어교육 관계자의 육성 및 연수

A. 일본어교원의 양성

문화청의 일본어교육실태에 의하면 2001년 11월 현재 일본어교원 양성 과정·코스 등은 국·공·사립대학 학부에 134개, 대학원에 10개, 단기대학에 18개가 있고, 이들 기관의 수강자수는 20,924명이다. 또한 대학 이외의 일반인 일본어교원 양성기관수는 211개이고 수강자수는 15,935명이다.

B. 일본어교육 능력검정시험 실시

독립행정법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현직 일본어교원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육 상급연수(10개월), 교사·교사지원자·학생·일반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육 단기연수(1~2일, 연간 6회)를 실시하고 2001년도는 약 520명이 참가한다. 또한 외국의 일본어교육의 중핵적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대학원과정을 동연구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교육센터가 연계해서 발족시킨다. 2001년 10월부터 8명의 전기(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받아들여서 지도하고 있다.

C. 일본어교육 능력검정제도의 실시

일본어교육 능력검정시험은 일본국제교육협회에 의해, 일본어교육의 지식과 능력이 일본어교육 전문가로서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는

국내외에서 약 5,500명이 수험에 응시했다.

(마) 그 외의 일본어학습환경의 정비

A. 일본어 교수법·교재의 연구개발

문화청이나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일본어 교수법·교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외에, 일본어교육에 관한 연구협의회나 국제적인 공개토론, 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계자간의 정보교환이나 보급개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일본어교육에 대한 지원

문화청에서는 국내외의 일본어 교육의 다양한 수요와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어교육지원 종합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것은 전자화된 다양한 일본어교육 교재용 소재나 일본어교육관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한 절차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또 금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일본어교육의 본연의 자세나 진흥방책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C. 일본어능력시험의 실시

일본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일본국제교육협회가 해외에서는 현지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국제교유기금이 일본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험은 1급(일본어 학습시간 9,000시간 정도)에서 4급(일본어 학습시간 150시간 정도)까지의 시험수준으로 나누어져 있고 2001년도에는 국내외에서 약 228,000명이 수험에 응시하고 있다.

(바) 인도네시아 난민·중국으로부터의 귀국자에 대한 일본어교육 추진

1979년의 각의예해(閣議予解)를 기초로 해서 일본에 정주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난민을 대상으로 아시아복지교육재단에 위탁해서 약 4 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일본어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귀국자에 대해서는 일본 어교재 및 지도참고서를 작성해서 무상배포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 8월 7일의 각의예해에 의해 인도네시아 난민과 같은 일본어 교육을 이른바 조약난민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사) 해외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 협력

일본의 문부과학성 및 총무성의 협력 하에 지방공공단체는 '외국교육시설 일본어지도교원 파견사업'(REX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있어서의 일본어학습의 수요가 높아진 것에 부응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문화교류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학교교육의 국제화와 지역에서의 국제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일본의 공립 중고등학교의 젊은 교원을 해외의 중등교육시설에 2년 간 파견해서 일본어교육과 일본문화 소개를 하고 있다.

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

문부과학성에서는 2001년 10월에 국제교육협력간담회를 설치하고 일본의 지적 자원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 2002년 7월에 제출한 국제교육협력간담회의 최종보고를 근간으로 해서 금후로 다음과 같이 국제개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 인프라(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 국제교육협력의 추진

교육은 특히 최대과제인 빈곤에 대해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빈곤에서 탈각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기반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더욱이 교육

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힘을 주고, 대화를 통해서 타자와 타문화를 이해하는 힘, 국제협조의 정신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육성할 수가 있다.

일본에서 학교와 민간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류나 교원에 의한 국제교육협력활동에 대한 계획은 협력의 시야를 확대하고 또 일본의 내적인 국제화를 추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국제교육협력은 일본국민이 개발도상국의 국민과의 공생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실현해 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교육과정을 살리고 일본인의 마음이 보이는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지원의 중시는 세계적인 조류이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of All)’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도 2002년 6월에 개최한 ‘카나나스키스 서밋’을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 이니셔티브(BEGIN)’를 발표한 것이다.

(가) 일본의 교육경험을 살린 국제교육협력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초·중학교 교육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거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실적이 많고 수요도 높은 이과계 교육, 교원연수제도, 학교운영의 주력이 되는 협력분야에 있어서 중핵이 되는 대학(히로시마대학 및 츠크바대학) 산하에 다른 대학이나 NGO 등이 일본의 국제교류·협력의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협력모델의 개발과 현직교원에 관한 전달과 동시에 협력경험이 얇은 분야에 있어서 그룹의 형성을 지원하고 일본의 교육경험을 이해하고 워크숍의 대화과정을 통해서 정보제공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거점 시스템에 있어서는 청년해외협력대나 시니어 해외봉사자로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현직교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직교원이 현지에서 국제교육협력에 종사함으로써, 일본인의 마음이 보이는 협력을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현장에서의 현직교원의 체험은 내적인 국제화의 실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2002년도에는 청년해외협력대를 활용한 ‘현직교원특별참가제도’의 응모대상이 아닌 40세 이상의

현직교원에 대해서도 실제로 참가를 희망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나) 국제교육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일본의 교육경험 활용

일본은 국제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협력실적이 있는 분야에 관해서 일본의 교육경험을 부가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기관과 제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자신들이 협력경험이 적은 건강교육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서 실적이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및 유네스코와 제휴하면서 일본이 보유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협력방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2002년 3월에는 유네스코와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한 학교급식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일본의 경우, 학교급식이 전후에 해외에서 지원을 받아 개시되고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위치를 확보하면서 발전해 온 점,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급식지도를 한 점, 그리고 식사지도 등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교육을 추진해 온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에 2002년 5월에는 유네스코와 세계식량계획(WFP) 하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일본의 학교급식 및 학교건강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대국의 수요에 맞춘 효과적인 연계 협력 방안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국의 학교현장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10월에는 태국에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각국정부에 대한 교육 및 건강담당자의 정책입안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된 워크숍에서 일본의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교육의 실례에 대해서 소개한다.

(2) 분쟁 종료 후의 국가건설에 있어서의 국제교육협력

냉전이 끝난 후 빈발하는 국제분쟁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뿐만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경제와 사회 기반 등 개발성과를 파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부흥과 개발을 곤란하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분쟁 후의 국가건설에 있어서 교육은 국민생활이나 경제생활 등 부흥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역사, 종교, 민족에 대한 상

호이해를 촉진하고 평화적인 구축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2001년 11월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관계기관과 제휴하면서 긴급과제인 아프가니스탄 부흥을 위한 국제교육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교육지원에 관해서는 아프가니스탄 교육관계자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듯이, NGO나 국제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견고한 공교육 시스템(제도)의 재건을 우선해야만 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긴급과제가 있다.

일본은 이제까지 중장기적인 시야에 서서 아프가니스탄 부흥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일부인 교육개혁의 입안과 책정을 시행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교육부에 단기의 교육전문가를 파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전문가를 파견할 것이다. 일본에서 파견된 교육전문가의 어드바이스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교육부가 책정하는 학교복구계획을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가) 교원양성 시스템의 재건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자대학, 나라(奈良)여자대학, 즈다주쿠(津田塾)여자대학, 일본여자대학, 도쿄여자대학으로 구성된 '5개 여자대학 컨소시엄'이 아프가니스탄 여성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나) 고등교육의 부흥

도쿄농공대학이 카브르대학과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유학생 및 연구자를 2002년도에 받아들인다. 또한 교토대학이 카브르대학 의학부에 협력할 예정이다.

(다) 아프가니스탄 교육지원을 위한 NGO 모금

문부교육성에서는 일본의 '교육협력 NGO 네트워크'의 멤버인 세 개 단체가 하고 있는 모금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협력의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아동들이 그림이나 사진 등의 메

시지 송부나 인터넷을 활용한 일본의 학교현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NGO를 매개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아동들과 일본의 아동들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프로젝트이다.

(3) 국민참가형의 국제교육협력의 전개

일본은 국제교육협력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NGO나 지방자치제(교육위원회) 등과 OD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연계함으로써 한층 효과 높은 협력을 실현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의 내적인 국제화와 보다 심도 있게 개발도상국과의 공생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제교육협력간담회를 통해서 창출한 NGO와 지방자치제와의 교류 연계를 보다 더 많이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마.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

(1) 유네스코 사업에 대한 참가 협력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관)은 교육, 과학, 문화의 세 분야에서 국제협력촉진을 통해서 평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연합 전문기관이다. 2001년 11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인이 유네스코 사무국장으로 취임한다. 일본에서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이 각각 협력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한다. 일본은 학생과 교원 교류사업의 협력, 개발도상국의 식자교육 등 교육분야에 대한 협력, 국제적인 공동연구, 학술적 프로젝트 참가, 세계유산은 필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협력 등 유네스코의 제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 협력하고 있다.

<표 III-6> 일본이 협력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주된 사업

분야	참가 협력 상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사업에 관한 협력 · IT교육사업에 관한 협력 · 에이즈 교육사업에 대한 협력 · 환경교육분야에 관한 협력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진흥사업에 대한 참가와 협력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인간과 생물권(MAB)계획, 국제수문학계획(IHP), 사회변용의 매니지먼트(MOST) 등) · 국제대학원 코스 설치 · 아시아 지역의 인문, 사회과학발전에 관한 협력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보존사업에 관한 참가 협력 ·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ACCU) 조성 · 문화재 보존수복연구 국제센터(ICCRUM)에 관한 협력
정보·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분야의 활동에 대한 참가 협력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유네스코 활동진흥 ·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조성 · 국제이해를 위한 활동진흥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간부지원 및 어소시에이트·에키스파트 파견 · 세계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유네스코 상호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한편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2002년도부터 ‘만인을 위한 교육신탁기금’을 일본정부가 제출하고 초등교육의 보편화, 교육의 장애 있어서의 남녀격차의 시정, 식자율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한 ‘만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현을 목표로 유네스코와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분야에서 유네스코는 중기전략 및 사업계획과 예산에 ‘수자원 및 그것과 관련된 생태계’를 최우선 사항으로 하고, 국제연합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물 어세스먼트 계획(WWAP)’ 사무국을 역임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수문학계획(IHP)을 필두로 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진흥사업 및 생명과학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고찰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가 협력하고 있다.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 사업에 대한 참가

OECD는 선진 30개국을 가맹국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조정, 협력,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연구, 개혁센터(CERI)를 설치하고, 가맹국의 교육개혁추진 및 정책실천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정책의 비교분석 및 조사 연구 등의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대개 5년마다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하고 OECD의 교육 분야 사업 활동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2001년 4월에 ‘만인을 위한 능력에 대한 투자’를 테마로 개최된 교육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방침을 토대로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 정책분석, 각국의 학습도달도 조사, 교원정책, 정보통신기술(ICT)의 교육정책, 학습연구와 두뇌연구, 중등 후 교육의 국제화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문부과학성도 이에 참가 협력하고 있다.

이 외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도부터 OECD 가맹국의 교육정책상의 중요과제에 대해서 전문가에 의한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한 ‘OECD/Japan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02년 12월에는 ‘학교에 있어서의 ICT의 효과적 이용’을 테마로 개최하고 있다.

(3)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교육 사업에 관한 협력

APEC은 아시아 태평양의 21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하는 지역협력 구조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와 같은 경제문제와 더불어 인재육성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인재육성 워킹 그룹 산하에 교육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가맹국과 지역 주도로 교육정책상의 여러 가지 과제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대학 간 교류(UMAP)’, ‘기능 자격의 상호호인’, ‘APEC·시스타스쿨·네트워킹’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4) EU(구주연합)와의 협력

EU는 지금까지의 EU(구주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1992년에 창설되어 현재 유럽 15개 국가가 가맹되어 있다. EU는 지역 내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외의 대화와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일본과 EU 간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 교류, 연구협력, 인터넷을 활용한 학교 간 교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확충과 강화에 힘쓰고 있다.

(5) 고쿠렌(國連)대학에 대한 협력

고쿠렌대학은 도쿄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기관으로, 인류의 존속 발전 및 복지에 관한 세계적 규모의 제반문제에 관한 연구, 연수 및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국제기관과 세계각지의 고등교육·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제연합의 싱크 탱크로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2002년은 ‘평화와 가바넨스’ 및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2대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고쿠렌대학은 세계각지에서 부속기관인 연구·연수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들 중에 하나인 ‘고등연구구소’가 고쿠렌대학 본부에 인접해서 설치되어 있다. 고등연구소에서는 일본의 대학과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연구활동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고쿠렌대학 본부시설 제공과 대학기금 모집과 같은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고쿠렌대학 본부 및 고등연구소에 대해서 사업비 모집을 하고 있다.

(6)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관)와의 협력

WIPO는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촉진을 목적으로 해서 1970년에 설립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이다. WIPO는 국제조약의 작성 관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각국의 법령정비에 대한 지원, 국내법령의 정비 장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률·기술상의 원조, 정보수집제공을 하고 있다. 일본은 저작

권 분야에서 1993년 이래 매년 신탁기금을 모으고 있고, 이 기금은 WIPO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활동(국제세미나 개최, 연수실시, 전문가 파견 등)에 활용하고 있다.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가. 중국이 주는 시사점

(1) 중국 유학생 정책 차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국 유학생 유치에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국력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적 지원과 장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의 단순한 학생교류와 협력 차원을 넘어서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인력수급이나 유학생 유치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서비스산업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및 유럽 선진국에 편중되었던 유학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유학하는 등 유학 선호국가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추세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혹은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의 경험과 노력에서 얻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본다.

우선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유학생 유치와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 및 학교 당국자의 높은 관심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일반국민들의 외국 유학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여유와 교육에 대한 열의 증대 및 사회적 분위기를 들 수 있는데, 국민소득 1만 불 달성과 국내 교육여건 악화 및 유학자율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기 유학까

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학 대상국이나 유학 계층 및 관심 영역 등이 미국이나 대학원생 및 이공계 편중에서 이제는 모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유학 대상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및 중국 등으로 다양화되고, 유학생은 초·중등 단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심 영역도 단순 어학 연수와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퍼지고 있다. 결국 외국 정부와 학교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 학생을 유치하려는 전략 수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즉 외국의 정부 당국자와 학교 관계자들은 외국 유학생 유치가 자국의 경제이익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확보와 교류·협력의 큰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의 유치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더 많은 양질의 외국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인책 확보를 위해 일반국민과 정부 당국자 및 학교 관계자의 적극적 인식 전환과 사고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 유학생 유치와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지원 및 배려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학교 당국이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해 전담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원과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관련 기구는 단순한 설치·운영이 아니라 조직이 수직적·수평적·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유기적인 유학생 유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직적 조직은 중앙에서부터 각 지방정부의 유관 단위와 학교 및 학회 등으로 분화되어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수평적 조직분화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공간적 분화는 각 지역별로 기구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협력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외국 유학생 유치는 학교 당국이나 관련기관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자치단체 및 교육청)와 관련 산업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또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한

데,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의 협조를 통한 유학생 유치의 수월성 확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외국 유학생 유치와 교류·협력을 위한 각급 학교의 자발적·자체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급 학교는 정부의 지원도 받지만,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외국유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즉 자국에서 유학할 경우 학비·기숙사·취업 및 아르바이트·진학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본교의 비교 우위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각 국에 유학생 모집단 파견이나 유학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각 학교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 자체는 어학 및 기숙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진행하면서 국제화·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외국 유학생 유치와 교류·협력을 위한 독창적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빠르게 개발·시행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 유명대학과 합동으로 MBA과정을 개설하는 등 주변국보다 앞서서 독창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어학 교육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유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국 학생과 교류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겨냥하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은 동남아 화교나 한국 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중국 조선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이들의 국내 유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는 노력과 함께 이들에 대한 배려와 추수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조선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재외 교민 자녀에 대한 유치 전략과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육과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자국 학생의 교육과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에 정부와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 교육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체 및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등)와 학교가 협력하고, 가능하면 국제적으로 외국 대학과도 협력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재정 지원과 자체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이 외에도 학교 간 연계를 시도한다든지, 산업발전에 이들을 활용하거나 자국민의 국제화에 기능적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바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중국전문가 양성 차원

한국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의 교육개방으로 인한 중국과의 교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교육발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 과제로 연간 200억원 이내의 특별예산을 책정해서 단기적으로 고도 중국전문가군을 조속히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차세대 중국전문가군을 양성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문제의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중국전문가의 공급체계 구축을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사학위 취득자 500명의 추가교육을 통한 중국전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석사과정 1,500명 양성을 통한 고도전문가 예비군의 확대, 그리고 학사과정에서 중국 내 유학생을 일부 포함시킨 국내외에서 연간 2만 명 이상이 중국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 2만 명에는 당장 중국 특화대학

생 4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대학원의 중국전문 교수 인력을 풀로 써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3~5년 간 상호교차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케 하든지, 아니면 디지털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원격강의를 통해서 국제대학원 내의 중국강의를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국제대학원의 학생배출을 조속히 체계화,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부단계로서 중국전문가 인증제를 도입·실시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중국관련 업무 취업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관련 문제의 전반적인 소양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들에게 중국전문가 인증서를 부여하면 이들은 일반중국전문가군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은 유관기업의 취업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관련 교과서의 편찬 작업의 추진이 필요하고, 국내에는 중국관련 책자가 물밑 듯 간행되고 있으나 일본어서적, 영어서적, 중국어서적의 단순번역에 그치는 예가 다반사로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방안으로서 중국전문가군들을 엄선해서 교과서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방면에 각기 한편씩, 편찬하여 아직 산재해 있는 지식을 조직화해서 교과서를 출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학생에게 조기에 전파 할 수 있다.

대학의 중국관련 최고위과정 개설 시 우대 부여할 수 있다. 최고 경영진에 대한 중국경제·경영 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전문최고위과정 개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제2외국어 채택의 조기 확대 : 현재 중국어의 제 2외국어 채택희망 학생수가 근 30%를 넘어서고 있으나 실제수요 충족이 10%정도에 불과하다. 즉,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국어 교육에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활용(보조 교사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비유학생 파견에서 중국 지역 인원 확충 및 우수 유학생 확보·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현지 교민(유학생, 공관 직원, 주재원) 등의 우수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자교육의 조기 실시: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

자교육의 조기채택을 통한 중국문제 이해의 일반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³⁴

(3) 재중동포교육 강화 차원

교육관의 증원 및 기능 활성화를 통한 재중동포 및 중국 전문가 활용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 대안으로 재외공관 주재 교육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부처(주중한국대사관, 행자부, 외통부 등)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교육관 증원 및 증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 파견된 교육관 및 교육원장 등의 현지 법적 지위문제 논의하여 적당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재중동포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재외공관 주재 교육관이 중심이 되어 재중동포 및 유학생 등에 대한 인적자원 DB구축사업·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에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적자원 관련 정보 교류의 장 마련·재중동포 인적자원에 대한 모국과의 교류 및 협력의 창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성된 후에는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중국 전문가 인적자원의 지원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중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 강화 정책으로는, 재중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의 증설(재중 한인의 증가 추세 및 한류에 따른 점진적 증설), 재중 한국학교의 모국 교사(중국을 잘 이해하는 유능한 전문 교사) 증원과 재중 한국학교 및 한국학교에 대한 기자재 및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중 한국 학교와 모국(학교, 단체 등)과의 연계 활성화 및 강화 정책 추진과 현지 적응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재중동포(조선족)에 대한 지원과 활용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산

³⁴ 정영록·강일규, 『중국전문가 양성 및 재중 동포교육 강화 방안 정책 연구』(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2).

업인력의 부족을 재중 동포로 합법적 충원(산업연수생 인원의 증원), 재중 동포의 국내 체류 시 법·제도적 장치 보완, 재중동포 학교에 대한 지원(자매결연, 학습기자재 지원 등), 재중동포 중에서 과학자 및 고급 기술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친·지한 인사 육성과 우수한 재중동포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체재비 지원 : 향후 친한·지한 인사 양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나. 일본이 주는 시사점

일본의 국제교류·협력 정책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백서가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 둘째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 육성, 셋째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넷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협력, 다섯째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이 한국이나 중국의 그것과 다른 점은 한국과 중국이 유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자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은 세계를 시야에 넣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제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부과학성 교육백서가 지향하는 일본의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국제교육 교류·협력정책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위한 제반시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국제교류 부문에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를 통해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해 가는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50여 개에 달하는 국가와 문화협정과 문화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위에 걸맞게 국제공헌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세계의 37개 국가와 과학기술협력협정과 같은 국제약속을 기초로 해서, 이들 나라들과 두 개국 사이의 폭 넓은 과학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

다. 동시에 다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으로서 서미트나 APEC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이 ‘국제적인 공헌’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국제적인 공헌도는 자국의 국제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본이 국제화시대에 부합되는 국제이해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이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이미 전국의 고등학교 551개교에 22개 언어를 개설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의 외국어교육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필적하는 언어개설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2외국어 교육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5개 언어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이다. 철저하게 실용성 위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독일어, 불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는 한국의 고교교육은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에 반하는 극단적인 실례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많은 점에서 시사하고 있다. 우선 해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교육부는 방학 동안에 각 대학에서 유료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 해외 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지에서 이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들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에 파견하여 한국어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검정시험을 일본문부과학성처럼 정시에 세계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검정시험제도에 대한 개발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셋째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일본의 다양한 국제교육 교류정책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은 ①유학생교류추진과 교육의

국제교류, ②교육의 국제교류, ③일본어교육의 진흥, ④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일본어지도, ⑤문화의 국제교류·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985년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세워 그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이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 유학생의 해외 파견 및 외국학생의 한국유치 양쪽에 다 소극적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 교육여건 악화와 유학자율화의 영향으로 인해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류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사재를 털어 아동들을 외국어 연수에 보내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긴급과제이다. 해외유학을 국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의 해외유학 정책부재를 의미한다. 우선 국내에서 원어민을 통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영어가 가능한 외국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유치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하여, 영사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상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외국어 및 외국체재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파악하여 봉사활동 형식으로 일선 학교의 일일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조기유학은 비단 영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은 모두 166개국에서 왔고, 국적별로는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공식 통계로 2만 명을 넘어 1위를 기록했고,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정식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방문비자(F)’로 중국에 들어와서 사설 학원 등지에서 공부하는 학생까지 합하면, 현재 중국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 숫자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최근 한국 유학생 수는 전체 중국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외국 정부와 학교들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 학생을 유치하려는 전략 수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서

둘러 한국학생의 해외유학 및 외국학생의 한국유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교육부는 유학생정책에 관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특히 외국 유학생의 유치와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당국자 및 학교 관계자의 적극적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국민의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과의 교류에 관한 인식 전환과 사고가 필요하다.

일본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의 유학생 정책에 가장 시사하는 바는 장학금지원사업과 유학생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이다. 인근의 개인 하숙조차 문부과학성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본의 유학생 정책과 국제연구교류대학촌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 내 기숙사와 대학 인근의 개인 하숙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학생회관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 실정을 생각하면, 서울 경기권에 대규모의 유학생회관 건립을 긴급하게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지방에도 권역별로 나누어 유학생회관과 국제교류회관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 홈 스테이 및 국제교류를 원하는 국민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국제교육 교류정책 가운데 한국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교육 교류이다. 일본의 교육경험을 살려서 국제교류·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나라들에 대한 국제교육협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도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특히 일본 국민 참가형의 국제교육협력의 전개는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 육성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얼굴이 보이는 원조'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이중의 성과를 올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때 한국의 경제발전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아시아의 모델로서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

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남미에 관한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일본처럼 ‘얼굴이 보이는 원조’를 하기 위해서 정부는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현지에서의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으며,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기회의 제공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차원의 내적인 국제화 내지 국제교류가 중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이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제교류에 소극적으로 되지 않도록 일본의 국제교류센터나 공민관처럼 한 달에 천엔(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든지 관심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가 보조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기관을 통한 일본의 국제교육협력의 다양성이다. 현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관을 통한 국제교육협력은 ①유네스코사업의 참가 및 협력, ②OECD 교육사업에 대한 참가, ③APEC 교육사업에 대한 협력, ④EU와의 협력, ⑤고쿠렌(國連)대학에 대한 협력 등이 있다. 이 같은 국제기관을 통한 일본의 국제교육협력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국가정책으로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는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정책으로서 교육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단계별로 국제기관을 통한 국제교육협력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교과과정에 ‘국제이해교육’이나 ‘이문화이해’ 과정을 개설해서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국제교육협력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주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세계적인 규모의 다양한 국제기관에 대해 학교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나중에 국제기관에서 봉사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IV

교육기관별 교육 교류 실태 조사

1. 실태조사 방법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교육 교류·협력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현재 교류를 진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류를 진행한 적 있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전국의 초중등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한·중 및 한·일 교류·협력 학교 명단을 파악하였다.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시·도 교육청이 명단을 제공하였다. 다음 <표 IV-1>은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중 및 한·일 교육 교류·협력 학교 현황이다.

<표 IV-1> 시·도별 초중등학교 교류·협력 학교수

	중국				일본			
	초등	중학	고교	합계	초등	중학	고교	합계
서울	20	19	21	60	15	18	45	78
부산	1	4	13	18	18	23	23	64
인천			5	5			11	11
광주	3	2	1	6		2		2
대구	5	4	4	13	1	3	6	10
울산	5		5	10	1	1	3	5
강원			2	2	2	6	5	13
전남	9	5	5	19	7		3	10
전북	10	6	6	22	4	6	12	22
제주	1		1	2	2	2	4	8
충북	4	1	4	9	1		4	5
합계	59	41	67	167	51	61	116	228

한국의 초중등학교 336개 기관이 중국의 167개 기관, 일본의 228개 기관, 총 395개 기관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숫자

는 2001년 이후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거나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한 숫자이다. 전국의 초중등학교 3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국 또는 일본과 자매 결연을 맺었거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하여 52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 총 388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4년 10월 7일~10월 30일 사이에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육 교류 실태 파악을 위한 우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IV-2> 실태 조사를 위한 초·중·고·대학교별 표본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
91	92	153	52	388

실태조사지는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육 교류 실태와 문제점, 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한 네 영역의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과 일본과의 교육 교류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반응양상을 보기위해 이 중 6문항은 서술식 응답이며, 또한 객관식 문항에도 복수응답과 기타응답을 허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IV-3>과 같다.

<표 IV-3>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육 교류 실태조사지의 구성

항 목	문항수	비고
조사대상학교의 일반적 특징	3	
교육 교류 실태(현황, 목적, 내용)	3	
교육 교류의 문제점	1	
교육 교류의 성과	7	
앞으로의 과제	3	
계	17	

설문지의 회수율은 38.4%로 총 388개 학교 중 149개 학교가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분

석에 사용된 조사 대상 학교의 학교급, 설립유형 소재지에 따른 분포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설문조사 대상학교의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소재지별 분포
개교(%)

학교급	설립유형	학교 소재지
초등학교 32(21.5%)	국립 8(5.4%)	서울시 40(26.8%)
중학교 26(17.4%)	공립 77(51.7%)	광역시 69(46.3%)
고등학교 74(49.7%)	사립 64(43.0%)	중·소도시 24(16.1%)
대학교 17(11.4%)		읍·면 지역 16(10.7%)
149(100.0%)		

그러나 설문지 분석 결과, 학교설립유형과 학교소재지에 따른 분석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기서는 학교급별 결과만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육 교류의 현황

가. 교류 상대국

설문조사 대상 학교에서 2002년 이후 추진한 바 있는 한국과 중국 또는 일본의 교육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류 상대국은 <표 IV-5>와 같다. 전체 응답 분포를 보면,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23.2%, 일본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58.7%, 양국 모두와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18.1%를 차지하였다. 중국보다 일본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많으며, 대학의 경우는 양국 모두와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별 응답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응답한 32개 학교 중 중국과 교류하는 학교가 9개교(28.1%), 일본과 교류하는 학교가 17개교(53.1%), 양국 모두와 교류하는 학교가 6개교(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국 혹은 일본의 1개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2개교 이상의 학교

와 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도 5개이다. 중학교의 경우, 응답한 24개 학교 중,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8개교(33.3%), 일본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16개교(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국 혹은 일본의 1개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2개교 이상의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학교도 1개교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응답한 27개 학교 중,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14개교(20.9%), 일본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44개교(65.7), 양국 모두와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9개교(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국 혹은 일본의 1개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2개교 이상의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학교도 14개교 있다. 대학의 경우, 응답한 15개교 학교 중,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1개교(6.7%), 일본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4개교(26.7%), 양국 모두와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10개교(6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2개교 이상의 학교와 교류하고 있었다.

<표 IV-5> 학교급별 교류 상대국

개교(%)

	중국	일본	중국/일본	계
전체	32(23.2)	81(58.7)	25(18.1)	138(100)
초	9(28.1)	17(53.1)	6(18.8)	32(100)
중	8(33.3)	16(66.7)	0	24(100)
고	14(20.9)	44(65.7)	9(13.4)	67(100)
대	1(6.7)	4(26.7)	10(66.6)	15(100)

나. 교류동기

교류동기는 학교 간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일 경우,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참관, 협동수업 및 수업참관, 작품교류, 학예공연, 교사·학생 교류, 동아리·스포츠 교류, 문화체험 등 교육·문화·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진학(유학)을 위하여 일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는 학교도 1개교 있다.

대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매결연 협정서에 의거하여 교환학생, 문화연수, 복수학위, 학술교류, 교환교수 파견 및 초청에 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중등학교의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는 이국의 학교 생활과 문화 체험 쪽에 치우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는 학술 교류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간 자매결연의 형식 없이도 초·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축구, 배구, 럭비, 하키)나 어학연수 등 특정 목적을 교류동기로 교류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또한 학교 간 교류라는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이국의 문화 체험을 위해 중국 또는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다. 참가 인원

교류국가 방문 시 초·중등학교의 참가인원은 <표 IV-6>와 같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류 참가 대상이 미성년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의 책임 하에 단체로 움직이게 된다. 참가 인원은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인솔자(교직원, 가이드)와 참가 희망 학생들로 구성된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방문에 주로 단체 수학여행으로 학교 또는 학년 단위의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학생들의 일본 방문은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주로 20~6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교류 경비는 참가 학생들의 자비로 충당되는 것이 대다수이며, 공통경비나 인솔자 경비 등에 한해서 일부 학교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조사대상 132개의 초·중·고 학교 중 국제교류에 교육청이나 상급기관의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4개교이다.

대학의 경우, 단체 간 교류 협약에 기초하기는 하나, 교류 자체가 단체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류국가 방문 시 참가 인원을 살펴보는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생략했다.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참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학비보조 명목으로 학교차원의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6> 교류국가 방문 시 참가 인원

(명)

	20미만	20~40	41~60	61~80	81~100	100초과
초	16	26	1			1
중	5	10	3	4		1
고	65	36	5	2	3	
계	86	72	9	6	3	2

3. 교육 교류의 목적 및 내용

가. 교육 교류의 목적

교류 사업의 추진 목적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전체 응답 분포를 보면, ‘학생과 교사(교수)간의 접촉과 친목 도모’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 문화의 이해’가 21.6%, ‘외국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21.3%, ‘외국의 현장 답사 및 유적지 관광’이 14.1%, ‘기타’가 7.9%,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과 전달’이 7.6%를 차지하였다. ‘기타’ 응답에는 ‘우리문화전달’, ‘국제 이해와 교류의 활성화’, ‘학생작품교환’, ‘스포츠교류’, ‘동아리 교류’, ‘학생들의 외국어 현장 체험 및 외국어 학습 의욕 및 관심 증진’, ‘유학 및 어학연수’ 등이 있었다<표 IV-8>.

학교급 별 응답 분포를 보면, 공통적으로 ‘학생과 교사(교수) 간의 접촉과 친목 도모’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외국 문화의 이해’와 함께 ‘외국의 현장 답사 및 유적지 관광’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던 반면 대학교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과 전달’이라는 응답이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7> 교류 사업의 추진 목적(복수응답)

명(%)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전달	외국의 교육 현장 이해	학생·교사 (교수)간 접촉 · 친목도모	외국 현장 답사· 유적지 관광	외국 문화 이해	기타	계
전체	22 (7.6)	62 (21.3)	80 (27.5)	41 (14.1)	63 (21.6)	23 (7.9)	291 (100.0)
초등 학교	2 (3.6)	12 (21.4)	16 (28.6)	9 (16.1)	12 (21.4)	5 (8.9)	56 (100.0)
중 학교	1 (2.2)	11 (24.4)	17 (37.8)	10 (22.2)	6 (13.3)	0 (0.0)	45 (100.0)
고등 학교	11 (7.0)	34 (21.7)	37 (23.6)	19 (12.1)	40 (25.5)	16 (10.2)	157 (100.0)
대학교	8 (24.2)	5 (15.2)	10 (30.3)	3 (9.1)	5 (15.2)	2 (6.1)	33 (100.0)

<표 IV-8> 교류 사업의 추진 목적(기타의견)

문화교류에 중점	교육 교류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이해와 교류의 활성화 · 우리문화 전달 · 학생작품교환, 학예교류(무용, 춤, 노래) · 스포츠 교류 · 동아리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교육 현장 실습체험 ·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실력 향상 · 유학 및 이학연수프로그램 참여 · 외국어 현장 체험 ·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 양교의 교육 교류 증진

나. 교육 교류의 내용

교육 교류의 내용 또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전체 응답 분포를 보면, ‘학교 참관 및 수업 관찰’(22.5%), ‘학생과 교사(교수)간의 접촉과 친목 도모’(22.3%), ‘가정 방문과 문화이해’(21.8%), ‘현장 답사 및 유적지 관광’(19.5%), ‘연수, 강의, 실습 등 주로 정보와 기술의 전달’(7.3%), ‘기타’(6.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합동(공동)수업 및 현장학습’, ‘합동문화체험’, ‘공동작품활동’, ‘교류회’ 등이 있다<표 IV-10>.

학교급 별 응답 분포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참관 및

수업 관찰', '학생과 교사(교수) 간의 접촉과 친목 도모', '가정 방문과 문화 이해', '현장 답사 및 유적지 관광'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표 IV-11>과 같이 '자매학교 방문 및 교류회(홈스테이) 1~2일, 문화유적지 답사·관광'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연수, 강의, 실습 등 주로 정보와 기술의 전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참관 및 수업 관찰', '학생과 교사(교수) 간의 접촉과 친목 도모' 순으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표 IV-9> 교육 교류의 내용/프로그램(복수응답)

	주로 정보·기술 전달	학교참관 · 수업관찰	학생·교사 (교수)간 접촉 · 친목도모	현장답사 · 유적지 관광	가정방문 · 문화이해	기타	명(%)
전체	29 (7.3)	89 (22.5)	88 (22.3)	77 (19.5)	86 (21.8)	26 (6.6)	395 (100.0)
초등 학교	2 (2.6)	17 (22.4)	15 (19.7)	4 (22.4)	16 (21.1)	9 (11.8)	76 (100.0)
중학교	2 (2.9)	17 (25.0)	18 (26.5)	12 (17.6)	16 (23.5)	3 (4.4)	68 (100.0)
고등 학교	11 (5.2)	46 (21.8)	46 (21.8)	45 (21.3)	50 (23.7)	13 (6.2)	211 (100.0)
대학교	14 (35.0)	9 (22.5)	9 (22.5)	3 (7.3)	4 (10.0)	1 (2.5)	40 (100.0)

<표 IV-10> 교육 교류의 내용/프로그램(기타의견)

교육	· 합동(공동) 수업 및 현장학습	· 어학연수
문화	· 합동 문화 체험	· 운동부 친선경기 및 체육선수 교류
친목	· 공동 작품 활동 · 합동 연주회(합동 연습, 합동 연주) · 교류회	· 협동 학예 발표회 · 편지, 작품 교류 · 양교 특기 발표

<표 IV-11> 광남고의 일본 문화 체험단 활동 일정(2003. 1. 27~31)

일자	행선지	교통편	세부일정	기타
1 일 째 1/27 (월)	서울	무궁화호	08:30 서울역 집합, 발대식 및 주의사항 전달 09:45 부산행 무궁화호 탑승 15:01 부산역 도착 -> 국제여객터미널 이동(도보) 16:00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 2층 - 출국 수속 - 19:00 페리 승선 - 저녁식사 & 자유시간 22:00 취침	중식 :도시락 제공 석식 :페리내 레스토랑
	부산	페리	행선지 : 부산	숙박 : 페리내 숙박
2 일 째 1/28 (화)	키타큐슈 시모노세키 모지항 고쿠라	전용버스 명문훼리	08:40 시모노세키항 도착 입국수속 (시모노세키강화조약) 10:30 모지항으로 이동(해저터널 도보관광) 11:30 모지항 테트르 관광 및 전망대 14:30 고쿠라 이동, 고쿠라성, 고쿠라 성 정원 관광 17:00 석식 및 모지항 이동 20:00 명문훼리 승선 오사가 이동	조식 :페리내 레스토랑 중식 :현지식당식사 석식 :현지식당식사
		명문훼리	행선지 : 시모노세키	숙박 : 페리내 숙박
3 일 째 1/29 (수)	오사카 이바라키	명문훼리 전용버스	08:00 선내 조식후 하선 09:00 해유관/오사카 성 관람 11:00 신사이바시 등 시내 탐방 15:00 자매학교(후쿠이 고등학교이동) 16:00 자매학교 교류행사 18:00 홈스테이 가정으로 이동	조식 :선내조식 중식 :현지식당식사 석식 :홈스테이
		전용버스	행선지 : 오사가	숙박 : 홈스테이
4 일 째 1/30 (목)	이바라키 교토	전용버스 전용버스	09:00 학교출발 교토로 이동 11:00 이조성,금각사 관람 12:00 중식후 니시진 기모노 전시장관람 14:00 귀무덤 교토 국립박물관 15:00 헤이안잔구 16:30 청수사 관람, 교토역사 전망대, 이세탄 백화점 19:00 석식후 호텔로 이동	조식 :호텔조식 중식 :현지식당식사 석식 :호텔식
		전용버스	행선지 : 교토	숙박 : 전통 여관
5 일 째 1/31 (금)	나라 서울	전용버스 OZ119 비행기 전용버스	06:00 기상, 세면 & 조식 07:00 호텔 출발 09:00 동대사, 나라 시습공원 11:30 호류지 탐방후 오사가 이동 공항가기전 jasco shopping mall 17:00 공항 도착 19:00 비행기 탑승 20:40 인천공항 도착 23:00 학교에서 도착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당 석식 :기내식

4. 교육 교류의 성과 및 문제점

가. 교육 교류의 성과

교류를 통해 얻은 성과의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전체 응답 분포를 보면, 긍정적 응답이 73.9%(‘성과가 대단히 크다’ 14.8%, ‘성과가 큰 편이다’ 59.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중립적 응답이 22.8%, 부정적 응답은 극소수인 3.3%(‘성과가 거의 없다’ 2.0%, ‘성과가 전혀 없다’ 1.3%)로 나타났다.

<표 IV-12> 교류를 통해 얻은 성과의 정도

	성과가 대단히 큼	성과가 큰 편	보통 이다	성과가 거의 없음	성과가 전혀 없음	계
전체	22 (14.8)	88 (59.1)	34 (22.8)	3 (2.0)	2 (1.3)	149 (100.0)
초등학교	4 (12.5)	15 (46.9)	9 (28.1)	3 (9.4)	1 (3.1)	32 (100.0)
중학교	3 (11.5)	17 (65.4)	6 (23.1)	0 (0.0)	0 (0.0)	26 (100.0)
고등학교	12 (16.2)	44 (59.5)	17 (23.0)	0 (0.0)	1 (1.4)	74 (100.0)
대학교	3 (17.6)	12 (70.6)	2 (11.8)	0 (0.0)	0 (0.0)	17 (100.0)

교류를 통해 얻은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V-13>과 같다. 대부분 ‘양국 문화의 이해’, ‘양국의 우호증진’ 기여의 측면을 교류의 성과로 꼽았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상호 홈스테이를 통한 국민 접촉과 양국의 문화 체험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게 했으며, 이를 통해 빈일감정이 해소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대학의 경우는 교류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 ‘전문지식의 습득’, ‘대학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성

과를 가져왔다고 응답했다. 그 외 ‘학생들의 국제적 사고 및 감각 신장’,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 ‘학습활동 동기 유발 및 관심 증대’, ‘생활태도의 변화’를 교류의 성과로 드는 응답도 있으며, 교류 상대국의 교육현장 참관 및 답사가 ‘외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교사들의 자기 개발과 수업개선’의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도 있다.

<표 IV-13> 교류의 성과

타 문화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홈스테이를 통한 양국의 문화 체험·이해 ·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고취 · 학생, 교사의 상호 이해, 친목관계 형성 <p>⇒ 직접적인 만남으로 반일 감정 해소, 중국 문화의 이해</p>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접촉을 통하여 이해와 신뢰감, 친밀감을 갖게 됨
학생들의 국제적 사고 및 감각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 및 세계관 형성 (사고 전환의 계기) ·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키움, 거시적인 사고 키움 · 자기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적, 국제 이해 면이 한층 고양됨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한국에 대한 정체성, 위상 확립 ·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타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이해 · 민족 동질성 확인(조선족)
한국을 알리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어린이의 우수성 홍보 · 한국의 교육·문화 소개 · 학생들의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의 활동 <p>⇒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발전된 문화를 보여주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줌</p> <p>⇒ 일본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역사관 변화,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계기가 됨</p> <p>⇒ 일본 자매학교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게 함</p>
학습활동 동기 유발 및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학습에 대한 열의 고취 · 영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영어실력 향상 ·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유학 및 어학연수, 학점교류 등) · 선진 전문지식의 습득
생활태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개발의 의지를 갖게 함 ·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타파에 도움
외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교육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교육, 문화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 획득과 이해에 도움 · 양국의 교육현장의 좋은 점을 본받아 현장에 적용 · 공동학습 세미나 개최
교사들의 자기개발, 수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교사의 수업공개와 협의회를 통한 수업개선의 효과 · 상대국의 교육현실과 우리 교육현실 비교를 통해 우리교육의 단점보완과 교사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
스포츠 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선경기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

실제로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류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대다수인 82.4%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25.0%, ‘도움이 되었다’ 57.4%)을 하였고, ‘보통’이라는 중립적 응답이 14.9%,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은 극소수인 2.8%(‘도움이 거의 되지 않았다’ 1.4%,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1.4%)에 그쳤다<표 IV-14>.

<표 IV-14> 중국/일본과의 교류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명(%)

	대단히 큰 도움	도움이 됨	보통	도움이 거의 안됨	도움이 전혀 안됨	계
전체	37 (25.0)	85 (57.4)	22 (14.9)	2 (1.4)	2 (1.4)	148 (100.0)
초등학교	6 (19.4)	16 (51.6)	6 (19.4)	2 (6.5)	1 (3.2)	31 (100.0)
중학교	5 (19.2)	16 (61.5)	5 (19.2)	0 (0.0)	0 (0.0)	26 (100.0)
고등학교	22 (29.7)	41 (55.4)	10 (13.5)	0 (0.0)	1 (1.4)	74 (100.0)
대학교	4 (23.5)	12 (70.6)	1 (5.9)	0 (0.0)	0 (0.0)	17 (100.0)

교류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보면 <표 IV-14>와 같다. 좋은 점으로는 ‘교육여건과 교육에 대한 열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 ‘문화제 보존과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들었으며, 나쁜 점으로는 ‘국가 우월주의적 태도’, ‘영어권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의욕이 낮다는 점’ 등을 들었다.

<표 IV-15> 교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중 국	일 본
좋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여건이 훌륭하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 학생 간의 토론 문화와 절제된 태도 · 학생들의 학업 열의와 뚜렷한 목표의식(학습에 정진해야만 미래가 희망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 · 자국과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 ·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모습 · 변화에 민감한 중국의 모습(자본주의적 요소 많음, 철저한 경제적 이해 판단) · 한국인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많음 · 우리와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음 · 조선족과의 동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에 대한 교육청 단위의 지원 · 철저한 사전 준비(교류목적 분명, 교류 프로그램 체계적 준비) · 교육시설 보수관리철저, 특별활동 공간 확보 · 교육에 대한 가정, 지역사회와의 이해와 협조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 · 강한 단결심, 협동심 · 절약, 청결, 친절, 합리적 사고, 질서의식 · 정서와 인식의 정도가 우리와 유사 ·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호감 · 일본을 알리고 선전하는데 적극적임 · 변화를 지향하면서 전통을 적절히 지키는 모습(문화유적지 관리가 잘 됨 있음)
나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없음 · 원칙, 계획성 없는 행정(추진과정의 지연) · 유학생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이 눈에 띄지 않음 · 지나치게 실리를 따짐 · 빈부의 격차가 큼(경제적 격차로 인한 차별의식) · 국가 우월주의 · 교통 불편, 안전의식 부족, 공공질서 미흡, 치안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가 비싸고 교통이 불편함 · 본교나 지역을 탐방하는 일본의 시각이 우리만큼 진지하지 못함 ·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를 가볍게 봄 · 한국인에 대한 과거지향적 사고 · 영어권 나라보다 한국에 대한 방문의 욕이 상대적으로 적음 ·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듯 함(자기문화의 우월성을 은근히 내보임)

<표 IV-15>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교류를 통해 체화된 경험으로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은 우리와 이웃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즉, 이념과 체제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까이할 수 없는 먼 나라로만 느꼈던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구체적인 ‘이웃’으로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이웃’에 뒤지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야 할 점이 무엇

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는 점도 교류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비록 소수(3.3%)이긴 하지만, 교류 성과를 ‘거의 없다,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표IV-15>와 같다. 즉,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는 국제교류(국제체험교육)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류에 소비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일부 부유층 자녀한테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교류는 오히려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류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 학생들의 정상일과 운영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류행사가 방학(휴일) 중에 이루어져 학생활동을 볼 수 없으며, 의례적인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교류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들었다.

<표 IV-16> 교류 성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이유

과다한 비용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의 과다지출로 일부 부유층 자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 있음
학생들의 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므로 학생들의 관심과 교육적 효과 그리 많지 않음
정상일과 운영에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정상일과 운영에 방해
의례적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휴일) 중에 이루어져 학생활동을 볼 수 없음 · 의례적인 학교시찰과 교장실 방문 정도로 그침 · 후속작업이 없음
준비의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어학 학습의 부진 · 상대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

나. 교육 교류의 문제점

앞으로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85.1%(‘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0.4%, ‘추진할 것이다’ 54.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11.5%,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는 부정적 응답은 극소수인 1.4%로 나타났다.

<표 IV-17> 향후 중국·일본과의 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여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추진할 것	모르 겠다	추진 하지 않을 것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	계
전체	45 (30.4)	81 (54.7)	17 (11.5)	5 (1.4)	0 (0.0)	148 (100.0)
초등 학교	7 (22.6)	14 (45.2)	6 (19.4)	4 (12.9)	0 (0.0)	31 (100.0)
중학교	7 (26.9)	14 (53.8)	5 (19.2)	0 (0.0)	0 (0.0)	26 (100.0)
고등 학교	22 (29.7)	45 (60.8)	6 (8.1)	1 (1.4)	0 (0.0)	74 (100.0)
대학교	9 (52.9)	8 (47.1)	0 (0.0)	0 (0.0)	0 (0.0)	17 (100.0)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교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하는 이유는 교류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류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학교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전체 응답 분포를 보면, ‘상급 기관(교육청, 교육부)의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다’(32.5%)를 1순위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일선 학교(대학)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다’(25.7%), ‘교류 행사의 일정을 진행하기가 번거롭다’(21.4%), ‘기타’(10.2%), ‘외국 교육기관

과 협조가 어렵다'(5.8%), '관계자(교육청, 학교)의 이해가 부족하다'(4.4%)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상급기관의 지나친 지시 관리 감독', '업무처리 시 부서 간 상호 협조 부족', '교류 학교 물색의 어려움', '인문계 고의 특성 상 교류시간을 내기 어려움', '홈스테이 희망 가정이 적음' 등이 있었다<표IV-19>.

학교급 별 응답 분포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이며 '상급 기관(교육청, 교육부)의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를 1순위로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대학교의 경우에는 '일선 학교(대학)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다'를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표 IV-18>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복수응답) 명(%)

	상급기관 행·재정적 지원 미흡	학교에서 처리할 업무과다	관계자의 이해 부족	외국교육 기관과 협조 힘들	교류행사 일정진행 번거로움	기타	계
전체	67 (32.5)	53 (25.7)	9 (4.4)	12 (5.8)	44 (21.4)	21 (10.2)	206 (100.0)
초등 학교	16 (34.0)	11 (23.4)	2 (4.3)	1 (2.1)	12 (25.5)	5 (10.6)	47 (100.0)
중학교	11 (32.4)	10 (29.4)	0 (0.0)	2 (5.9)	7 (20.6)	4 (11.8)	34 (100.0)
고등 학교	36 (34.6)	24 (23.1)	5 (4.8)	5 (4.8)	24 (23.1)	10 (9.6)	104 (100.0)
대학교	4 (19.0)	8 (38.1)	2 (9.5)	4 (19.0)	1 (4.8)	2 (9.5)	21 (100.0)

<표 IV-19>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기타의견)

행·재정적 지원의 미흡	· 개인부담이 큼(항공료, 초청시 체류비 등) · 경비마련이 어려움 · 비자 발급 등 행정적 형식과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림 · 문화행사 교류시 화물 운송 등이 불편함
상급기관의 지나친 지시·감독	·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지시·관리 감독 사항들에 얽매어 순수하게 추진할 수 없음
부서간 업무 협조 미흡	· 업무추진시 해외 경비 청구, 행사 특성에 따른 경비 지출 방식에 대한 서무부서의 협조 부족
교류 학교 물색의 어려움	· 교육 교류의 상대국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지 관광을 하기 위한 교류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 영어권 나라에 비해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함
교류시간의 부족	·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방학 중 수업과 겹쳐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
홈스테이 희망 가정이 적음	· 현지 문화체험을 위해 홈스테이를 선호하나, 정작 홈스테이를 제공할 희망 가정을 구하기 어려움

5. 교육 교류사업의 과제

교육 교류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정부(해당 교육청) 모두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학교는 교육 교류의 주체로서, 정부나 해당 교육청은 적극적인 지원자로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

향후 교류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교육청 또는 대학의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향후 정부의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 분포를 보면, '상급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28.1%), '교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개발해야 한다'(23.8%), '담당 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배치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21.6%), '외국 기관과 연계하고 교류하는 데 관련 정보와 조언이 필요하다'(14.2%), '지도자(교장, 총장 등)의 소신과 안목이 중요하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경비의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담당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실무자’와 ‘통역의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 외 2.2%를 차지한 ‘기타’ 응답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상호방문일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등이 있다.

학교급별 응답 분포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상급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를 1순위로 지적한 반면, 대학교의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배치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와 ‘교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개발해야 한다’를 1순위로 지적하였다.

<표 IV-20> 교류 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복수응답) 명(%)

	상급기관 행재정적 지원 필요	외국기관 연계·교류 관련 정보 ·조언 필요	담당부서· 담당자배치 하여 전문 인력 확보	교육 프로그램 내실있게 개발	지도자의 소신과 안목 중요	기타	계
전체	91 (28.1)	46 (14.2)	70 (21.6)	77 (23.8)	33 (10.2)	7 (2.2)	324 (100.0)
초등 학교	21 (33.3)	8 (12.7)	13 (20.6)	14 (22.2)	5 (7.9)	2 (3.2)	63 (100.0)
중학교	17 (37.0)	8 (17.4)	9 (19.6)	10 (21.7)	1 (2.2)	1 (2.2)	46 (100.0)
고등 학교	46 (26.1)	26 (14.8)	36 (20.5)	41 (23.3)	23 (13.1)	4 (2.3)	176 (100.0)
대학교	7 (17.9)	4 (10.3)	12 (30.8)	12 (30.8)	4 (10.3)	0 (0.0)	39 (100.0)

정부나 해당 교육청의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교류 당사자가 교류시 유의해야 할 사항, 즉 학교차원의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전체 응답 분포를 보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33.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전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25.5%), ‘우리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친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18.6%), ‘교류 대상인 학생을 선발하고 지도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11.0%), '지도자(교장, 총장 등)의 소신과 안목이 중요하다'(9.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국에 대한 사전 이해 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0%를 차지한 '기타' 응답에는 '우리 문화 소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양국의 교류 담당자간의 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가 학부모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등이 있다.

학교급 별 응답 분포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V-21> 교육 교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복수응답) 명(%)

	상대방에 대한 사전 이해교육 필요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 준비	교류 대상 학생의 선발·지도에 유의	우리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친숙하도록 준비	지도자의 소신과 안목 중요	기타	계
전체	88 (25.5)	115 (33.3)	38 (11.0)	64 (18.6)	33 (9.6)	7 (2.0)	345 (100.0)
초등학교	19 (28.8)	21 (31.8)	5 (7.6)	12 (18.2)	7 (10.6)	2 (3.0)	66 (100.0)
중학교	15 (30.6)	18 (36.7)	2 (4.1)	7 (14.3)	5 (10.2)	2 (4.1)	49 (100.0)
고등학교	46 (23.8)	61 (31.6)	27 (14.0)	39 (20.2)	17 (8.8)	3 (1.6)	193 (100.0)
대학교	8 (21.6)	15 (40.5)	4 (10.8)	6 (16.2)	4 (10.8)	0 (0.0)	37 (100.0)

끝으로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학교현장의 소감 및 건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표 IV-22>와 같다. 첫째,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대다수가 상급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교류 행사에 대해 각종 학교자치회의 적극적 협조와 시청 시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현재 소규모 인원의 참여로만 이루어지는 교류 사업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교류 사업으로 확대해야 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교류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교사, 학교가 주체가 되어 순수 민간 차원, 교육적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교류 관련 정보에 대한 주기적 지속적인 소개가 필요하다. 현재는 교류 상대국과 상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가능한 한 정보망을 활용하면서 발로 뛰어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얻는 정보의 양과 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교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문화관을 갖게 하여 오히려 교육적 역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 관련 정보의 체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교류정보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소개가 필요하다.

셋째, 교류를 위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첫째와 둘째의 건의사항이 내실 있게 받아들여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해 갈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교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및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전문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

넷째, 내실 있는 교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교류 시 상대국에 한국의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상대국 방문 시 학생들이 한국문화 소개를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 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소규모 선발된(지원자) 학생이 아닌 학년 단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순 관광이나 피상적인 ‘둘러보기’ 방식이 아닌, 교육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도자의 추진의욕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장의 퇴직, 이전, 관심 여부에 따라 교류사업의 중단, 지속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미 진행 중이었던 교류 사업을 이러한 이유로 중단하고 또 새로운 교장의 관심여부에 따라 다시 추진하고 하면 필요 없는 시간, 경비, 노력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도자 스스로가 교류 사업에 대해 교육적 소신과 추진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교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동료교사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류사업 담당을 업무과중과 동료교사들의 이해와 협조 부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그 결과 교류사업 담당자가 1년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업무처리의 비효율과 교류사업의 교육적 연계성과 지속성의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교직원 간에 우선적으로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전교원의 이해와 협조 아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교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교류 사업을 외부전시용 1회성 행사가 아닌 학생들의 국제이해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 간의 서신·메일 교환 등을 장려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교류 활동에서 얻은 자료를 수업에 이용한다든지, 상대 학교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덟째, 교류를 위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교류 사업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즉, 상대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철저히 수립되고,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 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교류는 이국 문화 체험과 이해라는 교류 사업 본연의 목적이 실종된 채 관광이나 쇼핑에만 열중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표 IV-22>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소감 및 건의사항

<p>상급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학교 자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자매학교 방문 교류시 경비 일체를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교류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학생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부유층을 위한 행사 같음 • 일본의 경우, 교류행사가 학교자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있었으며, 시청, 시교육위원회 등에서 모든 교사들의 경비가 조달되고 있었음 • 현재는 교육청에서 방학 중에만 교류를 허용하고 있는데, 방학 중이 아닌 학기 중에 사업이 실시되어 교육적 교류 측면이 활성화 되었음 좋겠음 • 학생비자 발급 문제나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시켜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고 간편한 여행이 되었음 함 • 순수 민간 차원(학생, 교사)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 체계적인 교류사업 지원 시스템 마련
<p>교류관련 정보에 대한 주기적 지속적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에 대한 정부, 교육청, 학교 차원의 기본적인 교육 안내 자료 필요 • 해외관련 정보의 체계적 활용에 대한 지도, 안내 • 타학교 교류행사의 사례 소개
<p>교류 담당 부서 및 담당자(전문인 력)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담당 부서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실무에 능한 전문인력 배치 필요 • 단위학교의 업무체제도 교류담당 전문인력을 양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교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역 필요
<p>교류프로그램 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선발된 학생(지원자)이 아닌 학년단위의 수학여행 코스개발 • 저렴한 비용의 중국 일본 방문 여행 프로그램 개발 • 피상적인 ‘돌러보기’가 아니라 민박 등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끼리의 상호방문과 교류의 기회를 늘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상대국 방문시 학생들이 한국문화 소개를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교육·문화 활동에 대한 질의, 응답의 체계적 정리 필요
<p>지도자의 추진의욕과 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의 퇴직, 이전, 관심여부 등에 따라 교류사업의 중단 지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교류에 대한 지도자의 추진의욕, 장래 안목이 있어야 함

<p>동료교사의 이해와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교류사업 담당자가 1년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업무과중과 동료교사의 이해 부족으로 교류업무 담당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 · 교직원간에 우선적으로 국제교류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교류에 대한 전교직원의 협조가 있어야 함
<p>국제이해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시용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국제이해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함 · 지속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학생들 간의 서신, 메일 교환 장려 · 교류활동에서 얻어진 자료를 수업에 이용, 접목 · 공동 프로젝트 사업 진행
<p>철저한 사전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 수립, 추진 · 교육적 효과와 학교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사전방문 필요 · 상대국에 대한 편견과, 이해소양 부족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대국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 필요 ·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함 ·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어학교육 필요 ·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친절이나 과도한 경비 지출 혹은 호화로운 숙박제공을 지양하고 검소하면서도 예절을 갖춘 그리고 소신있는 태도 요구됨

V

한국과 중국의 교육 교류
실태 분석

1. 현황

가. 양국 간 교육 교류의 기반조성 조치

한·중 양국은 1992년에 수교하여 이제 13년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교류 부문에 있어서도 한·중 양국 간에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양국 간의 교육 교류는 1994년 3월 체결된 한·중문화협정에 의해 기반이 조성되었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사, 학자 및 전문가 상호교환 장려 및 지원, 양국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을 장려 및 지원, 상대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 졸업 증서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인정문제를 검토,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 마다 한국과 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 7월에는 한·중 간 교육 교류약정이 체결되었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매년 6명 내외의 정부 대표단 교류, 40명 이내의 유학생 상호 파견, 5명 이내의 교수 및 전문가 초청(10일간), 학술자료 상호교환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장려, 언어교사(교수) 초빙, 언어능력시험(KPT, HSK)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추진하기로 재약정 되었다.

한·중간 교육 교류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정부의 장학생 초청이 지속되고 있다. 40명 이내의 유학생 상호 파견 약정에 의해 쿼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 초청이 지속되어 왔고, 중국 정부 초청 장학생은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2~4년 간 제공하고 있다.

구 분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획	계
한국정부 초청	62명	10명	9명	10명	10명	101명
중국정부 초청	59명	10명	15명	16명	16명(미정)	116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둘째, 양국 교육부 대표단의 상호 교환방문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중 교육 분야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및 인적교류를 통한 양국 교육 발전 기여 및 상호 이해 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1993년부터 매년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중 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 논의, 상호 관심 사항 및 교육정보 교환, 자료 수집 등이 있고, 방문기간 및 인원은 5박 6일 · 6명이며, 비용부담은 파견 측이 왕복항공료를, 초청 측이 체재비를 부담하고 있다.

<최근 양국 대표단장>

연도	직책 및 성명(한국)		직책 및 성명(중국)	
2000	평생교육국장	○○○	교육부과기발전증심주임	◇◇◇◇
2001	차관보	△△△	재정담당 차관	▽▽▽
2002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	교육부 부부장	◎◎◎

※ 2003년의 경우, 사스(Sars)로 인한 중국 측의 사정으로 미 실시

셋째, 상호 간에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한·중 간 유학생 수가 최근 괄목할만한 신장을 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한국학생의 중국 유학생이 3배에서 6배 정도 많은 상황이다.

구 분	2001년	2003년	비 고
한국유학 중국학생	3,221명	5,607명	-
중국유학 한국학생	16,372명	*18,267명(한국교육부자료) 35,353명(중국 교육부 자료)	양국의 통계치 불일치

※ 주: 이들 유학생 수는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 이상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와 중국 교육부 내부자료

넷째, 이외, 중국어 교원 중국 현지 연수와 중국 한국어과 대학생 초청 한국어 연수과정을 두고 있다.

나. 초·중등단계의 교류·협력

(1) 한국학생의 중국 유학

초·중등단계 한국학생의 중국 유학은 한국 상사원 자녀가 부모 따라 유학하는 경우, 개인별 동기에 의하여 유학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현재 상당 수가 유학하고 있으나 통계 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중국이 18세 이하는 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되어 있다.

(2) 중국학생의 한국 유학

<표 V-1> 중국학생의 한국 유학생 수(2002년)

시도	유학생 수						체류유형		
	초	중	고			합계	불법 체류	동거 방문	연수
			인문	기타	소계				
서울	19	5	2	10	12	36	4	30	2
부산	4	1	0	0	0	5	2	0	3
대구	2				0	2		2	
광주	1	2			0	3		3	
대전	4	2	0	0	0	6		5	1
경기	10	1	2	0	2	13	2	11	
강원	2				0	2		2	
충북		2	1		1	3		3	
충남	1				0	1			1
전북	1	3	7	1	8	12		10	2
전남				15	15	15			15
경북	1	0	1	0	1	2		1	1
경남	2		1		1	3		3	
합계	47	16	14	26	40	103	8	70	25

※ 인천, 울산, 제주는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2년 말 현재 초등학교에 45.6%(47명), 중학교에 15.5%(16명), 고등학교에 38.8%(40명)가 유학하고 있으며, 체류유형별로는 동거방문형이 68%(70명), 연수형이 24.3%(25명), 불법체류형이 7.8%(8명)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전체의 35%(36명), 전남 14.6%(15명), 경기 12.6%(13명), 전북 11.7%(12명)의 순으로 유학하고 있다.

<표 V-2> 초·중·고등학교 유학 동기별 현황(2002)

시도	부모와의 동거				장래 한국대학 유학				한국기업 취업				한국교육선호				기 타							
	초	중	고		초	중	고		고	기	타	총	시도	고	총	초	중	고		총				
			문	타			문	타										문	타		문	타	문	타
서울	16	5	1	3	4	25	2		7	7	9		서울	1	1	1	1			0	1			
부산	3	1			0	4					0	0		부산		0	0	1			0	1		
대구	2				0	2					0	0		대구		0	0				0	0		
광주	1	2			0	3					0	0		광주		0	0				0	0		
대전	4	2			0	6					0	0		대전		0	0				0	0		
경기	8	1	2		2	11	2				2		경기											
강원	2				0	2					0	0		강원		0	0				0	0		
충북		2	1		1	3					0	0		충북		0	0				0	0		
충남	1				0	1					0	0		충남		0	0				0	0		
전북	1	1	1		1	3		2	6	1	7	9		전북										
전남													15	15	15									
경북	1		1		1	2					0	0		경북		0	0				0	0		
경남	2				0	2			1	1	1			경남		0	0				0	0		
합계	33	13	4	3	6	64	2	2	7	8	8	21	15	15	15	1	0	1	1	2	0	0	0	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유학동기별로는 전체의 62%(64명)가 부모와의 동거사유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장래 한국대학에 유학하기 위해에 20.4%(21명), 한국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에 14.6%(15명)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표 V-3> 초·중등단계 출신 지역별 현황(2002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길림성	10	3	2	3	1	7	2	3		11		1	2	45
강소성											15			15
요녕성	2	1			4	2				1		1		11
북경	10													10
내몽고	5					3			1					9
흑룡강성	5													5
산둥성	1	1											1	3
허베이	2													2
중경						1								1
산서성					1									1
사천성	1													1
합계	36	5	2	3	6	13	2	3	1	12	15	2	3	10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출신지역별로는 길림성 지역이 43.7%(45명)를 보여주고 있어 주로 조선족의 자녀가 우리나라에 많이 유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강소성 지역이 14.6%(15명), 요녕성 지역이 10.7%(11명), 북경지역이 9.7%(10명)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3) 한·중간 교육 교류·협력

초·중등단계는 시·도교육청 또는 개별학교 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시·도교육청별 교류를 살펴보면, 부산시 교육청이 2002년 상해시 교육위원회와 교육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학생대표단 20여 명의 상호방문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리고 서울시 남부교육청은 천진시 화평구 교육국과 2003년 10월 교육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시 북부교육청은 중국 길림성 돈화시 교육국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호방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 대학단계의 교류·협력

(1) 한국학생의 중국 유학

2003년 말 현재 대학단계에서 중국에 유학한 한국학생 수는 35,353명으로 2위인 일본(12,765명)에 비해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11,979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33.9%에 해당하는데 박사과정 659명, 석사과정 1093명, 4년 본과과정 10,132명 그리고 전문대학 과정에 95명이 유학하고 있다.
- 비학위과정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23,374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연구과정에 150명, 보통연수과정에 18,506명, 그리고 단기연수과정에 4,718명이 재학하고 있다.
- 2003년 말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총 유학생 수는 175개국 77,715명인데 한국 유학생이 35,353명을 차지하고 있어 45.5%를 차지하고 있다.
 - 2003년 6월 기준 국내 통계에 의하면 학위과정에 8,051명(학부 6,682명, 석사 1,369명),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에 10,216명으로 총 18,267명이 중국에 유학하고 있어 중국 측 통계와 많은 차이가 있다.
- 이들 유학생들은 주로 북경, 상해, 천진, 길림성 지역의 대학에 그리고 북경어언대학, 복단대학, 북경대학, 청화대학, 상해교통대학, 북경사범대학 등에 많이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학비 면으로 보면 중국 전체유학생 통계가 장학금 수혜 유학생이 7.92%, 자비 유학생이 92.08%인 점을 감안해볼 때 한국학생들도 자비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학생의 한국 유학

<표 V-4> 대학단계 중국 유학생 수(2003.9.1)

어학연수	학 부				대 학 원										기타	총계
	이공	인문	예체	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공	인문	예체	계	이공	인문	예체	계				
1113	573	1543	125	2241	656	740	78	1474	339	197	15	551	228	5,60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학부와 대학원 단계에서 중국 유학생의 전공을 보면 인문사회계가 56.9%(1065명)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학연수자는 23.3%(639명)로 정규학위과정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다.

<표 V-5> 대학단계 유학생 유학 동기별 현황(2002년)

구분	장래 한국기업 취직 희망	한국 교육 프로그램 우수	한국어 연수 기대	기 타	장학금 혜택	한국 문화 선호	친구 · 친지 권유	중국 대학 진학 실패	등록금 · 생활비 저렴	합 계
대학	117	65	73	27	9	40	31	3	20	385
대학교	360	337	202	127	151	124	128	44	8	1,481
대학원대	0	2	0	32	1	0	0	0	0	35
각종학교	0	0	0	6	4	0	0	0	0	10
합계	477 (25%)	404 (21%)	275 (14%)	192 (10%)	165 (9%)	164 (9%)	159 (8%)	47 (3%)	28 (1%)	1,91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유학동기별로 보면 장래 한국기업 취직 희망자가 25%, 477명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수요에 따라 유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여 유학한 자도 21%, 404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어 연수목적의 유학생도 14%, 275명으로 많은 편이다.

<표 V-6> 대학단계 유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2002년)

구 분	길림성	요녕성	산둥성	흑룡강성	북경	상해	안휘성	천진	강소성	북건성	절강성	내몽고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충칭	호북성	광둥성	사천성	호남성 귀주성 기타 운남성 서장	광저 장쑤 섬서성 강서성 성닝성 해남성 신강성 중경	합 계
대학	200	63	42	67	5	28	2	3	1	7	0	0	1	0	0	0	0	1	1	2	0	405
대학교	788	235	208	149	101	59	31	29	27	22	18	13	10	10	10	9	7	5	4	15	11	1,746
대학 원대	10	3	1	3	6	3	0	0	1	0	3	0	0	0	0	0	0	0	1	3	1	35
각종 학교	7	0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합계	1,005	292	251	221	113	90	33	32	29	29	21	13	11	10	10	9	7	6	6	20	12	2,19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지역별 유학생 수를 보면 길림성 지역이 45.8%(1005명), 요녕성이 13.3%(292명)로 이 두 지역이 전체의 59%를 초과하고 있어 조선족 집거 지역에서 많이 유학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중국 한국어학과 대학생 초청 한국어 연수

○사업목적

- 첫째, 중국 한국어학과 대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둘째, 한·중 간 교육 교류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 셋째, 중국 내 친한 인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추진경위

- 한·중 간 학술 교류 및 무역증대로 중국 내 각 대학의 한국어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위한 연수 분위기가 확산·고조되었다.
- 북경대 등 중국 주요 대학 한국어(조선어 포함)학과 학생들이 북한의 초청에 의하여 김일성대학 등에서 유학 후 대한반도 관련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 이들의 친북성향으로 대 중국 외교통상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표준어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중국 교육부 및 각 대학에서 한국에서의 연수를 적극 희망하였다.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 1997년 예산 편성 시 예산을 요구하여 확정됨에 따라 1998년 제1회 초청연수가 실시되었다.
- 2001년 10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명씩 초청연수 합의서 교환하였다.

○사업내용

- 중국 대학의 한국어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실시(매년 7월부터 12월)한다.
- 연수기관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시행된다.
- 연수내용은 한국어 연수, 한국의 문화 및 한국어사 등 우리나라 이해교육, 산업시찰 및 고적답사 등 현장연수, 그리고 컴퓨터, 태권도 등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장학금 지원 내역

- 생활비 월 50만원, 어학연수비 분기별로 40만원 지원하며 별도로 귀국 시 귀국 지원금을 제공한다.
- 이외 유학보험 가입, 현장연수 2회, 그리고 기타 연수경비도 지원한다.

○추진 실적

- 1998년부터 금년까지 총 204명 초청연수기회를 제공하였다.
- 초청 주요 대학을 들면, 북경대학 31명, 중앙민족대학 8명, 대외경제 무역대학 19명, 북경외국어대학 26명, 북경어언문화대학 25명, 길림대학 13명, 산둥대학 13명, 상해외국어대학 22명, 대련외국어대학 15명 등이다.
- 2004년 추진현황을 보면, 33명을 초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점추진 사항은 수준별 반 편성으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도우미 학생을 통한 한국어 회화교육 지원,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이해교육 실시, 홈스테이 기회 제공,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경연대회 참가 권장 등이다.

○주요 성과

- 한·중간 교육 교류 증진과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동 사업결과로 중국 대학생의 한국어 수강 열기 고조 및 한국 유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의 역사, 문화현장체험, 산업체 현장연수, 각종 행사 참가 등 특별활동 실시로 한국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4) 한·중 간 교육 교류·협력

대학단계에서는 학점교류방식, 2+2 또는 3+1방식을 통한 복수학위제 방식, 그리고 장·단기 어학연수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등 135개 대학과 중국의 북경대학 등 284개 대학이 다양한 방식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학술교류 차원에서는 학술진흥재단과 개별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은 중국사회과학원(CASS)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매년 학자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장기 1명 : 3~6개월, 단기 2명 내외 : 14일~3개월). 그리고 개별대학은 교류협정에 의거 교환교수제 실시 및 연구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라. 기타 한·중 간 교육관련 교류사업

(1) 조선족 동포 초청 연수

이외 한·중 간 교육관련 교류 사업으로 조선족으로 불러오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는데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p>중국동포 대학(원)생 초청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한국어·문화·역사 이해, 산업시찰 및 현장견학 ○ 사업시작 : 1993년 ○ 연수기간 : 8월중 10일간 ○ 실 적 : 총 190명(2003년 26명)
<p>중국인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동포학생이 재학중인 학교·교육청의 교육자를 초청, 한국 이해증진 및 동포학생교육 발전에 기여 ○ 사업시작 : 1998년 ○ 연수기간 : 10일 ○ 실 적 : 총 117명(2003년 18명)
<p>중국내 한국· 한글학교 교원 현지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재외동포의 현지 교육기관인 한국·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문규정 등 현지연수를 실시하여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 도모 ○ 사업시작 : 1999년 ○ 연수기간 : 연중 ○ 실 적 : 총 2,380명(2003년 380명)

(2) 중국어과 교원 중국 현지 직무연수 실시

문화협정에 의한 외국어과 교원 국외연수의 일환책으로 중국어과 교원들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어과 교원에게는 현재 단기연수기회만 제공하고 있다.

2003년도에 실시한 상황을 보면, 중국어과 교원은 총 26명이며 단기연수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명, 서울이 5명,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이 각각 2명씩이다. 이들에게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사전교육을 받는 과정을 두고 있다.

(3) 중국 내 한국인 학교 설립·운영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관원 및 상사원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6월 현재 북경한국국제학교 등 6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2003. 6월 기준

기관명	파견공무원(명)	학생수(명)	교원수(명)	설립일자
주중 대사관	교육관 1	-	-	-
북경한국국제학교	교원 2	489	81	-
상해한국학교	교원 2	410	58	-
연변한국학교	교원 1	203	49	-
천진한국국제학교	교원 3	370	51	-
홍콩한국국제학교	교원 3	49	20	-
연대한국학교	교원 1	162	32	-
계	13	1,683	291	-

마. 한·중 교육 분야 교류·협력 상황 분석

이상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볼 때, 동북아 공영시대가 도래하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여 제 1위로 올라선 오늘의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은 폭증하고 있는데 따라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류·협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한·중 수교 10여 년 만에 교육 교류·협력은 초기 정부기관의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기반을 다져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짧은 기간에 양국 간의 교육 교류는 급속히 신장되었는데 '90년대 중반 양국 정부 간에 문화협정과 교육 교류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초기 기반이 다져진 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이 약정에 따라 양국 정부 간에는 매년 대표단이 파견되어 상호간에 이해를 넓히고 주요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점차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국비 유학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동북아 협력시대의 도래에 부응하여 양국의 호혜적인 발전의 기대도 커지고 상호관심도 폭증함에 따라 유학교육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양국의 유학유형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21세기는 동북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힘입어 한·중 양국은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작년에는 대중국무역량이 최초로 미국을 앞서는 등 급속히 신장되면서 기대치도 커져 유학인구도 대폭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말 일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서도 현재 한국학생의 중국 유학생은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 학생의 한국 유학도 이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유례없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한편 유학유형에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정규학위 과정형보다는 언어연수형 등 비정규과정의 유학이 많은 데 비해 중국은 정규학위 과정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교류보다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대학차원의 민간형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일반 학교 차원의 교육 교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관 중심 위주 즉,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학교와 대학 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기관간이나 민간형 교육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교육 교류부문에서 중국보다도 한국 측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교류 유형인 유학에 있어 한국의 수요가 중국보다 6배를 초과하고 있어 한국의 중국 유학 수요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동북아 공영의 시대에 부응하고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중국전문가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근의 편리성과 교육경비의 상대적인 저렴성 등도 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육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까지의 교류·협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교육과 대학교육단계에서는 자율의사에 따르고 있어 체계화되지도 못하고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육 교류·협력은 중국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한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영속성이 미흡하고 합리적인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교육적으로 효과가 미흡하고 낭비도 많으며, 한·중 간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향후 중국전문인재가 매우 많이 소요될 것임에 비추어 현재의 접근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바탕하여 한·중교육 교류·협력은 중국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전문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 서울 광남고등학교 사례

가. 추진 배경 및 경과³⁵

본교는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적극적으로 세계 탐구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 이해를 통한 세계 개척 의지와 역량을 배양하며, 예의와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국제시민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기 위한 국제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국과의 교류활동을 하였다. 2000년의 일본문화체험프로그램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2001년 본교 국제이해 주제를 ‘중국, 대륙의 숨결을 느낀다.’로 정하고,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이웃인 중국으로 우리의 관심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역사문화 이해와 중국 학생들과의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新 熱河日記’의 진취적 사고로 21C 한·중 교류의 주도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중국 학교와 자매교류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과 추진 의지가 본교와 상통하는 북경 소재 전통있는 명문학교를 찾고 있던 중, 2001년 3월 29일(목)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처 안옥상참사관과 마귀생 3등서기관이 본교를 내방하여 우리의 국제교류 계획을 듣고 북경시 학교와 자매결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마귀생 3등서기관의 주선 및 한·중교육개발원 정기동원장의 협조로 북경시 명문 사립 회화학교로부터 자매결연 수락회신이 오에 따라 양교 교장의 서신 교환을 통해 자매결연에 합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중국 회민학교 교사로서 본교에 1년간 중국원어민교사로 근무한 유신선생님의 주선으로 회민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양교 학생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2003년은 중국 및 동남아에서 SARS가 확산되어 체험단 활동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아쉬웠지만, 자매학교와 서신연락을 통해 양교의 우의를

³⁵ 서울 광남고등학교 곽석영 선생님이 집필하였음.

계속 다녀나갔다.

2004년 5월 28일에는 회민학교 교장 및 본교에 중국어 원어민교사로 1년간 파견근무를 했던 유신선생님이 본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때 양교는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우의를 약속하고, 7월에는 회민학교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및 학생교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한·중친선협회 주선으로 우리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북경시 평곡구 평곡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교류회를 성대하게 치루었고, 2004년 10월 25일에는 이 평곡학교 교장 및 교사 일행 4명이 본교를 방문하여 학교 제반시설을 둘러보고 영어과 수업도 참관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 자매학교와의 교류가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 자매교학생이 본교를 방문하여 교류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자매학교의 방문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본교와 중국 자매학교와의 교류활동은 다음과 같다.

본교 방중 체험단 활동				중국 자매교 본교 내방 활동			
회수	기 간	인 원	방문학교	회수	일 자	인 원	비고
제1기	2001. 7. 22 ~7. 27	학생 40명 교사 4명	회가학교	1차	2004. 5. 28	교사 2명	회민학교
제2기	2002. 7. 17 ~7. 22	학생 40명 교사 4명	회가학교 회민학교	2차	2004. 10. 25	교사 4명	평곡학교
제3기	SARS로 취소						
제4기	2004. 7. 19 ~7. 24	학생 44명 교사 4명	회민학교 평곡학교				

- 회가학교 홈페이지 (2001. 6. 28. 木) 기사

<광남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는 소식과 학교 안내>

韩中教育开发院院长郑基东再次来我校访问

2001. 6. 26日下午14:00 “韩国韩中教育开发院”院长郑基东又一次来我校访问。随同郑基东来访的还有“中国留学服务中心来华事务处”杨大轴处长、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参事官安玉祥先生。汇佳学校校长王家骏先生亲切地接见了客人并就我校与韩中教育开发院开展教育交流与合作问题进行了诚挚、友好的会谈并签定了“北京市私立汇佳学校”与“韩中教育开发院”关于开展教育交流与合作的协议书。双方还就“韩国汉城广南中学”与“汇佳学校”建立姊妹学校关系以及韩方邀请我校参加本年11月14日的“汉城教育博览会”事项进行了具体洽谈。参加会谈的还有汇佳学校外国留学生部刘新恩主任和申美花老师。

<회민학교(소수민족학교)홈페이지> <http://www.bjhmxx.com>

나. 교류 프로그램 및 내용 개요

학생 교류는 먼저 자매학교를 선정하고, 중국 역사문화체험단 활동을 통한 자매학교 방문 교류행사를 한 후 지속적으로 자매학교와 협력활동을 해 나가며, 본교 교육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교류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본교의 중국 자매학교 교류 프로그램은 일본 자매학교 교류와는 달리 중국 역사문화체험단 활동(역사문화탐방과 자매학교 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여건 상 중국 자매학교 학생의 본교 내방활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되리라 본다.

본교에서는 중국문화체험단(학생 40명, 지도교사 4명)을 편성하여 2001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중국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한 이래, 2003년 SARS로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3차례의 체험단활동을 가졌고,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중국의 역사와 문화전통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新 熱河日記’의 진취적 역사 기행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4차례의 사전교육을 가지면서 일상 중국어 회화와 중국노래 침밀밀(搨蜜蜜, tian mi mi)을 입에 완전히 익히게 하였다. 각 조별 탐구과제와 ‘한국알리기’주제를 준비하게 하고, 자매학교에서 조별로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하게 하였다. 물론 서툰 발음과 몸짓으로 중국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2학년 때 처음 중국어를 시작하여 약 4개월 정도 배운 실력으로 발표하는 것이라 말하니 중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체험단 준비과제 및 학생교류행사>

조	과제(1)	과제(2)	비고
공통	일상적인 중국어 회화	중국노래 첵미밀(脣蜜蜜, tian mi mi)암기	
호(浩)	중국사 연구	◦ 한국역사 소개 ◦ 서울과 광남고 소개	과제(2)는 조별로 약 5분 정도의 중국어 (한국어비용)로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
연(然)	만리장성 연구	◦ 한국의 춤 소개 ◦ 한국의 노래 소개	
지(之)	자금성 연구	◦ 한국의 민속놀이 소개 ◦ 한국의 김치 소개	
기(氣)	명13릉, 이화원 연구	◦ 한류열풍 및 한국 젊은이들의 취미활동 소개 ◦ 한국 영화 소개(세계 영화제에서 수상 등)	
일시	장소	교류 내용	비고
2004. 7. 21 (수) 오후 1~7시	북경 사범 대학 부속 평곡 고등학교	◦ 평곡고등학교 방문 및 시설견학 ◦ 학생교류회 -평곡고 학생 합주단 축하연주 -양교 교직원 소개 및 학교장 인사 -본교 학생 과제 조별 발표(중국어와 한국어 병행) -양교 학생 중국노래(脣蜜蜜, tian mi mi)합창 -평곡고 학생 합주단 답례연주 -평곡고 교사 합주단 축하연주 -양교 학생 상호 선물교환 -파트너와의 시간(운동게임 및 대화의 시간) ◦ 호텔 투숙	
2004. 7. 22 (목) 오후 1~7시	북경시 회민 학교	◦ 회민학교 방문 및 시설견학 ◦ 자매결연식 -양교 교직원 소개 및 학교장 인사 -자매결연서 체결 및 교환 ◦ 학생교류회 -본교 학생 과제 조별 발표(중국어와 한국어 병행) -양교 학생 중국노래(脣蜜蜜, tian mi mi)합창 -회민학교 학생 답례공연 -양교학생 상호 선물교환 -양교학생 공동 연 만들기 및 연 날리기 -파트너와의 시간(운동게임 및 대화의 시간) ◦ 자매학교 기숙사 투숙	

간단히 2004년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된 체험단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중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차 우리는 지정학적·역사적으로 긴밀한 이웃인 중국으로 하늘 길을 통해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에 도착하였다. 북경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독한 대기오염으로 북경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이런 환경으로 2008년 올림픽을 어떻게 치를까라는 걱정이 밀려왔다.

천단공원과 유리창거리를 보며 과거 중국의 자취를 느끼고 다음 날, 이번 행사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된 천안문 광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끝도 없이 늘어진 줄, 줄이 74만 평이나 된다는 그 넓은 천안문광장을 다 채우고 있었다. 明·靑 시기 황제의 즉위 등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거행했던 곳으로 유명한 태화전을 비롯한 자금성을 둘러보고 걸어 나오는 것은 극기 훈련을 방불케 하는 강행군이었다. 무지하게 크고 넓고 사람도 인산인해, 더군다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우리 학생들이 모두 탈진한 사람처럼 힘들어했다.

다음은 칭화대학을 견학했는데 중국 대학생들의 뜨거운 향학열기에 우리 학생들의 향학열마저 타오르는 듯 했다. 이화원에서는 서태후의 야망과 폭정에 치를 떨기도 했던 우리 학생들은 평곡학교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긴장하는 모습과 함께 기대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평곡학교에 도착하자 잔디구장을 비롯한 엄청난 학교 규모에 놀랐고, 행사장에 입장할 찰나 들려오는 학생 합주단의 우렁찬 연주에 또 한번 놀라는 모습이었다.



<평곡학교 학생 합주단 연주모습>

양교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별발표를 하고 침밀밀 노래도 합창했다. 국내에서 애국가나 교가를 부를 때는 그렇게도 찾아들던 목소리가 이렇게 힘차고 우렁чал 수가. 역시 국외에 나오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나 보다. 시중 행사의 주인공으로서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행사가 끝나고 파트너와 자유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준비해간 선물과 명함을 교환하면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오붓하게 보내고 헤어질 즈음, 한 나절 사이 또 만리장성을 쌓았나? 그 새 얼마나 친근해졌는지 버스에 오를 생각도 하지 않고 서로 붙들고 서서 웃는가 하더니 금새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때그때 자기감정을 충실하게 쏟아내는 젊음의 솔직성이 이미 희로애락의 감정에 무더진 기성세대로서 부럽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교류의 묘미가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내일 회민학교에서도 부러운 광경이 이어지리라...

다음날 국자감과 옹화궁을 견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회민학교로 떠났다. 어제 평곡학교에서 훌륭하게 발표한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평곡학교의 잔디구장과 학교의 거대한 규모에 놀랐는데, 회민학교는 한술 더 떠 지하에 트랙을 만들어 놓아 우천시에도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가 않았다.

양교의 자매결연식이 끝나고 학생교류회가 시작되어 조별로 발표와 침
 밀밀 노래도 신나게 합창하였다. 행사가 끝나고 파트너와의 자유교류 시간
 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준비해간 선물과 명함을 교환하면서 자기들만의 시
 간을 재미있게 보내고 헤어질 시간, 오후 한 나절 또 하나의 정(情)에 우리
 학생들은 헤어지질 못했다. 어찌나 친근해졌는지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도
 아쉬워 보였다. 이 날 밤은 회민학교 유학생 기숙사에서 묵었다. 기숙사 앞
 에 마련된 중국 운동기구들을 해볼 수 있었고 저녁시간이 길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게임도 하거나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주었다.



<회민학교에서의 자매결연식 모습>

밤 늦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았더니, 학생들은 하나같이 지구본에서
 보면 손톱만한 우리나라와 그옆에 어마어마한 중국. 땅도 크고, 인구도 많
 고, 자랑할만 한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 중국을 왜 사람들이 급부상할 나라
 라고, 미래에 강력한 힘을 가질 무서운 나라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
 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하였다.

다음 날은 달에서도 관측된다는 루머가 있는 만리장성을 직접 걸어보
 고 용경협 유람을 하는 날이라 학생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실

제 만리장성을 걸어보고는 30분도 안되어 모두 차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너무 가파르고 계단의 높이가 높아 위험하단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 도무지 걸어갈 수가 없단다. 만리장성의 축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궁금해 할 때,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했더니 눈이 동그래진다. 만리장성 축조시 사고로 죽은 사람을 모두 그 자리에 묻었으니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지. 용경협은 작은 계림(桂林)이라 불릴 만큼 높이 솟은 가파른 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룬 곳으로 7Km 길이의 배유람은 학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북경시내의 더위에 온몸이 땀범벅이 된 학생들이 시원한 호수에서 천하 절경을 유람했으니 감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이후 명13릉, 왕부정거리, 쇼핑 센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벌써 중국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북경 공항에 도착하니 중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아쉬움에 우리 학생들은 무척이나 허전해 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몹시 피곤했다. 비행기에 오르고 기내식사를 마치고 피곤으로 쓰러져 잠드나 싶더니 서울 상공이었다. 그토록 넓은 대륙과 만리장성을 넘었으니 피곤할 수밖에 . . . 그래도 거대한 중국 대륙의 숨결을 느끼지 않았던가.

다. 성과

중국은 잘 살지 못하는 나라며,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나라라는 중국에 대한 피상적인 편파 의식이 자매학교 교류행사로 말미암아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교류의 역사현장 답사로 충실한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新熱河日記의 시각으로 중국의 진면목(저력과 비전)을 확인하고 중국을 새롭게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학습 열의와 학교의 면학 환경에서 강한 자극을 받아 본교 중국어반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향학열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 고구려사 왜곡의 현장에서 한-중관계에 대한 냉정한 전망과 새로운 對 중국 자세의 확립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문제점

자매학교와의 교류활동은 먼저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단활동 목적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참신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홍보해야 하며, 체험단 선발과 경비 사용계획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 의견, 조언,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사의 업무과다 문제이다. 가르치는 활동 외에 부가적인 일을 해야 하므로 업무의 과다가 문제이긴 하지만, 교사의 열정과 끊임없는 관심이 결국 우리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면 업무과다 마저도 마다 않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학생선발, 국제교류에 관한 소신, 철학, 열정을 겸비한 정에 교사진으로 구성하여, 치밀한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 생산적인 계획-준비-실행-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체험단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와 자기주도적 탐구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는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몇 차례의 사전교육, 주요 관심사와 집중 탐구과제를 부여하여 꾸준하게 관심을 유도하고,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초보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외국어회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네 번째는 자매학교와의 효율적인 교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상대 국가의 교육과정, 학제, 제약사항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매학교학생들과의 직접 교류 실현에 비중을 두고 탐방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자매학교 선정과 교류에 모든 유관기관, 해당국 주한대사관, 학부모 자원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 과제, 건의사항

본교는 2000년의 일본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2001년의 국제 이해주제를 ‘중국, 대륙의 숨결을 느낀다.’로 정하고 중국 역사문화체험단 40명을 인솔하여 북경 방문과 회가학교 자매결연을 성사

시켰으며, 2004년 7월까지 모두 3차례의 중국 역사문화체험활동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이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본교의 자랑스런 특색사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향후 과제로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병마총으로 유명한 서안지역과 중국의 빠른 변화속도를 느낄 수 있는 상해 지역으로의 탐방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소수의 체험단활동에서 대규모 수학여행단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방학 중 중국어 어학연수단 활동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유학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교는 모든 조건이 맞는 학교(중산층 가정,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기 때문에 중국체험단활동이 가능했다. 이런 활동이 모든 학교에까지 일반화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기에 열악한 조건을 가진 학교에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생선발은 학교에 일임한다하더라도 활동경비의 일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자라나는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본교는 여러 조건이 맞는 학교이기에 이제는 소수의 중국체험단이 아닌 대규모의 수학여행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본교는 교과서에서의 공부를 실제 살아있는 체험교육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대규모의 수학여행을 실시하게 된다면 소외되는 학생이 없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학교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3. 전남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 사례³⁶

가. 경과

목포기계공고가 중국과 교류하게 된 동기는 목포시와 중국의 연운항시 간에 이루어진 자매결연이 체결되면서 양 시의 실업계고등학교 간에도 시가 주관하여 결연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중국교관계가 수립된 것은 1992년 9월 1일인데 목포와 연운항시 간의 결연이 체결된 시기는 국고가 수립된 지 2개월이 지난 동년 11월 1일이었다. 이때부터 여러 분야 별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교육 분야에서 기계공고와 연운직업기술대학교의 교류가 논의되게 되었다. 양쪽 시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양 학교의 각종 자료가 교환되고, 양교 교장 간의 서신도 교환되는 등 자매결연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고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침내 1996년 10월에 연운항시의 방문단이 목포기계공고를 방문하였으며, 차경춘 교장도 동년 12월에 연운항시를 방문하여 자매관계건립의향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97년 10월 17일에는 연운항시 직업기술대학의 심청문 교장도 목포기계공고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정서를 조인하게 되었다. 다음 해인 1998년에는 목포기계공고의 이재용 교장이 연운항시를 방문하여 학생파견 연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1999년 1월에 오수정 교감이 직접 연운항시를 방문하여 양교 간 학생파견 연수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때 합의된 안은 1차로 학생 10명이 8개월간 교환연수를 하며 1년 실시 후에 15명으로 늘이기로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제1기 연수생 10명이 교환연수에 임하게 되었다. 곧이어 1999년 11월에는 연운항시의 자매학교 임서광 부원장이 방문하여 연수생수를 15명으로 확대한다는 수정협의서를

³⁶ 이 부분은 목포기계공고의 권성수 교사가 작성한 원고를 정리하였음.

체결하였다. 이 협의서에 의해 다음 해인 2000년에 제2기 15명의 학생이 교환연수하게 되었으며, 2001년에는 제3기 연수생 15명, 2002년에는 제4기 연수생 15명이, 2003년에는 제5기 연수생 15명이 그리고 금년에는 제6기 연수생 15명이 상호 파견되어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나. 개설 프로그램 및 내용

- 학교특색사업: 가까운 나라 중국 깊이 알기 -

(1) 목 적

동북아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서남해의 중추도시인 목포에서, 열린 사고를 갖고 동북아와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인재를 기르고, 13억 인구대륙 이웃나라 중국을 깊이 이해하여 함께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중국 내 지한인맥을 형성하는 등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게 한다.

(2) 방 침

- 중국노래 배우기, 중국지도 그려보기, 중국학생과 필담 해보기, 중국 학생초청 홈스테이 등 그리 어렵지 않은 체험소재를 통하여 부담 없는 국제화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게 한다.
- 국제자매학교인 중국 연운항 직업기술학원 교환연수학생과의 수업, 대화, 필담, 노래, 운동, 홈스테이(home stay), 유적지답사, 사제교류, 지역사회교류 등을 통하여 가까이서 중국인과 교류하게 한다.
- 외국어, 인문사회 등 관련과목과 연계한 특별활동시간, 상설반 조직 및 운영, 특기적성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중국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 중국자매학교와의 학생교환 연수를 통하여 중국어 가능한 기술인력 양성에 힘쓴다.

(3) 추진과제

(가) 중국(문화체험)교환학생 연수

: (목포기제공고 - 중국 연운항직업기술대학 : 8개월간)

○목적

- 국제화시대를 대비 외국어 겸비한 기술인력 배출
- 동북아기술중심학교의 실제적 선도그룹 양성

○목표

- 생활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 중화경제권을 겨냥한 외국어 습득 : 한어수평고시 2급 취득
- 외국어 가능한 기술인력 양성

○대상 : 1학년 40명, 2학년 학생15명, 중국학생 15명 총 70명

○세부추진계획

추진과제	주요활동	담당 부서	목표량	비 고
중국교환 학생연수	연수대비반 모집(1학년40명)	국제 교류부	3월 중	중국 연수대비반 추천서 중국어교재
	연수대비반 중국어 교육	"	방과 후 1시간(연중)	
	중국연수반 교환파견 (2학년15명+중국학생15명)	"	8개월간	
	내년연수생 선발(1학년15명)	"	3시간	

(나) 중국 노래 1곡 부르기

○목적

- 중국의 노래말과 가락을 이해하고 노래를 통한 중국민족의 정서를 체험해 본다.

○방침

- 중국어나 음악시간에 중국학생에게서 중국노래를 배운다.

- 중국학생에게 중국악보 보는 법을 배운다.
- 축제 기간에 중국학생과 합창을 함께 한다.
- 연 1회 중국노래 경연대회를 갖는다.

○대상 : 1, 2학년 학생(680명)

○세부추진계획

추진 과제	주요활동	담당부서	목표량	비 고
중국 노래 1 곡 부르기	중국노래의 이해, 악보이해	중국어과, 음악과	22시간	프린트물 중국노래집 카세트 피아노
	중국노래 배우기	"	22시간	
	교내축제에 중국노래 합창	학생부, 중국어과, 음악과	5시간	
	중국노래 경연대회	"	3시간	

(다) 중국 지도 그리기

○목적

- 중국의 지도를 그려보고 각 성을 표시해 봄으로써 각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지방화시대의 발전방향을 학습하게 한다.

○방침

- 중국어, 또는 사회시간에 중국학생과 함께 중국지도를 그려 본다.
- 그린 지도에 행정구역과 성정부소재지를 표시해 본다.
- 중국 행정구역지도를 통해 각 성의 민족분포, 생활방식, 지리적 특성 등을 이해하게 한다.
- 연 1회 중국지도 그리기 경연대회를 갖는다.

○대상 : 1, 2학년 학생(680명)

○세부추진계획

추진과제	주요활동	담당부서	목표량	준비물
중국 각 성 지도 그리기	중국의 행정구역, 민족, 성정부 알기	중국어과, 사회과	22시간	프린트물, 중국대형지도, 중국관련사진집, 그림용구
	집중탐구 (한국과 교류가 많은 성)	"	22시간	
	중국지도 그리기 대회	중국어과	2시간	

(라) 중국학생과 필담 해보기

○목적

- 필담을 통해 한·중 양국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이야기해 봄으로써 국제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학습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방침

- 중국어시간에 중국학생과 관심사를 필담해 본다.
- 중국학생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조사한다.
- 자기를 소개하는 법을 필담으로 익힌다.

○대상 : 1, 2학년 학생(680명)

○세부추진계획

추진과제	주요 활동	담당부서	목표량	비 고
필 담 해보기	필담의 이해, 필담으로 자기소개	중국어과	22시간	프린트물 필담 예시문
	중국학생의 관심사 조사	중국어과	22시간	
	필담으로 한국소개	"	22시간	

(마) 중국학생 홈스테이 교류

○목적

- 중국학생을 한국학생가정에서 함께 숙식하며 음식문화, 생활방식 등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며 가정교류를 통해 저변에서부터 지한인 맥형성의 기초를 다진다.

○방침

- 한국학생 1명과 중국학생 1명이 일대일 홈스테이를 진행.
- 양국 학생들의 상호이해 및 우호교류에 중점을 둔다.
- 양국학생 학부모님의 우호교류가 일어나게 한다.

○대상 : 1, 2학년 학생(60 명)

○ 세부추진계획

추진과제	주요활동	담당부서	목표량	비고
중국학생 홈스테이	1학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부	1박2일	
	2학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부	1박2일	
	교사 홈스테이	"	1박2일	

다. 성과 및 문제점

(1) 실적

○ 중국 진출 기업에 취업.

- 연수생 졸업 후 중국진출 기업 취업: 제1기생 6명, 2기생 3명, 3기생 3명, 4기생 1명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였음.

○ 중국 대학 및 중국어관련 학과에 진학

- 연수생 진학: 제1기생 북경외국어대학에 1명 진학, 4년제 대학 재학 중 통역장교로 임관, 제2기생 5명 중국어과 진학, 제3기생 1명은 중국대학에 진학, 4명은 국내대학 중국어과에 진학, 제4기생 2명이 중국어과에 진학하는 등 많은 학생이 중국어 관련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음.

(2) 주요 성과

○ 목포시와 연운항시의 교류 확대 및 한국문화전통 홍보에 기여

- 1999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6년간의 축적된 인적교류를 통해 중국내 지한인맥 형성에 공헌.
- 21세기 목포를 중심한 환황해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저변확대에 기여
- 중국학생들이 홈스테이 교류 등을 통하여 한국음식, 한국생활양식, 한국전통복식, 한국전통놀이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한국국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음.

- 한국학생들이 홈스테이 교류 등을 통하여 중국음식, 중국생활양식, 중국전통복식, 중국전통놀이 등 중국문화를 체험하고 중국국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음.

○본교 학생들의 외국어학습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원어민 학생들과 교실수업을 함께 함으로써 외국인과 외국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 필담 교류를 통하여 다른 외국인과의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음.

○국내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 동남아로 이주한 이후의 우리 제조업체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육성함.

- 장래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이끌어 갈 중간 관리자 등 기술인력을 배출함.
-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선도해 갈 국제 감각과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 육성

(3) 문제점

○본교 지도교사가 파견되지 못한 채 8개월 간 위탁하여 교환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문화가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지도를 충실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장기간의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학업의 충실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 미성년 고등학생의 외국체류 시의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함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공업계 학생들이 실습에는 비교적 흥미가 많으나 학과공부에는 흥미가 많지 않아 교환연수의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음.

○연수경비를 자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학부모와 학생의 인기를 모으지 못함.

- 현행 고등학생의 국외연수 허용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 8개월의 연수기간을 법무부의 허가를 받는 데 애로가 있음.
- 개인연수경비 외에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교육환경 구비를 위해 학교 운영비를 써야 하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큼.

라. 향후 과제

- 학교특색사업 선정취지가 전교직원과 학생에게 인식되도록 홍보 필요.
- 학교특색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 도교육청, 목포시청 등에 학교특색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
 - 지역사회, 학부모, 동창회 등의 관심과 후원을 위한 홍보를 강화
- 관련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
 - 학교특색사업 관련 교과, 즉 중국어, 사회, 국어, 음악, 체육 등 여러 교과 교사들의 정기적인 협의회 필요.
- 중국의 위상과 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
- 중국연수생의 진로지도에 노력.
 - 중국어 특기생으로서 국내 우수 대학 중국어관련학과에 특별전형을 통하여 진학할 수 있는 길을 개척
 - 졸업 후 취업 희망자들이 우수 중국진출 기업체에 준비해 온 조건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책을 강구
- 장학금 및 기업체 후원이 절대 필요
 - 학부모와 학생을 관심과 지원을 모으기 위해 연수비의 일부라도 보조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
 - 규모있는 홍보를 통해 기업체 후원 등 교외 후원 및 장학금을 적극 유치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움.
 - 도교육청에 예산배정을 요청.

4. 대구대학교 사례

가. 추진배경³⁷

21세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세계의 공장이라 할 정도로 중국에는 세계 유명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이러한 중국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대 중국 무역교역이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인적교류도 활발해짐에 따라 대 중국전문가 양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교에서도 대 중국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활발한 학생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캠퍼스의 국제화,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학 자원이 가장 많은 중국을 대상으로 유학생유치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나. 교류 프로그램 내용 및 실적

(1) 학술교류협정대학 현황

1993년 북경 제2외국어대학(北京第二外國語學院)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방문, 학생교류, 문화교류, 연구방문 등의 다양한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³⁷ 대구대학교 석경희 선생님이 집필하였음.

<표 V-7> 중국학술교류협정대학 현황

교류대학(기관)명	협정체결일자	소재지	체결 내용
北京第二外國語學院 (Beijing Second Foreign Language Institute)	1993.5.31	北京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생 교류 • 공동연구 • 학술자료·정보교환
蘇州大學 (Soochow University)	1994.5.26	江蘇省 蘇州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생 교류 • 공동연구 • 학술자료·정보교환
長春大學 (Changchun University)	1995.5.25	吉林省 長春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생 교류 • 공동연구 • 학술자료·정보교환
吉林大學 (Jilin University)	2001.4.16	吉林省 長春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생 교류 • 공동연구 • 학술자료·정보교환
泰山學院 (Taishan University)	2002.7.19	山東省 泰安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생 교류 • 공동연구 • 학술자료·정보교환
東北農業大學 (Northeast Agricultural University)	2003.9.9 (2002.6.25: 연구소간 협정)	黑龍江省 哈爾濱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종연구 협력 • 교수·학생 교류 • 학술자료·정보교환
黑龍江大學 (Heilongjiang University)	2002.11.3	黑龍江省 哈爾濱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류 협정체결 • 복수학위 협정
重慶大學 (Chongqing University)	2002.11.5	四川省 重慶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생 교류 • 공동연구 • 학술자료·정보교환
鞍山師範學院 (Anshan Normal University)	2003.9.19	遼寧省 鞍山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생 교류 • 공동연구 • 학술자료·정보교환

(2) 학생교류

일정기간 중국 학술교류협정대학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 중국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둔다. 학생교류는 협정에 의거해 학생들을 상호 파견하는 것으로 파견인원, 파견시기, 학비, 기숙사비, 장학금 등 파견조건 및 내용은 각 대학별 체결한 협정에 의거해 실시한다.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1년 간 파견대학에서 관련 전공분야에 대한 폭 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 교환학생은 매년 5월 파견계획을 세우고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9월에 파견한다. 선발 평가방법은 성적 30%, 중국어인터뷰 40%, 필기 30%를 만점으로 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교환학생으로 파견한다. 파견기간은 1년이며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학생이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표, 학점인정신청서 및 교과목개요 등을 제출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정학점은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되, 실험·실습·실기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1년간 취득한 성적에 대한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의 최대 1/4까지이다. 본교에서는 2002년 2학기부터 중국 대학 파견학생에게 유학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견 최초학기 1회만 지급한다.

<표 V-8> 협정체결 대학

대학명	체결일시	비고
북경제2외국어대학	2003.5.8※	교환학생
지린대학교	2001.8.3	교환학생
타이산대학교	2002.7.19	교환학생
헤룽지양대학교	2003.6.19	교환학생
안산시범대학	2004.6.3	교환학생

※ 1993.5.31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해 교환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다, 2003.5.8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별도 세부협정을 체결함

A. 교환학생 교류현황 및 실적

파견인원 수는 협의에 의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파견인원이 불일치 될 경우 파견 다음해에 협의에 의해 인원 수를 조절한다.

<표 V-9> 교환학생 교류실적

대학명 학년도	북경 제2 외국어 대학	대구대	지린 대학	대구대	헤룽 지양 대학	대구대	안산 사대	대구대
2001	1	1	2	2	·	·	·	·
2002	1	1	2	2	·	·	·	·
2003	1	1	2	2	3	4	·	·
2004	1(2)※	1	1	2	3	3	2	2
계	4(2)※	4	7	8	6	7	2	2

※ ()은 자비 교류학생임.

※ 위 파견학생 수 불일치 부분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공평하게 함.

B. 상호 파견조건

상호 파견인원 동등 수 일 때 <표 V-10> 파견조건을 적용을 받으며, 초과인원을 자비로 파견할 경우, 본교에서 지급하고 있는 외국인장학금(수업료의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사경고자는 제외된다.

<표 V-10> 교환학생 파견조건

대학명	파견조건		
	학비	기숙사비	장학금
북경제2외국어대학	면제	면제	대구대: 30만원 북경제2외대: CNY1,000
지린대학교	면제	자비	없음
헤룽지양대학교	면제	면제	없음
안산사범대학	면제	자비	없음

(나) 복수학위 프로그램

○ 목적과 정의

- 교류와 협력이라는 학술교류협정대학의 협정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의 비교우위 학문에 대한 상호 학습을 통하여 한·중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교 학생이 각 원적대학의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파견대학에서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양교의 졸업장과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수업

- 파견학생은 원칙적으로 원적대학의 동일 혹은 유사전공을 학습한다. 단, 유사전공을 학습한 학생의 경우에는 양교의 학칙에 의거,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파견학생은 최초 파견 반년 간 언어연수과정을 거친 후 2년 간 학부과정에서 수학한다. 따라서 복수학위프로그램을 ‘2+2.5’라고 하기도 한다.

○ 학점과 학위수여

- 학점은 원적대학과 파견대학에서 각각 졸업학점의 1/2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인정은 양교가 협의하여 승인한다. 파견학생이 양교의 학위수여규정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없을 때, 양교의 졸업장과 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파견자격

-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자로, 전 학년 평점평균이 3.0이상이고, HSK4급 이상인 자로 한다.

○ 파견시기

- 매년 11월에 선발하여 3월에 파견한다. 중국 대학에서는 9월에 파견한다.

A. 복수학위 교류현황 및 실적

<표 V-11> 협정체결 대학

대학명	체결일시	비고
수저우대학교	2001.10.24	복수학위제
지린대학교	2001.11.7	복수학위제
타이산대학교	2002.7.19	복수학위제
헤이룽지양대학교	2002.11.3	복수학위제
안산시범대학	2003.9.19	복수학위제

<표 V-12> 교류실적

학년도 \ 대학명	수저우대학	대구대학	지린대학	대구대학
2002	6	10	1	1
2003	15(12)※	6	0	1
2004	15	4	0	0
계	36(12)※	20	1	2

※ ()은 자비 교류학생임. 자비 복수학위수학생은 본교 외국인장학금(수업료의 50%)을 수여받을 수 있다.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모두 5개 대학이지만 현재 수저우대학과 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 기대효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시스템은 해당국의 언어로써 자신의 전공을 설명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언어습득은 물론이고 현지생활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도 직접 익힐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시스템 하에서 취득한 두 대학의 학위는 그 학생이 전공과 언어, 문화이해능력 등에서 검증이 되었다는 징표로서, 국내외 기업들에게도 직접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단기 언어연수프로그램

단기 중국어연수프로그램은 여름·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5-6주간 90시간 이상 학술교류협정대학에서 연수를 하며, 평가에 의해 6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30시간을 1학점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어와 더불어 중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전에는 언어수업을, 오후에는 선택과목으로 태극권·서예·중국노래배우기·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A. 파견실적 및 현황

<표 V-13> 단기어학연수 파견실적

대학명	2001		2002		2003		2004	
	하계	동계	하계	동계	하계※※	동계	하계	동계
지린대학교	·	·	44	·		16	23	·
수저우대학교	39	47	54	32		52	37	41※
장춘대학교	36	·	·	·		·	·	·
헤룽지양대학교	·	·	·	·		·	14	·
안산사범대학교	·	·	·	·		·	11	·
상하이대학교	·	·	·	·		·	·	23※
계	75	47	98	32	0	68	85	63※

※ 파견예정임.

상하이대학교(上海大學)와는 2004년 11월 중 협정체결예정임.

※※ 2003학년도 하계방학기간에는 SARS로 인해 파견이 취소됨.

B. 학생문화교류

2004년 5월부터 중국길림대학교(吉林大學)와 학생문화교류를 시작하였다. 금년 5월 학생 축제기간 중 길림대학교 학생예술단 李芬陽(Li Fen Yang)외 20명이 본교를 방문하여 중국전통악기연주, 민요, 민속무 등을 공연하여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금년 9월 본교에서는 길림대학교를 방문하여 동아리 학생들이 사물놀이, 현대무용 등을 공연하여 중국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가장 직접적으로 양국 대학생들이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치를 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

(1) 추진배경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및 한류의 영향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즈음하여 본교에서는 2002년부터 중국인유학생 유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유학생 유치를 통해 캠퍼스의 국제화로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자, 거리적·문화적으로 가깝고 대학입학정원에 비해 진학대상자가 훨씬 많은 중국을 외국인유학생유치 주 대상 국가로 하여 직접 현지방문조사, 설명회 실시, 유학박람회 참가 등을 전개하였다.

중국인유학생을 유치하면서 언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정규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전 일정기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학생 숙소환경 마련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 투룸 24실, 원룸(1인실) 29실, 원룸(2인실) 30실 규모의 외국인전용기숙사를 2004년 2월 완공하였다. 본교에는 이외에도 2,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기숙사가 있어 외국인학생 100% 기숙사수용이 가능하다.

(2) 추진 실적

2002년 3월 상해지역 최초 9명의 중국인유학생 입학의 시작으로 하여, 2004년 11월 현재 264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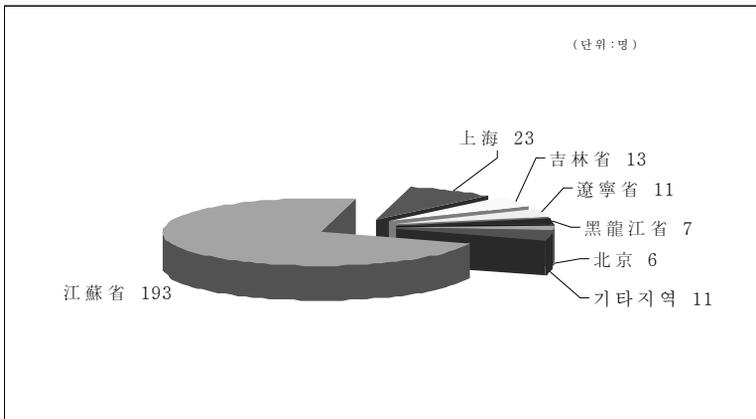
<표 V-14> 연도별 유학생 유치 실적

학년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한국어연수과정)	계
	학부	대학원		
2001	6	2	0	8
2002	19	9	43	71
2003	55	13	93	161
2004	164	18	82	264

(가) 출신지역별 현황

중국인학생유치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학능력이 있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은 강소성 및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유치한 결과, 현재 본교 재학 중국인 학생의 8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V-1> 중국인유학생 출신지역별 현황



기타지역 11명

: 河北省 1, 河南省 1, 安徽省 1, 雲南省1, 四川省 2, 山東省 3, 貴州省 2

(나) 남녀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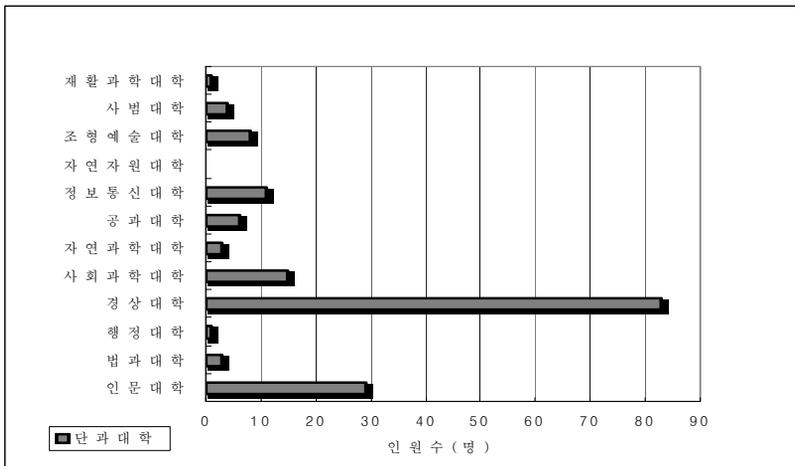
<표 V-15> 성별 현황

성별 \ 과정	남	여	계
학부과정	81	83	164
대학원	12	6	18
비학위과정 (한국어연수과정)	43	39	82
계	136	128	264

(다) 학부과정 단과대학별 중국인학생 현황

학부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유학생 수는 164명이며, 그중 경상대 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83명으로 타 단대에 비해 월등히 많다. 특히 경상대학에서도 관광학부(23명), 무역학부(34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이는 한·중 간 관광서비스업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기대와 왕성한 무역거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V-2> 학부과정 단과대학별 중국인학생 현황(2004년 11월 현재)



(라) 유학생관리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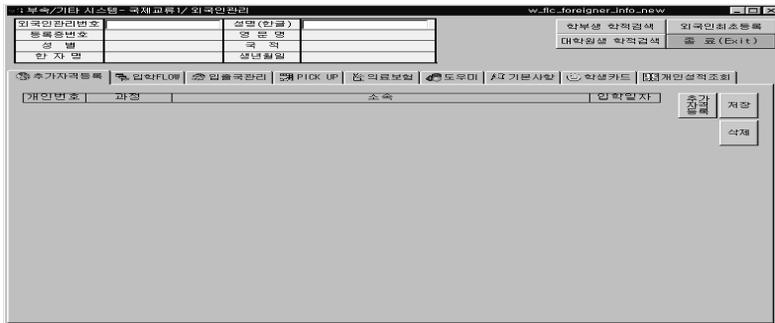
유학생유치 후 관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부분이다. 본교에는 중국인유학생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업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도·관리하고 있다. 본교 유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그리고 교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교외거주신청서를 받아 별도 관리하고 있다.

<표 V-16>거주유형별 현황

과 정	거 주 형 태	기숙사 거주			교외거주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학부과정	성별	52	53	105	29	30	59
대학원과정		8	4	12	4	2	6
비학위과정 (한국어연수과정)		43	39	82	0	0	0
계		103	96	199	33	32	65

본교 유학 중국인학생들은 언어연수과정을 거쳐 정규학위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로 본교 재학기간이 3년~5년 간이다. 따라서 이들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림 V-3>과 같이 개인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 필요시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림 V-3> 외국인관리시스템



이외에 중국인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국인학생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다.

- 중국인 유학생협회 지원: 2002년 5월 중국인유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협회로 정기총회, 교내활동 등이 있을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한다.
- 중국인학생 상담: 학생주임교사를 배정하여, 개인상담·집단상담·정기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국제교류처 중국인유학생 관리 직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사안의 輕重에 따라 국제교류처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 학부모와의 연계: 학습태도 불성실, 생활상의 문제 등이 있을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본교 재학 중국인학생들은 대부분 자매대학에서 추천하여 파견한 학생들과 자매대학 교직원들의 자녀, 친·인척들로 보호자와의 연락이 용이하다.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학부모와 상담을 하기도 하며, 간혹 학부모가 직접 본교에 방문하여 자녀가 학습·생활하는 곳을 참관하기도 한다.
- 외국인장학금 지급: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학기 수업료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학사경고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학생간의 교류·협력: 본교에는 중국인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 외국인학생 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11월 4일 경상대학 학생회 주최로 경상대학 재학 학생과 중국인 학생 간에 “1촌 맺기”운동을 열어 중국인학생들에서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제공: 온라인을 통해 출입국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공지사항 및 유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게시판에 올려 유학생들이 web 상에서 정보를 받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어

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V-4>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중국어판-종합게시판



라.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생교류

- 영어로 수강할 수 있는 수업 부재: 본교에 파견되는 교환학생은 대부분 한국어과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 수업 진행 상의 언어가 한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어 수강능력이 없으면 수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교류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국어과가 없는 대학의 경우 학생을 파견할 수 없어 교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교류 뿐만 아니라 유학생유치에 있어서도 외국인 학생들이 집중된 학과를 중심으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과목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생교류가 학부생 교류에 집중: 실질적으로 학생교류가 학부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원생교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원의 경우 교수가 필요인력이 있을 경우 자매대학에 요청하여 파견되어오면, 외국인연구조교제에 의해 수업료를 면제하고 약간의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파견되어 온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학생들이다. 그러나 중국대학의 요청에 의해 본교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학부과정 학생교류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교류 범위를 넓혀 대학 간 대학원생교류 세부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일정 수의 연구 인력을 상호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원생 교류는 해당 교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2) 중국인학생 유치 및 관리

-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중국과 한국은 같은 동양문화권 국가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와 각각의 문화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학생 관리에 있어 간혹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니까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인의 관습에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요구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인유학생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먼저 중국인의 문화와 습성에 대한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생을 관리 및 지도해야 한다. 즉 각종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알고 이해시키는 태도로 관리를 하여야 원활한 중국인유학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학력 별 관리방법 차별화 필요: 유학 온 중국인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입학하는 학생,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학하는 학생,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등 크게 세 부류가 있으며, 이 학생들을 차별화한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 중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국가정책에 의해 가정의 한 자녀들로 태어나 자랐으며, 학교교육 또한 주어진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편입생들 보다 한국에서의 생활, 자유로운 캠퍼스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입학유형 별로 관리의 경중 및 관리영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5. 분석 및 평가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면서 1992년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실험적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비약적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와는 1992년 수교하여 이제 13년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냉전체제에 영향 받아 오랫동안 우리와 교류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변됨에 따라 최근에야 다시금 교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세계의 여타 국가와의 교류에 비해 우리와의 교류역사가 매우 짧다. 그러나 2003년 양국 간의 무역고가 첫째로 바뀔 만큼 한·중 간에는 비약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교육 교류 부문에 있어서도 한·중 양국 간에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먼저 이처럼 한·중 양국 간에 비약적인 교육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의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추세, 교육 교류 관련 중국의 대외협력 배경, 그리고 오늘의 교육문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중국의 교육체제는 문화혁명이 끝난 1970년대 후반 4대현대화 정책을 내걸면서 많은 변화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 무렵 과거 훼손된 교육체제를 급히 복구한 이후 사회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기제를 받아 들이게 되었다. 1987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사회개혁의 이론적 기저로 공인된 이후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양성제를 도입한 이후 한 단계 높여 부분적으로 수익자 부담방식인 자비생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실험을 거쳤다. 이 시기는 계획경제체제에 기반하면서 시장경제기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인재를 양성하는 시기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교육체제의 본격적인 개혁은 1992년 중국정부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를 공식화한 이후 시작되었다. 1993년 2월에 발표된 ‘中國教育改革과 發展剛要’ 라는 교육개혁문서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존 계획경제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교육관리체제를 국가가 거시관리하고 지방과 일선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하였으며, 고등 교육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여 학생 모두가 학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술밥 정책을 타파하고 수월성 신장을 위한 211공정을 내세워 과거 중점학교와는 다른 방식의 우수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과거 계열 별로 분화되어 설립되어 있던 대학들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학생 정책을 대폭 개방하였으며,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교육 대외개방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사회체제의 전환으로 교육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중국의 교육도 획기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계획경제시대에는 교육기관을 모두 국가가 틀어쥐고 관리하고 무상으로 교육시켰으나 이제는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찾도록 함에 따라 재원도 스스로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를 건설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잠들어 있었던 실사구시의 풍조가 되살아나 사회는 교육기관도 돈벌기 붐이 만연되게 되었으며 각종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낙후된 교육시설을 갱신하기 위한 투자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과 협력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갖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이 중국사회에서 사회지위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교육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의 권위적인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기관들의 질적 차이가 매우 심하다. 소위 초등학교단계부터 개설되어 있는 중점학교 때문에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하다. 이들 학교에 다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상급단계 중점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입시위주 교육이 만연되어 있으며 일찍부터 과외를 받는 등 우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사립학교가 아닌 소위 국공립 명문학교까지도 매우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받아 학생을 입학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 대학진학율이 최근 대폭 늘어나 취학연령의 15%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말하자면 대학 진학의 뜻을 두고도 진학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다.

한편, 한 가정 한 자녀만을 두도록 강력히 산아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자녀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부모는 최근의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부도 축적하면서도 한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켜 훌륭하게 키우는데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중국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 선호하는 북경이나 여건이 좋은 지역에 호구를 갖는 방법으로는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원하는 지역에 직장을 배치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에 최근 들어 각종 과외가 성행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재수생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 인척이 있으면 연계하여 만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자비로라도 어떻게든 외국에 유학하려는 풍조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 유학하여 외국의 발달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면 상당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해외투자가 급속히 늘어나 외자기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일어 또는 중국에 투자한 국가의 언어나 문화를 습득하고 취업하면 중국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유학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사회체제가 시장경제로 바뀐에 따라 교육관리체제, 학교경영체제가 바뀌고 학생들의 교육문화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제구조도 점차 고도화되고 WTO에도 가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우수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임과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도 중국에 학교를 개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고급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211공정을 통한 세계선진수준의 대학 육성, 세계 유명대학과의 교육협력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명문대학들이 앞다투어 외국대학과 연계하여 MBA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와 아울러 외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고 교육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간 교육 교류는 수교 후 교류기반을 조성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3월 한·중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부차원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장학생 초청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차원의 유학생 교류는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중국에 유학한 한국학생은 35,353명으로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중 45.5%를 점유하고 있어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에 유학한 중국학생은 5,607명에 이르고 있어 한국 유학생의 1/6도 되지 않는다.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중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11,979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33.9%에 해당하는데 박사과정 659명, 석사과정 1093명, 4년 본과과정 10,132명 그리고 전문대학 과정에 95명이 유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학위과정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총 23,374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연구과정에 150명, 보통연수과정에 18,506명, 그리고 단기연수과정에 4,718명이 재학하고 있다. 유학 학비 상으로 보면 중국 전체유학생 중 장학금 수혜 비율은 7.92%, 자비 유학생이 92.08%인 점을 감안해볼 때 한국학생들도 자비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학부와 대학원 단계에서의 전공을 보면 인문사회계가 56.9%(1065명)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학연수자는 23.3%(639명)로 정규학위과정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다. 유학동기 별로 보면 장래 한국기업 취직 희망자가 25%, 477명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수요에 따라 유학하는 자가 늘

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여 유학한 자도 21%, 404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어 연수목적의 유학생도 14%, 275명으로 많은 편이다.

대학단계에서의 한·중 간 교류·협력은 2000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등 135개 대학과 중국의 북경대학 등 284개 대학이 다양한 방식의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학점교류방식, 2+2 또는 3+1방식 등을 통한 복수학위제 실시 그리고 장단기 어학연수, 문화방문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양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중국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청 한국어 연수도 1998년부터 작년까지 204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에는 33명을 초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어과 교원 중국 현지 직무연수는 문화협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데 현재 단기연수기회만 제공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실시한 통계는 26명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개별학교의 교류사례로 보면, 개별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고등학교 단계를 대상으로 하여 보면 개별학교의 의지에 의하여 추진된 경우와 지역의 뜻을 수렴하여 교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광남고교의 사례를 보면, 학교의 뜻에 따라 ‘중국, 대륙의 숨결을 느낀다’는 주제를 내걸고 2001년부터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가 주한·중국대사관과 접촉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소개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건이 비슷한 중국 북경의 회가학교, 평곡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단기 교류방문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교류프로그램은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 학생들의 참여의식이 높으며 양국 간 우의를 다지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목포기계공고의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인 목포시가 교류조건이 비슷한

중국의 연운항시와 국가 간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을 소개하여 교류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참여하게 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연운직업기술학교와 수 차의 의향을 타진한 끝에 1995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한 기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수 차에 걸쳐 협의서를 수정하면서 교환연수의 방식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 교류프로그램은 6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매년 15명 썩의 학생들이 같은 조건으로 상대학교에서 8개월 썩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을 포함하여 학교 특색사업으로 주제를 내걸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제는 ‘가까운 나라 중국 깊이 알기’이다. 추진과제로는 앞서의 중국 교환학생 연수 외에 중국 노래 1곡 부르기, 중국지도 그리기, 중국학생과 필담 해보기, 중국학생 홈스테이 교류 등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교환학생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에 지속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중국교환학생을 거친 후 졸업 후 중국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국내 중국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학단계의 교류사례로는 대구대학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대구대학교는 중국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생교류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9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호방문, 학생교류, 문화교류, 연구방문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교환학생프로그램은 1년간 호혜적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교 간 학비 면제, 기숙사 제공 외에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년 이상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도록 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학 중을 이용한 단기언어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문화교류사업을 시작하여 양교의 동아리학생들이 상호방문하여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두고 있다. 이외 2002년부터는 중국인 유학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여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 현재까지 총 264명을 유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부과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로 한국어연

수과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교류프로그램이 다양화됨에 따라 유학생 관리 및 서비스체제를 대폭 강화하여 유학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보면, 동북아 공영시대가 도래하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여 제 1위로 올라선 오늘의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은 폭증하고 있는데 따라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류·협력은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수교 10 여년 만에 교육 교류·협력은 초기 정부기관의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기반을 다져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짧은 기간에 양국 간의 교육 교류는 급속히 신장되었는데 '90년대 중반 양국 정부 간에 문화협정과 교육 교류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초기 기반이 다져진 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이 약정에 따라 양국 정부 간에는 매년 대표단이 파견되어 상호간에 이해를 넓히고 주요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점차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국비 유학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동북아 협력시대의 도래에 부응하여 양국의 호혜적인 발전의 기대도 커지고 상호관심도 폭증함에 따라 유학교육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양국의 유학유형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21세기는 동북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힘입어 한·중 양국은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작년에는 대중국무역량이 최초로 미국을 앞서는 등 급속히 신장되면서 기대치도 커져 유학인구도 대폭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말 일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서도 현재 한국학생의 중국 유학생은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학생의 한국 유학도 이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유례없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한편 유학유형에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정규학위 과정형보다는 언어연수형 등 비정규과정의 유학이 많은 데 비해 중국은 정규학위 과정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교류보다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대학차원의 민간형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일반 학교 차원의 교육 교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의사결정 또는 지역차원의 교류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관 중심 위주 즉,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학교와 대학 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기관간이나 민간형 교육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교육 교류부문에서 중국보다도 한국 측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교류 유형인 유학에 있어 한국의 수요가 중국보다 5배를 초과하고 있어 한국의 중국 유학 수요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동북아 공영의 시대에 부응하고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중국전문가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근의 편리성과 교육경비의 상대적인 저렴성 등도 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육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까지의 교류·협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교육과 대학교육단계에서는 자율의사에 따르고 있어 체계화되지도 못하고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육 교류·협력은 중국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한 교류의 경우도 상당 수 이루고 있

어 영속성이 미흡하고 합리적인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교육적으로 효과가 미흡하고 낭비도 많으며, 한·중 간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향후 중국전문인재가 매우 많이 소요될 것임에 비추어 현재의 접근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바탕하여 한·중교육 교류·협력은 중국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전문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여섯째, 교류사례별로 볼 때 추진경비상, 유학생 관리상, 효과적인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교류기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기관의 지원도 없어 개별 학교가 자체경비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는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유학생의 개인차가 심한데 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한·중 간 교육 교류는 교류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초기단계이다. 더욱이 개별교육기관 간 교육 교류는 더욱 짧다. 하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국가 간 교류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유학생 숫자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초기단계인지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육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국가차원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규모 교육 교류·협력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즘 세계는 통합공동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협력교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 간 공동체형성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이 결성되기 전부터 다양성 속의 하나를 지향하는 교육 교류·협력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교육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유리디스를 창설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소크라테스’, ‘에라스무스’ 등의 교육 사업이 추진되었었다. 대표적 사업인 ‘소크라테스’ 프로젝트는 유럽각국 대학생 및 교수들의 교류와 학교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거나 함께 연구하고 있다.

교육을 매개로 한 인적교류를 통하지 않고는 문화공동체는 형성되기 어렵다. 유럽의 경우는 앞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두 나라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의 경우는 언어의 장벽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어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시급히 교육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지대하다고 하겠다.

둘째, 한·중 간 교육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교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정치경제체제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부가 중국과의 교육 교류를 하나하나 지원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민간형 전문교육 교류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체는 현장의 교육 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 교류 통계 및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사업을 벌여 정부와 민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중교육 교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간 교육 교류에 필요한 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 교육 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기금 ‘한·중교육 교류기금’을 확보하여 한·중교육 교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I

한국과 일본의 교육 교류·협력 실태 분석

1. 현황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맺어진 문화협정(1965년 6월 22일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착실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정부도 한·일 간의 인적교류확대를 강화하기위해 힘을 쏟고 있다. 1988년 2월 한·일 정상회담 때 한·일인적교류확대에 대해 양국은 합의한다. 이어서 1989년에는 양국 간 청소년 교류확대를 위해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사업’을 발족시켰으며, 당초 이 사업을 1989년에서 1993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그 성과가 좋아, 1993년 3월초에는 상당기간 연장하기로 양국은 합의한다.

이와 같은 우호분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은 1995년부터는 ‘평화우호교류계획’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의 역사, 양국의 관계사, 기타 한반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착수한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에서는 청소년 교류의 확대가 합의되어, 구체적으로는 ① 한국의 이공계대학 학부유학생 파견·유학을 한·일공동으로 실시한다.(재학생 수 1,000명 목표) ② 앞으로 10년 동안 1만명을 목표로 중·고생 교류 사업을 실시한다. ③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1999년 4월부터 시작한다 등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월드컵 축구대회 한·일 공동개최의 성공과 그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2002년 7월 1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실시가 합의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13일 실시된 한·일 외무부장관회담에서는 공동프로젝트팀이 결성된 이래, 연2회 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청소년 및 스포츠, 민간차원의 교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노력으로, 2003년 1월 통계에 의하면 자발적인 지방교류가 현저하게 진전을 보여 84건의 자매도시 결연이 맺어진다. 2004년 6월 제 5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금년

부터 신규사업인 ‘일본어 및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공부하는 고교생 교류 사업’을 시작하고, 아울러 각종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양국 간의 청소년 교류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증대시키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한·일국 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내년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 2005’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실행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가. 초창기 교육 교류 현황

1965년의 양국 간의 문화협정에 의해 (1) 제 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2) 재외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 등의 교육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VI-1> 2001~2003년 제 2외국어(일본어)교사 국외연수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연수인원	46명	46명	56명

<표 VI-2> 2001~2003 재외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연수인원	21명 중 일본 8명	19명 중 일본 5명	19명 중 일본 7명

나. 주요 기관별, 교육 교류 및 협력 내용

우리나라에서 국제교육 교류 활동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제교육진흥원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이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며, 그 밖에 각 대학에서도 담당한다. 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국제사회에 전파시키고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이하 주요기관의 현황을 개괄하고, 한·일교육 교류 및 협력에 관련된 사업영역을 비교해 본다.

(1)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육진흥원은 1962년 서울대학교에서 담당했던 모국수학생 지도기능을 모체로 하여, 1977년부터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으로 존재하였다. 1992년 3월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되어 운영해 오던 중, 2000년 8월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고, 2001년부터 재외동포교육실시 및 국제교육 교류·협력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은 (1) 재외동포교육 내실화 (2) 국제교육 교류·협력 (3) 교재보급 및 국제교육정보 제공 (4) 외국인 유학생 국내유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2) 국제교육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으로 ① 국비유학생선발 ②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관리 ③ 한·중·일 교육 교류·협력 ④ 교원직무 연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사업 분야는,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청소년문화교류, 국제협력, 민간협력, 삼성유네스코교육기금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 분야에서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이해 증진, 평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추구, 세계화 시대의 공동가치 모색, 인류문화유산 보호 및 문화 간 이해 증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한·일 간의 교육 교류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육사업: 교육 국제협력 역량강화-한·일 교원연수프로그램 : 한국 정부와 일본 ACCU의 지원 하에, 한·일 양국의 교원들에게 양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주제토론,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년 양국 교원 50-100명을 선발, 방한과 방일 각1회를 실시한다.

- ② 대외협력 및 사업지원(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 ③ 청소년사업: 동북아청년포럼의전단계로서 ‘UNU(유엔대학)Global Seminar Seoul Session’을 개최해 이 지역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④ 유네스코문화교류사업

(3)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1999년 10월 제 30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CEIU)설립 결의문 채택에 이어, 2000년 6월 아·태이해교육원 규정(Statute of ACEIU)신설, 그리고 7월 유네스코 및 대한민국 정부 간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설립협정(Agreement)체결을 거쳐 2000년 8월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위하여 국제이해교육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화와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광범위한 실천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및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국제적 노력의 연계를 장려·촉진하고,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철학, 교수법 및 교과과정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훈련연수과정 및 세미나를 수행하고 있다. 한·일국제교육 교류 사업으로는, 한·중·일 대학생이 참여하는 국제이해교육 체험학습개발과 한·일국제이해학회 교류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4)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법률 제4414호 1991.12.14 제정)에 의거, 1991년 12월 30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국제교육 교류 사업으로는, 일본대학생대표단 초

청과 국내 사회과목 교육자 일본연수 파견 등을 꼽을 수 있다.

다. 유형별 교육 교류·협력의 실태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교류에는, 개별적인 유학을 비롯해 국비유학생파견(일본 공과대학 학부유학생 파견), 정부초청유학생교류, 일본 정부초청유학생교류, 한·일학생 및 교사의 교류, 문화협정에 따른 제 2외국어(일본어) 교원연수 등이 있다.

(1) 유학현황

(가) 유학

<표 VI-3> 2003년도와 2001년도 주요 출신국 별 외국인 유학생 수
(2003. 9. 1기준)

연도	국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러시아	베트남	기타	계
2003.9 기준	유학생수	2,486	5,607	575	631	304	367	2,344	12,314
	비율(%)	20.2	45.5	4.7	5.1	2.5	3.0	19.0	100
2001.8 기준	유학생수	3,565	3,221	1,297	559	358	201	2,445	11,646
	비율(%)	30.6	27.7	11.1	4.8	3.1	1.7	21.0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 국제진흥원.

<표 VI-4> 2003년도와 2001년도의 국가별 한국인 유학생 수
(2003. 9. 1기준)

연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타	계
2001	58,457	21,891	16,372	14,925	10,492	2,711	25,085	149,933
비율(%)	39.0	14.6	10.9	10.0	7.0	1.8	16.7	100
2003	49,047	14,058	18,267	17,339	15,775	9,870	35,547	159,903
비율(%)	30.7	8.8	11.4	10.8	9.9	6.2	22.2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 국제진흥원.

- 위의 자료3의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2001년에 비해 2003년 한국에 유학한 일본인 유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급증하고 있다. 한편 표4에 의하면, 2003년에 일본으로 유학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01년에 비해 숫자적으로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10%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일본으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 수가 한국으로 유학하는 일본인 학생수의 7배에 육박하고 있어, 한국인 학생의 유학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비유학

A. 일본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 대 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만 19세 이하인 자
- 선발인원 : 100명 (2002년 : 122명 선발)
- 유학 관리 인원 : 304명 (29개 대학)
- 장학금 지급 : 수업료, 생활비 등 경비 일체(한·일 양국 각 50%씩 부담)
- 지급기간 : 5년 (예비교육과정 1년, 학부과정 4년)

<표 VI-5> 일본공과대학 학부유학생 교류

구분			유학 대학수	인원(명)			비고
선발년도	파견년도	학년		계	남	여	
1999(1기)	2000년	3학년	23	98	83	15	
2000(2기)	2001년	2학년	26	115	89	26	
2001(3기)	2002년	1학년	24	90	76	14	
2002(4기)	2003년		34	121	102	19	일본예비교육과 정중
계				424	350	74	

자료: 국제교육진흥원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 평가보고서(2004. 2).

- 위 교류 사업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업목적은 ‘학부단계에서부터 학문교류와 인간관계형성을 통한 첨단기술 도입 기반 구축 및 한·일양국의 교류촉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학생 수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100명전후의 한국의 고교졸업생들이 일본의 공과대학에서 수학하며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일 국제교육 교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다) 정부초청 장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과 둘째, 일본정부 초청 한국인 장학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A. 한국정부 초청 외국인(일본인) 장학생

○선발 개요

초청 대상국	선발 인원	선발 과정	대 상	장학금 지급 기간
24개국	54명	석사	학사학위 소지자	2~3년 (한국어연수 6개월~1년 별도제공)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	3~4년 (한국어연수 6개월~1년 별도제공)
		연구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6개월 ~ 1년 (한국어연수 제공하지 않으며, 6개월 연구는 재초청자에 한함.)

※ 선발장학생 입국시기 : 2003. 7~8월 또는 2004. 2월.

○초청인원 : 54명 (2002 : 52명)

※ '67~'03년 총 초청인원 : 79개국 820명

○장학금 지원 : 생활비, 연구비, 정착지원금, 등록금, 어학연수비, 항공료, 유학보험 등

○예 산 액 : 2,419만원(2002: 2,314만원)

<표 VI-6> 1967~2003년도 한국정부초청 일본인 장학생 현황

	1967~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일본	47	1	8	3	3	5	8	11	11	12	12	8	10	10

자료: 국제교육진흥원 통계자료(2003. 11).

- 위 교류 사업은 1967년 대한민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제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 국가 간 상호 교육문화이해, 국제협력 인사 확보 및 대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총 79개국 820명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그중에서 일본인의 경우는 149명으로 약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 장학생들을 초청하여 학문연구 외에도, 설날 명절 체험, 한복 체험 교실, 한지 공예, 외국인 국악학교, 강화도 유적 탐방,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김치 만들기 실습, 변산유적탐방, 도자기 만들기, 국제문화학교, 경주 수학여행, 추석명절체험, 제주도 고적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체험을 통한 교육 교류 효과의 극대화와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B. 일본정부 초청 장학생

<표 VI-7> 1965~2003년도 일본정부초청 장학생 현황

	사업명	1965~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일본 정부 초청	연구장학생	1,284	60	60	56	57	57	1,517
	고등전문학교 장학생	25	1	1	0	0	0	27
	전수학교 장학생	77	7	7	2	4	7	104
	일어일본문화연수 장학생	216	24	27	30	일본이관	일본이관	297
	교원연수생	368	26	26	26	26	26	498
	지방정부초청 장학생	52	4	4	6	2	2	70
	마쓰오육영회 장학생	8	0	0	0	0	0	8
	계	2,030	122	125	120	89	92	2,578

자료: 국제교육진흥원 통계자료(2003. 11).

- 위 <표 VI-7>에 의하면, 일본정부초청 장학생의 종류는 ①연구장학생 ②고등전문학교장학생 ③전수학교장학생 ④일어일문화연수장학생 ⑤교원연수생 ⑥지방정부초청장학생 ⑦마쓰오유크영회장학생 등 매우 다양하고, 초청 장학생수 또한 매년 90여 명에 이른다.
- 이상, 표-6과 표-7의 양국정부초청 장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일본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초청하는 장학생 수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교육 교류·협력에 있어 동반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 일방적인 교류가 아닌 상호균형 잡힌 교육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2) 학술문화교류 및 연수

(가) 중고생·대학생·교원을 위한 학술·문화교류

○ 주요일정 및 내용

- 중·고생 : 학교방문, 학생과의 대화, 공동수업, 문화유적지 견학, 특별활동 등
- 대학생 : 대학방문, 학생과의 대화, 동아리 활동, 특강, 민박, 자유연수, 문화유적지 견학 등
- 교원 : 학교방문, 교사와의 대화, 수업참관, 특강, 민박, 자유연수, 문화유적지 견학 등
- 교류인원 : 2003년 1,090명 (2002년 : 1,111명)
- 시기 : 3월 ~ 11월

<표 VI-8> 2003년도 중고생·대학생·교원의 학술문화교류 현황

구분	파견	초청	계	기간 및 시기
중·고생교류	470(468)	323(327)	793(795)	4박5일(6월~12월)
대학생교류	80(77)	79(80)	159(157)	9박10일(3월~10월)
교원교류	80(79)	71(80)	151(159)	9박10일(5월~11월)
계	630(624)	473(487)	1,103(1,111)	

※ ()는 2002년 실적
 자료: 국제교육진흥원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 평가보고서(2004. 2).

(나) 일본 고등학교 한국어 선택 학생 초청 특별연수

○ 주요일정 및 내용

- 목적 : 일본대학센터시험에 한국어가 2002년도부터 제 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채택된 바, 일본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 2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하여 수학과 있는 일본고교생 및 한국어 교과목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한국문화 및 고적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어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친한 인사를 배양.

○ 인원 : 33명 (학생 28명, 인솔 5명)

○ 기간 : 2003. 08.04~08. 08 (5일간)

○ 주요일정 : 한국어, 한국역사특강, 학교방문, 민박, 전통문화체험 등

○ 효과 : 일본 고등학교 내 한국어 선택 확대 및 한·일 우호증진

(다) 문화 협정에 따른 제 2외국어(일본어) 교원연수

○ 제 2외국어교사 국외연수와 재외한국학교 교원초청연수

- 연수개요

사 업 명	교과목	인 원	기 간	비고
문화협정에 의한 외국어과 교원 국외연수	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114명 (2002 : 102명)	단기 : 1~2개월 장기 : 6개월	
전공교과 교원 국외 연수	과학 및 실업계	168명 (2002 : 171명)	4주간	
2개 사업		260명		

- 연수내용

외국어과 교원의 실용외국어 습득 및 구술 청취능력 배양
 외국어 학습지도 방법 및 교수방법
 과학 및 실업계 교원의 체험중심 직무교육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선진 학습이론 및 실험실습 교수·학습방법 체득

<표 VI-9> 2001~2003년도 일본어교사 연수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연수인원	46명	46명	56명

<표 VI-10> 2001~2003 재외 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연수인원	21명중 일본 8명	19명중 일본 5명	19명 예정

- 이상,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그리고 교원의 학술문화교류 및 연수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중·고등학생의 교류내용은 학교방문, 학생과의 대화, 공동수업, 문화유적지 견학, 특별활동 등이 있고, 대학생의 교류내용은 대학방문, 학생과의 대화, 동아리 활동, 특강, 민박, 자유연수, 문화유적지 견학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연수의 내용으로는 학교방문, 교사와의 대화, 수업참관, 특강, 민박, 자유연수, 문화유적지견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그 외의 교육 교류

(가) 체험연수 프로그램

- 자율체험연수 실시 : 연수단별 1.5일(서울 0.5, 부산 1일)
 대학생 방한 시 도우미 활용으로 거리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
- 한국 전통문화 체험기회 부여(국제교육진흥원 예절실 한복입기, 9회 183명)

(나) 민간단체나 기관 참여 프로그램

- 학교방문 : 49개교 (중학생 9개, 대학생 16교, 교원 24교)
- 민박 : 대학생 및 교원 연수단(방일, 방한) 민박실시(2박 3일)

(다) 지역축제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 청도 소싸움 축제 기간 : 대학생 1단, 20명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간 : 대학생 1단, 교원 1단, 인원 40명.

라. 단계별 교육 교류·협력

(1) 초·중등단계의 교육 교류·협력현황

<표 VI-11> 2003년 서울시 초·중등학교의 일본기관과의 자매결연 현황

	교육청	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기관수	1	2	20	24	64	111

자료: 서울시 교육청(2003년).

- 위 교류협정내용을 정리하면 유형 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사·학생의 상호방문 및 홈스테이
 - ② 수학여행 및 방학 중 학생교류
 - ③ 친선스포츠교류(축구경기, 필드하키, 핸드볼, 야구, 농구)
 - ④ 문화교류 및 전통문화체험(음악회, 아동작품, 미술작품, 합창단)
 - ⑤ 교육자료 교환 및 서신교환(화상교류)
 - ⑥ 추천입학제 및 어학연수
 - ⑦ 국제교환학습
- 위 교류협정내용을 학교 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91. 3. 2 강남초등학교(동작구)와 동서소학교(혼조무라)는 문 화 · 학습 교류를 위한 결연을 체결

- 1992. 4. 1 경희여자중학교는 소료중학교(히로시마)와 문화교류 (음악회)를 목적으로 결연.
 - 2001. 10. 22 고척고등학교는 다카사키 경제대학부속고등학교 와 수하여행시 학생교류를 목적으로 결연.
 - 2002. 8. 30 남산도서관과 니이가타현립도서관은 직원교류와 자료교환 등을 목적으로 결연.
 - 2003. 7. 9 서울시 서부교육청과 미야자키현 교육청은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발전 및 친선도모를 위한 결연.
- 현재, 초·중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교류 및 협력은 시·도교육청 및 도서관, 각급 학교 등 극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 별 학교 별 교육 교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다행히 2003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현황을 조사하여 자료로 남기고 있어 교류현황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교육 교류 및 협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류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교류하고자 하는 기관 및 학교를 연결시키기 위한 일원화된 전담부서 및 전문가가 필요하다.

(2) 일본고등학교의 교육 교류·협력현황

일본고등학교에서의 국제교육 교류,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VI-12> 외국으로의 수학여행

여행국	공립		사립		합계	
	학교수	참가 학생수	학교수	참가 학생수	학교수	참가 학생수
중국	123	22,420	78	14,187	201	36,607
한국	157	22,600	74	12,764	231	35,364
호주	32	4,547	126	21,567	158	26,114
싱가포르	96	15,621	39	5,246	135	20,867
미국	46	5,183	93	15,457	139	20,640
말레이시아	63	10,344	19	2,329	82	12,673
뉴질랜드	19	5,233	28	3,044	47	8,277
...
합계	573	90,867	623	92,119	1,196	182,986

자료: 일본문부과학성, 2002. 5. 12.

- 한국은 일본 국공립·사립고등학교 수학여행 대상국으로 학생수 기준 상위 3개국 안에 들어 있다. 가장 많이 찾는 중국에 이어, 한국은 두 번째에 랭크되어 있다.

<표 VI-13> 자매결연 학교

자매결연 국가명	공립	사립	합계
호주	139	252	391
미국	175	189	364
뉴질랜드	39	176	215
한국	65	111	176
캐나다	26	132	158
중국	62	95	157
영국	18	43	61
...
합계	571	1,136	1,707

자료: 일본문부과학성, 2002. 5. 12.

- 일본 국공립·사립고등학교에서 해외자매교로서 체결하는 협정국순위를 보면, 호주 391개교, 미국 364개교, 뉴질랜드 215개교로 각각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76개교로 뉴질랜드에 이어 4위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4> 학생의 유학

유학국	학교수	유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미국	904	245	1,024	457	1	1,727
캐나다	250	242	252	141	-	635
호주	307	260	277	55	-	592
뉴질랜드	185	327	177	40	-	544
영국	134	60	118	33	-	211
...
한국	5	2	2	1	-	5
...
합계	2,182	1,213	2,110	836	1	4,160

※ 고등학교 4학년은 야간고등학교의 경우임. 야간 고등학교는 4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자료: 일본문부과학성, 2002. 5. 12.

- 일본의 국공립·사립학교학생의 유학 상대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영어권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5개국에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으로 유학하는 경우는 전체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표 VI-15>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출신국	학교수	입학지수			
		정규생	청강생	기타	계
중국	49	230	27	5	262
호주	183	71	170	9	250
미국	197	60	147	17	224
캐나다	72	28	64	5	97
타이	58	25	32	6	63
뉴질랜드	50	17	38	7	62
독일	51	13	38	3	54
몽골	16	40	10	-	50
브라질	37	24	17	2	43
한국	27	25	15	1	41
...
합계	1,041	642	759	77	1,478

자료: 일본문부과학성, 2002. 5. 12.

- 위 표는 일본의 국공립·사립 고등학교에 3개월 이상 유학한 외국인 학생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정규생보다 청강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상위 3개국의 학생으로는 중국, 호주, 미국을 들 수 있고, 한국학생의 경우도 적지만 정규생과 청강생으로서 재적하고 있다.

<표 VI-16> 영어이외의 외국어 개설

외국어명	공립		사립		계	
	학교수	이수자수	학교수	이수자수	학교수	이수자수
중국어	342	11,153	133	7,892	475	19,045
프랑스어	140	3,520	95	4,561	235	8,081
조선·한국어	159	4,527	60	1,949	219	6,476
독일어	54	1,359	46	2,916	100	4,275
스페인어	75	1,609	26	1,175	101	2,784
러시아어	15	273	6	205	21	478
...
합계	804	22,643	390	18,966	1,194	41,609

- 위 표에 의하면, 804개 학교가 개설하고 있는 외국어 과목은 총24개 언어로 중국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랑스어, 조선(한국)어 순이다. 이수 학생 수 또한 동일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본어는 제 2외국어 가운데, 그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의 제 2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치는 다소 미약하다.

(3) 대학단계의 교육 교류·협력현황

(가) 대학 간 교류협정 현황

대학 간의 교류협정이란 양국의 대학 등이 교육·학술의 상호교류의 필요성에 기초해 독자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말하는데, 학부·대학원·연구소 간의 협정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대학에서의 교류내용으로는, 학생의 파견, 학생의 초청, 연구자의 상호교류, 공동연구의 실시,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정보교환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국공사립대학, 국립전문대학, 국립고등전문학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2003년 통계를 참고로 한국과의 교육 교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VI-17> 협정수의 추이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대학공동이용기관	협정총수
1993	1,229	80	1,686	36	3,101
1995	1,649	106	2,077	49	3,881
1997	2,209	140	2,553	44	4,946
1999	2,791	184	3,260	55	6,317
2001	3,823	320	4,540	76	8,879
2002	4,309	355	5,073	124	10,014
2003	4,674	393	5,724	104	11,089

자료: 『2003년도 일본의 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현황』 (자료: 일본 문부과학성 2003. 10. 1).

<표 VI-18> 협정상대국의 상위 5개국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전체
1위	중국(916)	중국(81)	미국(1,287)	미국(2,006)
2위	미국(612)	미국(67)	중국(951)	중국(1,992)
3위	한국(489)	프랑스(63)	한국(525)	한국(1,096)
4위	프랑스(277)	한국(37)	영국(371)	프랑스(705)
5위	태국(277)	호주(19)	프랑스(354)	영국(588)

자료: 『2003년도 일본의 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현황』 (자료: 일본 문부과학성 2003. 10. 1).

- 위 <표 VI-17>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대학에서의 교육 교류협정 현황은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총1만 건에 달하는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최근 2003년에도 약 1,000여 대학과 새로이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표-18에서는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에서는 중국과, 사립대학에서는 미국과의 협정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류협정대학수로는 미국이 1위를, 중국이 2위를, 뒤이은 협정상대국으로는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은 일본 국립대학과 489건, 공립대학과 37건, 사립대학과는 525건의 협정체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숫자 상으로는 활발히 교육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 각 대학 별 교류협정

<표 VI-19> 서울시내 대학 별 교류협정 현황(2004년 현재)

	체결대학수	교류내용
서울대학교	9	교환학생(16명)
연세대학교	25	교환학생
고려대학교	26	교환학생(약55명)
성균관대학교	11	교환학생
한양대학교	8	교환교수(1명), 교환학생
서강대학교	2	교환학생
중앙대학교	3	교환학생(5명)
건국대학교	7	교환교수, 교환학생
경희대학교	29	교환학생
광운대학교	1	교환학생
국민대학교	8	교환학생
동국대학교	6	교환학생
홍익대학교	6	교직원연수, 전시코류, 교환학생

자료 : 각 대학의 인터넷 안내에 의한 조사.

- 대학단계의 교육 교류의 대부분은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부분 1년 동안의 연수기간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교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의 교육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각 대학 국제협력(국제교류)부서의 인터넷안내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각 대학마다 형식이 매우 개별적이고 개략적이어서 구체적인 교육 교류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 이들 자료를 국제교육 교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하에 매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현황’은 시사하는 바 크다.

2. 서울 광남고등학교 사례

가. 추진 배경 및 경과³⁸

본교는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적극적으로 세계 탐구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 이해를 통한 세계 개척 의지와 역량을 배양하며, 예의와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국제시민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기 위한 국제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일차적 과제는 가까운 이웃, 일본의 역사·문화 체험과 자매교류를 통하여 진정한 상호 이해와 정익적(情誼的) 유대를 도모함으로써, 열린 사고와 진취적 비전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본교에서는 2000년 국제 이해의 주제를 ‘가까운 이웃, 일본을 만나자’로 정하고,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 문화 탐구 및 고대 한·일 교류 경로 및 유적지 탐사, 일본 고등학교와 자매 교류 및 일본 학교·가정·청소년 문화 비교 체험을 통한 한·일 우호 증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 5월부터 홍현수 고베시 교육원장의 도움으로 역사·문화적 탐구 활동에 적합한 간사이(關西) 지역의, 본교와 교육환경이 비슷한 남녀공학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류 의사를 타진하던 중, 2000년 9월 오사카 부립 후쿠이 고등학교(大阪府立 福井高等學校: 교장 나가세 나ору)에서 2001년 한국 수학여행 기간 중 본교 방문을 포함한 자매결연을 희

³⁸ 서울 광남고등학교곽석영 선생님이 집필하였음.

망해 음에 따라 양교 교장의 서신 교환을 통해 결연에 합의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일 후쿠이 고등학교 수학여행 제 1차 답사반(기보 주네오 1학년 부장 외 2명)이 본교를 내방하여 양교의 상호 방문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본교 실무진의 자매학교 방문을 초청하였다. 이에 본교는 2001년 1월 답사반을 파견하여 자매학교와 상호 교류 행사 일정 협의(자매결연식/홈스테이) 및 역사·문화 탐방 경로를 답사하게 하였다.

이후 양교는 긴밀한 서신, 전화, FAX, E-mail을 통해 구체적 교류 일정을 협의하였는데, 본교 실무진의 치밀하고 섬세한 계획과 자매학교 측의 신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서로에게 호감과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양교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양교의 교류활동은 다음과 같다.

본교 방일 체험단 활동			일본 후쿠이교 본교 내방 활동			
회수	기 간	인 원	회 수	일 자	인 원	비고
사전 답사	2001년 1월	교사 4명	1차답사	2000. 11. 2	교사 3명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를 볼 수 있음
			2차답사	2001. 5. 22	교사 2명	
			3차답사	2001. 8. 27	교사 3명	
제1기	2001. 1. 28~2. 1	학생 50명 교사 4명	제1기	2001. 10.	학생 240명 교사 10명	정부의 재정적 지원(있음)
제2기	2002. 1. 27~1.31	학생 40명 교사 4명	제2기	2002. 10.	학생 240명 교사 10명	
제3기	2003. 1. 21~1.25	학생 40명 교사 4명	제3기	2003. 10.	학생 240명 교사 10명	
제4기	2004. 1. 27~1.31	학생 40명 교사 4명	제4기	2004. 8. 25	학부모 6명 교사 4명 학생 7명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음)
제5기	2005. 1. 24~1.28(예정)	학생 40명 교사 4명	제5기	2005. 8.(예정)	?	

<후쿠이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osaka-c.ed.jp/fukui/toppage/toppage.html>>.

나. 교류 프로그램 및 내용 개요

학생 교류는 먼저 자매학교를 선정하고, 일본 역사문화체험단 활동을 통한 자매학교 방문 교류행사를 한 후 지속적으로 자매학교와 협력활동을 해 나가

며, 본교 교육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교류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본교와 일본 후쿠이고등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은 2개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광남고의 일본 역사문화체험단 활동(역사문화탐방과 홈스테이)이고, 두 번째는 후쿠이고의 한국 수학여행 중 본교 방문활동(환영프로그램 운영과 홈비지트)이다.

(1) 일본 역사문화체험단의 방일 활동

본교에서는 일본문화체험단(학생 50명, 지도교사 4명)을 편성하여 2001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본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한 이래, 이미 예정되어 있는 2005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 까지의 활동을 포함하면 모두 5차례의 체험단활동을 가지게 된다.

여행 경로 선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멀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일본을 실감하게 할 의도로 갈 때는 2일 간의 뱃길을 따라 긴 시간을 향해하고 올 때는 2시간의 항공편을 택해 순식간에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물론 동일한 교통편의 왕복 요금보다 경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코스가 필수적이었다.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두 권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걸으며 한국을 본다』(진병팔 저, 청년정신 간)를 통해 우리의 여정이 조선통신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 기행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먼나라 이웃나라』일본편 7, 8권(이원복 저, 김영사 간)을 읽고, 일본인과 일본 역사에 대한 균형잡힌 인식을 담고 여행에 나서게 하였다. 또한 4차례의 연수를 가지면서 일상 일본어 회화를 입에 익도록 강조하였다. 각 조별 탐구과제와 ‘한국알리기’ 주제를 준비하게 하고, 부관페리선상에서 그 동안의 학습을 점검하는 일본대탐험 퀴즈대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간단히 2004년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된 체험단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국도를 중단하여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국제여객선 부두에서 부관페리호를 타고 밤사이 대한 해협을 건너 일본 시모노세키

에 도착하였다.

시모노세키의 일청강화조약기념관(春帆樓: 청일전쟁의 승전국 일본의 이등박문과 청국의 리홍장 사이에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된 장소)과 고쿠라성을 둘러 일본의 중세와 조선통신사의 자취를 확인하고 신모지항으로 이동하여 한큐훼리호를 타고 세토나이내해의 야경을 감상하며 오사카로 향했다.

海遊館에서 환상적인 바다 세계를 체험한 후, 오사카성을 방문하였다. 16세기 말 일본의 천하통일을 추진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규모 성 축조공사가 시간을 건너뛰어 생생하게 펼쳐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석공, 목공, 대장장이, 길을 뚫고 바다 위 뗏목으로 운반한 거대한 바윗돌, 요도가와의 물을 끌어들이어 만들었다는 이중의 해자, 현재 크기의 5배에 달했다는 거대한 성의 위용과 채 2대를 守成하지 못한 토요토미家の 몰락이 권세의 무상을 돌아보게 했다.

자매학교와의 약속시간에 도착하느라 이바라키[茨木]市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학생들은 홈스테이 파트너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로 흥분해 있었고,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둔 우리 인솔교사들도 조금씩 긴장되는 듯 싶었다. 자매학교가 자리잡은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하남시쯤의 한적한 교외로 우리학교의 5~6배쯤 넓은 공간에 대운동장이 두개, 야외 수영장이 하나, 그리고도 학교 뒤는 커다란 시립 운동장이 또 하나 있어 그 규모가 일단 부러웠다.

서투른 대로 꽃으로 장식한 환영 입간판과 교문 앞에서부터 아루어지는 자매학교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 모습에서 안도와 함께 행사가 잘 치루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행사장에서의 우리 학생 40명의 교가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렁차게 강당에 울려 퍼졌다. 외국에 나가면 절로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실감났다. 한국에 있을 때는 지켜올 정도로 잔소리가 필요한 녀석들이 이런 무대에서는 진지하게 앞가림을 할 줄 아는 게 대견스러웠다.

자매결연행사에 이어 소강당에서 홈스테이 파트너들과 짝을 짓는 프로

그럼에서도 명찰 뒤에 깨알같이 적어둔 몇 마디 일본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말문을 여는 쪽은 우리 학생들이었다. 이럴 때는 누가 손님이고 주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외부와의 교류가 많지 않은 조용한 마을에 발랄한 우리 학생들이 자매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피워내는 작은 소란을 자매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들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양교 학생들>

학생들이 홈스테이 가정으로 짝을 지어 떠난 후 우리 학생들이 잘 해낼까? 혹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으나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자매학교의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오늘을 위해 네 차례나 학교에서 모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짧은 하룻밤 동안 어떻게 하면 많은 걸 보여줄까를 고심했다고 하니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다.

다음날, 함께 등교한 본교 학생들은 자기 파트너와 함께 1교시 수업에 동참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하룻밤 새 만리장성이라도 쌓은 듯 어찌나 친근해졌는지 수업종이 울려도 서로 떨어질 줄 모르고, 버스가 떠날 때는 이산가족이나 되듯이 눈물바다를 이룰 정도로 아쉬워하였다. 숨김없고 막힘

없는 이들 천연의 ‘젊음’이 참으로 부러웠다. 한 집에서 함께 잠자고, 한술 밥을 먹는 정으로 비록 하룻밤이지만 뜨겁게 사귀라고 마련한 홈스테이 행사는 자매학교의 정성어린 준비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일본인들은 좀처럼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집을 공개하는 걸 꺼려서 홈스테이는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이번 홈스테이는 국제이해 프로그램의 으뜸으로 손꼽을 만했다.

교토는 중세와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였다. 현대식 건물과 교통 수단으로부터 한 걸음만 나디디면 바로 중세의 품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부러웠다. 이조성, 금각사, 평안신궁, 청수사, 교토 박물관, 교토역사 전망대와 이세탄 백화점을 견학하고 일본 전통 다다미방 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동대사와 법륜사, 쇼핑 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벌써 일본을 떠날 시간, 간사이공항에 도착하니 일본에서의 일정이 끝난 아쉬움에 우리 학생들은 허전해 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귀로는 너무 싱거웠다. 비행기에 오르고 저녁 식사를 마치는가 싶더니 서울 상공이었다. 환호성을 지르는 녀석들은 ‘속았다’는 표정이다. 그토록 먼 길을 돌아서 간 오사카가 불과 1시간 40분 거리밖에 안 되다니……, 그러기에 ‘가까운 이웃, 일본을 만나자!’고 하지 않았던가.

(2) 일본 자매학교의 본교 방문 교류 행사

2001년 5월 22일 자매학교 수학여행 2차 답사반(1학년 주임교사 사쿠라모토, 쓰지 코지로 선생님)이 본교를 방문하여, 자매학교 수학여행단 240명의 10월 31일 본교 방문 및 교류회 일정을 협의하였는데, 홈 비지트를 신청한 학생이 80여명이며, 양교 학생들의 선물교환 수준은 한화 5,000원 내외의 자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8월 27일 자매학교 수학여행 3차 답사반(나가세 나오루 교장, 사쿠라모토, 쓰지 코지로 선생님)이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본교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일본 우익단체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빚어진 한국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혹시 양교의 교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자매학교는 이전에도 서신과 환영사를 통해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한국인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누차 사과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후쿠이교가 채택한 역사교과서(왜곡되지 않은 책)를 보내주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본교에서는 자매학교의 서신과 보내온 역사교과서의 주요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양교의 교류 전개 과정을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자매학교와의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돌출하였으니, 바로 9.11테러와 탄저균 소동으로 인한 외국여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국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자매학교의 한국 방문도 무산 직전까지 갔으나, 수차에 걸친 학부모-교사 연석회의에서 그 동안의 우의와 양교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강행을 결정하였다.

2003년 10월 31일 일본자매학교 본교방문단의 타임캡슐 및 홈페이지트행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후쿠이고등학교 240여명의 수학여행단이 3박 4일 짧은 여행일정 가운데 한나절을 본교와의 교류 행사에 큰 기대를 걸고 10월 31일 오후 1시에 본교를 방문하기로 되어있다. 일본 학교보다 좁은 공간과 불편한 시설에서 어떻게 손님을 치르나 참으로 걱정스러웠지만 세심한 정성과 아기자기한 준비로 ‘감동’을 선물하기로 하였다.

학생회에서는 10대의 눈높이에서 갖가지 함께할 프로그램을 구상하느라 연일 아이디어 회의가 열리고, 만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또한 본교 축제인 슬기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공연팀들에게 일본학생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다듬게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체험단의 일본 방문 때의 환대에 감사하다며 간식과 음료들을 푸짐하게 준비해 주었다. 또한 본교에서는 타임캡슐 봉안을 일본자매학교 교장 및 학생대표와 함께 하기로 했기에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양교 파트너끼리 풍선아트놀이 장면>

교문부터 도열한 본교 코스프레(만화 주인공 분장) 동아리와 학생회, 그리고 선생님들의 환영 속에 자매학교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자리에 정열하는 동안 교장선생님과 학생대표는 타임캡슐 봉안식에 참여하여 본교 대표단과 함께 역사적인 행사를 치루었다. 물론 캡슐 안에는 자매학교 학생들의 문집도 함께 봉안하며 20년 후 개봉식에 참여하고자 약속도 하였다. 홈비지트를 희망한 학생들은 1:1, 2:2로 50쌍이 짝을 지어 앉고, 나머지는 일본어 반 학생들 중 희망자 200여명이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같은 숫자를 단 자매학교 학생의 파트너가 되어 3시간 동안 함께 하였다.

지난 1월에 만난 후 재회한 파트너들은 손을 마주잡고 강충강충 뛰며 반가와 했다. 한국어 일본어로 사회로 ‘상호 소개 시간’과 ‘등 두드려주기’, ‘요술풍선으로 파트너 꾸미기’ 경연 등으로 꾸며진 제1부 ‘만남의 장’ 행사에서 가까워진 양교의 학생들은 제 2부 ‘환영의 장’과 제 3부 ‘축하의 장’ 공연을 함께 즐기고, 제 4부 ‘친교의 장’에서 홈비지트 가정으로 떠났다.

<광남고-후쿠이고 양교 학생 교류행사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활 동 사 항
1부 행사 [만남의 장]	13:30-14:00	타임캡슐 봉안식	•양교 대표단 참가
	13:30-14:00	운동장 도열 마중 및 행사장으로 안내	•정해진 통로와 지정 안내자를 뒤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행사장으로 입장
	14:00-14:40	홈비지트 파트너 상면식	•정해진 번호에 따라 지정석에 앉고 •사회자가 이름 호명하면 함께 인사
2부 행사 [환영의 장]	14:40-15:40	교류회 기념식	
3부 행사 [축하의 장]	15:40-16:00	환영 음악회	•광남고 실내악단
	16:05-16:25	힙합댄스 공연	•힙합동아리 FREEZE
	16:30-16:50	후쿠이고의 답례 공연	
4부 행사 [친교의 장]	17:00-17:30	그룹 미팅	HOME VISIT 출발 •광남고학생 2명+ 후쿠이고학생 2명 (희망자 접수 50가정)
	17:30-21:20	수학여행본진 별도프로그램	HOME VISIT 한국가정 체험 •가족소개, 저녁식사, 학습환경 체험, 취미·레저활동(예: 볼링, 산책, 쇼핑, 게임, 등), 대화, 관심분야 안내
	21:30-22:10		HOME VISIT 종료 •21:30광남고 집합 및 숙소로 이동

짧은 4시간 동안이었지만, 홈비지트 가정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저녁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방문 학생들을 극진히 환대하였다.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이나 참가 학생들이 홈비지트가 너무 좋았다고 자랑을 해서 홈비지트를 신청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후회하게 했다고 한다.

특히 전동 휠체어를 탄 불편한 여학생을 맞이한 가정에서는 온 가족과 차량 두 대를 동원하여 지하철, 롯데 월드, 테크노마트 등을 막힘없이 구경시켜 줌으로써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다. 일본 자매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전해들은 갖가지 진기한 후일담은 새삼 우리 광남 가족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합심단결을 실감케 해 주었다.

자매학교의 거듭되는 감사인사와 자매학교 홈페이지에 수학여행 일정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본교방문 행사를 극찬한 내용을 보고 다행히 본교방

문 행사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다. 성과

일본을 다녀온 이틀 후, 사업차 서울을 방문한 자매학교 학부모회 부회장께서 바쁜 시간을 내어 본교를 방문하였다. 그는 자매교류행사와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한동안 이바라기시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10월 말의 한국 수학여행도 일본학생들에게 뜻깊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있었다. 우리 학생들의 예의와 적극성을 인상 깊게 본 일본 자매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과찬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흐뭇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자매학교가 2001학년도 제 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낭보가 있었다. 민단신문 정영순 기사는 항공우편으로 이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내주면서 한국학생들이 보여준 훌륭한 태도가 교육과정편성위원들로 하여금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게 했다는 뒷얘기를 전하면서, 일본학교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기뻐하셨다.

우측의 신문 기사는 2001. 2. 7(수) 민단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한국의 광남고등학교와 자매제휴를 맺은 오사카 부립 후쿠이고등학교가 2000. 4. 1 새학기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행사를 취재한 민단신문의 정영순 기자께서 항공우편으로 보내준 것임



자매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민감한 갈등(예: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도 즉각 해소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과거 침략사에 대한 자매학교의 사과 부분>

본교 방일 대표단에 대한 나가세 교장의 환영사 <2001. 2. 30>에서 “……20세기 전반기 군국주의 일본의 무력 지배로 인해 귀국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큰 오점이었고, 그 외에도 양국관계에 불행한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귀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존경과 친밀감을 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자매학교의 입장과 유감 표명>

① 자매학교가 FAX를 통해 본교에 보낸 편지 <2001. 5. 15>에서 “……요즘 일본의 무서운 역사교과서가 한국민과 일본국민 간에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 문부성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검인정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학생들이 일본이 2차대전 중에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더욱 더 엄격하게 진실을 가르칠 것입니다.……”

② 역사왜곡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의 편지 <2001. 7.16>에서

“……최근 교과서 문제가 원인이 되어 한·일 간에 여러 교류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어왔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동시에 일본에서는 일부 우익적인 사람들과 그 선전에 놀아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드는 데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교의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본의 많은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장래 일본사회의 중심이 될 청소년들이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 기회를 갖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이 교류를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본교의 일본 자매학교와의 교류활동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일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높였으며, 국제사회 첫 진출에서 얻은 감동과 식견으로 새로운 자신감을 배양하였고, 순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민감한 갈등(예: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도 즉각 해소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나아가 홈스테이 등, 정(情)을 나누는 교류행사를 통해 양국 청소년간의 진정한 상호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라. 문제점

자매학교와의 교류활동은 먼저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단활동 목적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참신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홍보해야 하며, 체험단 선발과 경비 사용 계획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 의견, 조언,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사의 업무과다 문제이다. 가르치는 활동 외에 부가적인 일을 해야 하므로 업무의 과다가 문제이긴 하지만, 교사의 열정과 끊임없는 관심이 결국 우리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면 업무과다 마저도 마다 않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학생선발, 국제교류에 관한 소신, 철학, 열정을 겸비한 정예 교사진으로 구성하여, 치밀한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 생산적인 계획-준비-실행-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체험단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와 자기주도적 탐구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는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몇 차례의 사전교육, 주요 관심사와 집중 탐구과제를 부여하여 꾸준하게 관심을 유도하고, 사전지식을 바탕

으로 초보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외국어회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네 번째는 자매학교와의 효율적인 교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상대 국가의 교육과정, 학제, 제약사항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매학교학생들과의 직접 교류 실현에 비중을 두고 탐방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자매학교 선정과 교류에 모든 유관기관, 해당국 주한대사관, 학부모 자원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 과제, 건의사항

본교는 2000년의 일본문화체험프로그램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2001년의 국제이해주제를 ‘중국, 대륙의 숨결을 느낀다.’로 정하고 중국역사문화체험단 40명을 인솔하여 북경 방문과 회가학교 자매결연을 성사시켰으며, 2004년 1월까지 모두 4차례의 일본역사문화체험단 활동과, 2차례의 중국역사문화체험활동, 3차례의 자매학교 본교 방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이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본교의 자랑스런 특색사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향후 과제로서 수학여행단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유학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교는 모든 조건이 맞는 학교(중산층 가정,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기 때문에 일본체험단활동이 가능했다. 이런 활동이 모든 학교에까지 일반화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기에 열악한 조건을 가진 학교에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생선발은 학교에 일임한다하더라도 활동경비의 일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자라나는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본교는 여러 조건이 맞는 학교이기에 이제는 소수의 일본체험단이 아닌 대규모의 수학여행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본교는 교과서에서의 공부를 실제 살아있는 체험교육을

로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경우 재정적으로 보조를 했었다. 본교의 자매학교인 후쿠이고도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으며, 본교와 학생교류회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본교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대규모의 수학여행을 실시하게 된다면 소외되는 학생이 없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학교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3. 서울 잠실고등학교 사례³⁹

가. 방문목적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후 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자매결연교인 가나가와현 현립 하시모토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하시모토고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일본 전통음악과 공예체험, 그리고 홈스테이를 통한 일본 문화체험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음.

나. 방문동기 및 배경

가나가와현을 방문했던 우리나라의 교육계 인사가 하시모토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실고등학교를 추천해서 연결이 시작되었다. 2002년 1년동안 팩스와 편지를 통하여 교류추진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접촉이 있었고, 2003년 10월에 나가노 다카코 교장과 교류추진실무담당인 가쿠다 준선생이 직접 잠실고를 방문하여 교류추진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 때 조인식 합

³⁹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의 문서와 교류형태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합의를 본 주요사업추진내용은 격년제로 홈스테이를 통한 학생교류를 하여 상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직접 체험, 비교하고 해당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상호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에 2003년 8월 27일 일본 가나가와현 현립 하시모토고등학교 교장 및 국제교류담당교사 2명, 학생 13명이 우리학교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조인식을 갖고 4박 5일동안 홈스테이를 통한 한국가정문화 체험과 우리학교의 영어, 일본어 수업참관, 전통대금시연, 아리랑 장단에 따른 장구체험, 잠실제관람, 시내고궁답사 등의 행사를 마치고 돌아간 바, 이에 2004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답방을 하여 하시모토고교의 영어, 수학수업참관과 일본 전통음악체험, 유리공예체험, 홈스테이를 통한 일본문화체험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가나가와현립 교육청과 사가미하라시청에서 한국교육전반과 우리학교의 교육활동에 관한 교환치를 요청해오에 따라 한·일 간의 정보교환과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고자 참여하게 됨.

다. 방문지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하시모토고등학교

라. 방문자

잠실고등학교 교장 ○○○

<2004학년도 일본 하시모토고등학교 방문 학생명단>

순	年	組	名 前	漢 字	여권
1	2	2	김○○	金○○	ok
2	2	10	전○○	全○○	ok
3	1	2	김○○	金○○	ok
4	1	5	이○○	李○○	ok
5	1	7	김○○	金○○	ok
6	1	10	최○○	崔○○	ok
7	1	14	정○○	鄭○○	ok
8	2	3	조○○	趙○○	ok
9	1	13	윤○○	尹○○	ok 學生會 副會長
10	2	6	고○○	高○○	ok
11	2	7	김○○	金○○	ok
12	2	10	윤 ○	尹 ○	ok
13	2	11	정○○	鄭○○	ok
14	2	10	고○○	高○○	ok 學生會 會長
15	2	12	오○○	吳○○	ok 學生會 副會長

<인솔교사 및 업무분장>

연번	담 당	담당업무	비 고	
1	김○○	단장	인사말 준비 (도착후 + 귀국전)	
2	김○○	부단장	기념품	학생 인솔/안전
3	현○○	총괄기획	여권/비자, 비행기표, 비상약품	학생 인솔/안전

<준비 및 유의사항>

- ① 민박 - 15명 학생 전원 홈스테이
- ② 학생 대표 - 고우형(인사말과 귀국전 감사의 말씀 준비)
- ③ 학생 부대표 - 오성민(학생들 인솔시 시간관리 및 비상연락 책임)
- ④ 비상약품 준비
- ⑤ 체험 학습 후 보고서(여행 후기) 작성
- ⑥ 분실 미연 방지 - 학생용돈 과다 불필요, 귀중품 지참 금지, 필기도구
- ⑦ 학부모 설명회 - 12월 23일(화) 오후 3 : 00 교장실→사정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마. 주요방문일정

월/일(요일)	여 행 일 정
1/7(수)	· 서울출발, 일본 하네다 공항 도착하여 하시모토고교로 이동, 환영회 참석 후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정으로, 교사는 하시모토시티호텔에 투숙
1/8(목)	· 오전 : 일본학생들과의 간담회 및 일본전통공예 체험 · 오후 : 하시모토교장과 함께 가나가와현 교육청 방문, 양국의 교육상황 등 교환회 후, 학생들과 함께 사가미하라시청 초청 만남의 자리를 갖고 부시장이하 간부 3명 등 접견.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질의 응답과 사가미하라시 소개시간을 갖은 후 아사히신문, 가나가와신문 등과 인터뷰
1/9(금)	· 오전 : 학교소개비디오관람 후 학생들과 함께 3개 팀으로 나뉘어 수학, 영어, 검도,居승(이아이)수업 참관 · 오후 : 일본 전통음악 체험 및 하시모토고교특색사업인 검도,居승(이아이) 체험의 시간
1/10(토)	하시모토고교 동창회 및 PTA주최 동경관광 (에도동경박물관, 아사쿠사절, 후지TV방송국, 오다이바 일원)
1/11(일)	8시 30분에 하시모토역 집합 후 홈스테이가정학부모, PTA회장 및 간부, 교직원,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체재 중 답례의 인사가 끝난 후 2시 아시이나비행기탑승, 4시 30분 귀국

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현립 하시모토고등학교

우편번호 229 - 1103

日本國 神奈川県 相模原市 橋本8-8-1

TEL 042(774)0611 FAX 042(771)1176

홈페이지 <http://members.jcom.home.ne.jp/hashiko/>

○가나가와현립고등학교

○학교장 : 永野 多嘉子(나가노 다카코)

○1979년 개교, 2003년 현재 1, 2학년 6개학급, 3학년 7개 학급 남학생 287명, 여학생 469명 계 : 756명

○학교 기장(旗章) : 느티나무 잎 (사가미하라시의 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강인한 생명력, 느긋하고 의젓한 아름다움을 가진 인간으로 육성하려는 바람이 담겨 있다.

- 교육목표 : 건전한 심신과 넓은 안목,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세계평화와 번영에공헌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한다.
- 교직원 : 교장 1, 교감 1, 교사 45, 학교의사 1, 양호교사 1, 행정실과 학교경비원 등 24명 계 76명
- 학교특색사업 : 남학생은 검도, 여학생은居스를 체육시간에 익히고 있고, 대회에서 다수 수상하고 있음. 특히 국제 교류부장을 비롯한 국제교류부 교사를 6명을 두어 한국 잠실고와 미국 알래스카주 레이스를립고등학교와 교류를 하여 국제이해교육에 힘쓰고 있다.
- 주요학교행사
 - 4월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입학식
 - 5월 : 사회견학, 1학기 중간고사
 - 7월 : 1학기 기말고사, 구기대회(球技대회)
 - 7월 22일 - 29일 여름방학
 - 8월 : 해외연수(2003년부터 잠실고 오픈스쿨)
 - 9월 : 체육대회, 학교축제(文化祭)
 - 10월 : 수학여행, 2학기 중간고사
 - 11월 : 예술감상회
 - 12월 : 2학기 기말고사, 무도대회(武道대회)
 - 12월 24일 - 1월 7일 겨울방학
 - 1월, 2월 : 모의고사, 종합학습시간
 - 3월 : 졸업식, 학년말고사, 구기대회(球技대회) 3월 26일 - 4월 6일 학년말 휴업
- 클럽활동 : 운동부(축구, 검도 등 16개 부서) + 문화부(다도, 취타악 등 7개 부서)
- 졸업생진로현황(314명) : 4년제대학 - 163명, 전문학교 - 82명, 공무원 등 취직 9명 진학준비(재수생 등) 60명

○ 교육과정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학년	國語語總合			지리 B			수학 I			수학 A			화학 I			체육			보건			음악 I 미술 I 書道 I (선택)			영어 I			家庭總合			종합학습			L H R					
2학년	국어 표현 I			세계사 B			수학 II			물리 I 생물 I 지학 I (선택)			체육			보건			음악 II 미술 II 서도 II (선택)			영어 II			家庭總合			정보 A			선택 A			종합학습			L H R		
3년문과	이과 기초			체육			reading			종합학습			현대문			정치경제			윤리			세계사 B 일본사 B (선택)			선택 B			선택 C			선택 D								
3년이과													현대사회			수학 III 總合數學 (선택)			수학 C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학 II (선택)																	

- ※ 종합학습시간에는 집중강의방식으로 행해진다
- ※ 이외에 3학년에 한해서 櫻美林대학에서 2단위까지 받을 수 있다
- ※ 선택과목은 변경가능
- ※ 이 외에 相原고교와 학교간 연계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
- ※ 선택A : 고전, 수학B, 생물 I, 음악 I, 미술 I, 서도 I, 실용영어, 기초영어, 푸드디자인 중 1과목 선택
- 선택B : 고전, 고전강독, 일본사B, 수학II, 화학II, 생물II, 유아교육
음악, 실용서, 비주얼디자인, 발달과 보육, Writing 중 1과목 선택
- 선택C : 수학 I, 수학B,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학II, 음악III, 미

술Ⅲ, 서도Ⅲ, 영어구조의 이해, 장문독해, 국제이해 중 1과
목 선택

선택D : 국어표현Ⅱ, 현대문연구, 고전연구, 테마세계사, 일본사사료
강독, 지역연구, 테마정치, 경제, 수학특강, 물리 I, 생물 I,
지학 I, 검도, 居合道, 공예 I, 음악일반, 기악연주, 응용서,
말하기·듣기(oral) I, 영어구조이해, 장문독해, 정보B, 정
보C, 복식문화 중 0--4단위 선택

사. 수업참관

- 수학 : 현재 1학년 수학수업시간. 전 수업 시간 후 과제를 주고 본시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수합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수업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었음
- 영어 : 1학년 38명을 반으로 나누어 문법시간을 선생님 두 분이 각각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소수정원 수업으로 효과가 있었음. 1
주일에 문법 2시간, 독해 및 회화 위주의 수업 3시간을 하고 있음. 앞
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하라는 문부성의지시가 있다고 함
- 체육 : 학교특색사업으로 체육시간에 전교생에게 남학생은 검도, 여학
생은 居合를 시키고 있음. 예절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대회에 나가 많
은 수상을 하고 있어 인기과목이 되었음. 검도와 居合를 가르치기 위
해 체육교사들이 자비로 학원을 다니면서 술선하여 익혔고 6단을 판
교사도 있고, 교장도 초단을 땀다고 함.
- 음악과 미술 : 12월 31일에 진행되는 가요홍백전 프로그램을 녹화하
여 일본 홋카이도지방의 민요 トッコイシヨ(Dokkoisho)를 締め太
鼓(시메다이코 = 전통북으로 비싸서 학교에 1개만 비치되어 있었음)
를 치면서 체험한 후 우리민요 아리랑이 일본음악교과서에 실려 있어
서 피아노 반주로 다 같이 합창. 미술시간에는 손톱 깎기를 장식하는
유리공예를 체험.

- 학교소개 비디오 : 학교의 연중 교육활동 전반을 순박하게 찍어서 소개한 비디오는 화려한 전문가의 맛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모습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짜임새 있고 내용이 알찬 비디오 홍보물임.
- 하시모토고교 선생님들 : 일본의 공립고등학교는 1개교에 15년까지 근무가능하고 대개 10년마다 학교를 옮긴다고 함. 우리나라처럼 1교사 1컴퓨터 보급체제는 아직 요원하다고 했고 한국교육이 IT에 있어서는 1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칭찬하며 부러워함. 강당에서 전교생에게 소개 시에 잠실고 교가제창이 있었는데 이는 하시모토고 교장도 몰랐던 것으로 음악교사와 밴드부가 스스로 연습하여 연주하였음. 타국, 타교에서 교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서 있는 잠실고 대표학생들은 한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왔음. 우리도 사전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俵 万智(타와라 마치)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短歌 歌人으로 NHK방송에서 특집프로그램을 만들 정도인데 이 학교 국어교사임. 사람들은 하시모토고교라고 하면 ‘아하! 그 타와라마치 歌人이 근무하는 학교’라고 할 정도임.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의 모습이 업무에 철저하고 근면성실하게 보였으며 특히 순박하다는 느낌이 강했음.
- 하시모토고교 학생들 : 사가미하라시에 위치해 있으나 도시학생답지 않고 순박하게 보였으며 한국학생과 다른 점은 두발모양이 자유롭고, 여학생들이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별실에서의 실내화착용 등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과 친구, 선후배 사이에서 남을 배려하는 모습 등은 일본교육의 힘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 홈스테이 가정 : 대부분 학교에서 40분 이상 떨어진 시골마을에 사는 가정이어서 서울대도시에서만 생활해 온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는 시골의 한적함과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더없는 기회였다고 봄. 특히 아이가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도 홈스테이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교육에의 협력모습은 하시모토고교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여겨짐. 오후에 학교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잠실고 학생을 위해

張り繪(하리에 : 일본 전통 한지를 이용한 그림) 체험, 새벽 5시 후지산 등반 체험 등을 계획하여 홈스테이가정에서도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자매학교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함.

아. 동경시내 일대 관광 : 하시모토 고교 학부모(D.T.A)의 주관 실시

- 에도동경박물관 : 1993년에 개관하여 잊혀져가는 에도 도쿄의 역사 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쿄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봄으로써 미래의 도쿄를 생각하는 취지로 도서실과 영상홀, 영상라이브러리가 있고 도민에게 대출하는 대출시설로서 개방하고 있다.
- 아사쿠사절 : 붉은색 큰 제등을 매단 가미나리 문과 전통적인 정취가 남아있는 옛 시가지. 도쿄 도 ‘다이토 구’, ‘스미다 강’ 서안에 위치한 ‘아사쿠사’는, ‘센소 절 몬젠마치 (신사나 절 앞에 발달한 시가지)’로 발전해 왔으며, ‘긴자’,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와 함께 도내 유수의 변화가이다. ‘센소 절’의 역사는 오래며, 약 1370년 전 어부 형제가 ‘스미다 강’에서 관음상을 발견하여 모신 것이 그 기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가미나리 문’이라고 씌어진 빨간색 큰 제등을 매단 ‘가미나리’ 문이 이 지역의 심볼이며, 일년 내내 참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센소 절’ 문 앞에 펼쳐지는 ‘나카미세 거리’는, 절부채와 일본 종이로 만든 소품 등, 일본의 전통적인 정취를 담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즐비하며, 외국 관광객들의 쇼핑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 거리이다.
- 오다이바 : 신교통 시스템 유리카모메 연선에 있는 도쿄에서 가장 새로운 놀이장소. 도쿄 도 남동부, “도쿄 만” 매립지에 탄생한 ‘다이바’는, 도쿄에서 가장 새로운 놀이장소로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다. ‘다이바’라는 이름은, 1853년에 미국에서 페리 제독이 지

휘하는 ‘구로후네(흑선)’가 내항함으로써, 당시 ‘에도’라고 불리고 있던 도쿄를 방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급히 축조된 해상포대가 이곳에 설치된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

‘다이바’의 중심은 ‘아쿠아 시티 오다이바’로, 약 300미터나 되는 브릿지가 있는 쇼핑몰 및 최신 음향과 영상설비를 구사한 대형 복합영화관 멀티플렉스 시네마, 1만 5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일본 최대급의 식당가 외에, 인기 TV프로그램의 세트를 견학할 수 있는 후지테레비 스튜디오 등이 있다.

‘다이바’의 주요 관광지는, ‘신바시 역’에서 ‘레인보우 브릿지’를 지나 ‘다이바’로 이어지는 신교통 시스템 ‘유리카모메 연선’에 있으며, ‘레인보우 브릿지’를 바라보는 ‘오다이바가이힌 공원’ 외에, 18세기 유럽의 거리풍경을 모델로 한 내부 장식으로, 140여개의 점포를 수용한 ‘여성을 위한 테마파크’ 팔레트 타운 등 새로운 시설이 많이 있다.

자.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청 방문 교환회 와의 접견

- 일시 : 1월 8일(목) 14:00~15:00
- 장소 :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청
- 접견자 : 고교교육과장 田邊 克彦(다나베 가츠히코)외 3인
- 주요 대담내용
 - 양국 학교의 전반적인 특색교육 내용
 - 양국의 교육개혁 및 입시교육, 제 2외국어교육, 수학여행
 - 한국의 평준화 고교, 특수목적고
 -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계에서 힘써야 할 일

차.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청 방문 교환회

- 일시 : 1월 8일(목) 16 : 00 - 17 : 00

- 장소 : 사가미하라시청(☞아사히신문, 가나가와신문, 경제신문등 취재 및 인터뷰)
- 접견자 : 기노시타 부시장, 문화국제과 오오후사 과장 및 하시모토주임
- 주요 대담내용
 - 사가미하라시 소개
 - 사가미하라시와 송파구청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한국의 제 2외국어 교육실태 및 일본문화개방

카. 맺는말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 문화 체험학습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학교로서는 무척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도 입시 위주의 단순 암기 교육에서 탈피한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으로 2세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맞게 우리보다 선진 국가인 일본의 자연 환경관리, 학교 생활, 외국 학생들의 가정 생활 등을 체험토록 하여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생각을 길러 주고자 계획하였다.

금번 외국 학교와의 재매결연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바른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이 내면화되도록 잘 되어 있어 어디를 가나 질서가 있고 청결한 모습을 교원과 학생이 함께 느꼈다.

둘째, 지역사회,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의 외국과의 자매교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이런 교류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자치 지역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잘하는 일이라고 느꼈다.

셋째, 일본이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국민들이 내핍생활과 자신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외화내빈의 우리 국민들의 생활태도는 크게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느꼈다.

금번 일본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방문 체험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

육도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이 보다 충실히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건국대학교 사례

가. 추진배경과 경과

국제화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건국대학교는 16개국 63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인적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19개교, 중국 13개교, 일본 7개교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과는 1976년에 오비히로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총 7개 대학과 결연을 체결하여 양 대학 간에 학생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자매결연대학과 결연체결연도이다.

<표 VI-20> 협정체결 대학

대학명	체결일시
오비히로대학(帶廣大學)	1976年
쓰쿠바대학(筑波大學)	1990年
마쓰야마대학(松山大學)	1993年
니이가타공과대학(新潟工科大学)	1998年
도쿄농공대학(東京農工大學)	1999年
메이카이대학(明海大學)	2000年
교토대학(京都大學)	2002年

이상의 대학과 맺은 협정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①교원교류 ②학생교류 ③공동연구 및 그 외의 학술활동 ④간행물교환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오비히로대학·마쓰야마대학·메이카이대학과는 매

년 교환학생제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그 어느 대학보다도 학생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최근 2001년부터 2005년(예정)까지의 교환학생현황을 파견과 초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 VI-21> 교환학생 파견실적

파견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마쓰야마대학	2	1	6	7	미정	16
오비히로대학	0	1	2	0	미정	3
메이카이대학	·	·	·	5	10(선발)	15

<표 VI-22> 교환학생 초청실적

초청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마쓰야마대학	1	3	6	1	3(선발)	13
오비히로대학	1	1	0	1	미정	3
메이카이대학	·	·	6	8	미정	14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마쓰야마대학과는 매년 상경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상호학생을 교환하고 있고 그 숫자는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비히로대학과는 축산대학학생을 중심으로 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학생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메이카이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인문학부 학생을 비롯해 일어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가장 활발한 학생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파견학생뿐 아니라, 초청학생의 수도 차츰 늘어나고 있어 큰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나. 교류프로그램 및 내용

일본의 대학과의 국제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는 ①교환학생 프로그램과 ②자비학점인정프로그램이 있다.

우선 교환학생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환학생제도란, 학생 및 학점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자매대학과 학생을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교환선발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환기간 동안 본교(Home Institution)에 수업료를 내고 자매학교에서 강의를 받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본인이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의 파견절차를 살펴보면, 지원서접수→1, 2차 전형→선발→상대교에 입학신청→입학허가 및 비자발급→상대학교 수학→귀국→학점인정의 절차를 밟는다.

다음으로 자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비유학은 교환학생으로 선발하여 자매학교에 파견하는 교환프로그램 외에 본교에 등록 또는 휴학하여 외국대학에 본인이 직접 지원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후, 입학허가서와 소정양식을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 프로그램의 파견절차를 살펴보면, 대상학교선정(4년제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에 한해 인정가능)→상대학교에 입학허가 받음→신청서 등 관련서류제출(국제협력센터)→상대학교 수학→귀국→학점인정의 절차를 받는다. 또한 자비학점인정 프로그램 중에는 ①학기 중 해외어학연수·정규학기 학점인정프로그램과 ②방학중 해외 어학연수·계절학기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재학 혹은 휴학 중인 본교 학생이 자비로 학기 중에 해외대학에서 어학연수 또는 정규학기를 수강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고, 후자의 경우는 재학 중인 본교 학생이 자비로 방학 중에 해외대학에서 어학연수 또는 계절 학기를 수강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본교에서는, 일본의 대학과의 교육 교류에서는 교환학생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매년 교환학생을 파견·초청하고 있다.

먼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집인원 : 마쓰야마 대학 - 5명 이내, 메이카이대학 - 10명 이내, 오비히로대학 - 0명 이내

○지원자격

- 전공에 관계없이
- 1년 이상 수료한 학부생(휴학생은 불가능, 지원시점에 졸업까지 3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재학기간의 학업성적이 총 평균평점 3.0/4.5 이상인 자
-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인 자, 또는 2급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
- 기교환학생 참가자는 파견 불가능함

○선발조건 : 학점, 인터뷰(일본어)

○대상학교

- 일본 마쓰야마대학(Matsuyama University) : 상경대학 학생만 신청가능
- 일본 메이카이대학(Meikai University)
 - ※ 일본어학과, 중문과, 영문과, 부동산학과, 경제학과 등 5개학과에 지원가능.
 - ※ 다른 전공자도 신청가능하나 전공과목수강은 불가능 함.
- 일본 오비히로대학 : 축산대학 학생만 신청가능

○수학기간 : 1년(연장불가)

○비용

- 대상학교 등록금은 면제됨.
- 수학기간 동안 본교 등록금, 생활비 및 항공료 등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선발시기

- 마쓰야마대학 : 매년 3~5월 경(2학기에 파견)
- 메이카이대학 : 매년 10월에서 12월 경(1학기에 파견)

※ 선발시기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일본어)

○학점인정 : 이수학점은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승인절차를 거쳐 학기당 19학점까지 인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자기소개서
- 수학계획서
- 학과(전공)주임교수 추천서
- 서약서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일본어능력시험자격증 원본 및 사본

다. 성과

이상과 같은 대학에서의 국제교육 교류의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자비유학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셋째, 외국어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

넷째, 선진외국대학에서 유학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다섯째, 졸업 후 외국대학에서 학업을 연장하려는 학생에게는 유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적응기회가 된다

여섯째,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훌륭한 경력사항이 된다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교환학생으로서 참가했던 학생들의 수기를 참고

로 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마쓰야마대학에서 건국대학교로 유학한 학생들의 수학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문학부 사회학과 4학년 학생의 수기다.

“한국의 문화를 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들 하는 한국이, 세계 있어서는 ‘진정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학부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의 수기다.

“2002년에는 월드컵축구도 한·일 양국에서 공동개최하여 양국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해지는 가운데, 한국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문화적으로 기질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정반대구나! 하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서로 인정하고, 국가 간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도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2003년 건국대학에서 마쓰야마대학으로 유학한 학생들의 수학보고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4학년 학생의 수기다.

“가서 처음 한 학기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일본어 수업을 들을 때, 일본에 중국인이 참 많이 유학 온다는 것을 느꼈다. 일본어 수업의 절반가량이 중국인들이었다. 처음에는 우리 교환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이 그들에 비해 한참 뒤쳐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일본어 실력이 월등히 앞설 정도로 되었다. . . . 2학기에 들어서는 전공수업도 많이 듣고 일본어수업도 꾸준히 들어서 일상회화정도는 막힘없는 정도가 되었다. 참, 일본대학교에는 ‘제미’라고 불리는 수업이 있는데, 경제학과는 그 수업이 학점으로 인정되는데, 경영학과에서는 학점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일본대학에서는 ‘제미’수업을 거의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어서 꼭 수강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제미’수업도 학점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의 수기 중, 학교 외의 생활에 관한 기록이다.

“마쓰야마의 생활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부터 학교를 포함한 교류협회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학생교류회’라는 이름아래 저녁만찬을 갖기도 했고, 에히메현 내 버스투어도 있었다. 그 외에도 여자어린이의 날, 강연회 등 많은 모임에 참가했다.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재일교포분의 한글강좌에도 참가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러 오는 일본사람들과 친분을 쌓기도 했다. 또한, 초중고교의 방문이 있었다. 주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로 인해 그동안 자기나라에 무관심했던 무지한 자신을 조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 . 귀국을 앞두고 일반가정에 2박 3일 홈스테이를 갔었다. 마침 축제기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그 축제에 참가하여 복장을 갖추고 춤 퍼레이드의 일원이 되었었다. 처음으로 경험해본 일본 전통축제, 게다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에서 참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 . . 지금까지 앞으로의 내 인생 속에 마쓰야마에서의 1년은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일본은 그저 이웃나라가 아닌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들은 초기에는 학교생활과 언어습득에 열중하고, 후기에는 전공수업에도 참가하면서 새로운 지식습득과 시야를 갖추면서 성실히 적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역 사회와도 다양한 교류기회를 가지면서 이문화 경험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모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한층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듯 짧은 수학 기간이기는 하지만, 교환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일본, 일본인, 그리고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이 하고, 앞으로 양국 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국제적인 사고와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문제점 및 과제

이상 건국대학교의 한·일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양 대학 간의 교환학생의 인원은 대체적으로 1대 1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협력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의하면, 한국 쪽에서는 매년 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해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일본 측으로부터의 희망자는 미세하지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파견의 성격이 아닌, 파견과 초청이 균형 잡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교환학생들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언어교육, 학점인정과목의 확대,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환프로그램을 보다 충실화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교류에 필요한 전문가의 양성 및 교육, 대학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인 배려와 지원에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본교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일본과 교육 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환학생제도는 미국·중국의 대학과의 교육 교류에 비하면, 매우 소규모이고 학생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선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대학을 찾아내어 본 대학의 특성과 부합하는 분야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당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대학단계에서의 교육 교류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전공·학술 교류 및 문화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⁴⁰

⁴⁰ 건국대학교 국제협력센터 자료제공 및 인터뷰 (2004. 11. 5).

5. 시·도교육청 사례

가.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다양화 프로그램

(1) 한·일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일 시 : 2004년 8월 17일~ 8월 21일(4박 5일)
- 장 소 : 일본 오사카 금강코로니
 - ※ 뇌병변장애인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서 6세부터 77세까지 약850명이 생활함.
- 주 최 :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오사카볼런티어협회
- 참가자격 :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고교생
- 참가인원 : 총 35명(일본 20명, 한국 15명)
- 참가금액 : 40만원(비행기왕복, 참가비포함)
여권 및 비자 개별 발급
- 참가방법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462-9905)
문 철호 팀장에게 신청
- 신청마감 : 선착순접수(항공권관계로 8/5까지 접수)
- 내 용 : 고교생 워크캠프 합동개최
한·일 양국의 고교생들이 일본장애인시설에서 협동생활을 하며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 일 정 :
 - 8월 17일(화) : 개강식, 환영파티, 그룹시간
 - 8월 18일(수) : 워크시설 환경개선사업,
참가자 간의 대화 나누기
 - 8월 19일(목) : 장애인과 교류, 오사카문화학습
 - 8월 20일(금) : 워크시설의 환경개선사업
최종파티, 그룹시간

8월 21일(토) : 귀국 후 해산

(2) 한·일 교류 합동봉사 활동

- 국제로타리 3360지구 인터랙트 한·일교류산업의 일환입니다. 온천 천살리기의 현장답사와 한·일 교류 합동봉사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동참하기 바랍니다.
- 일시 : 2003.9.20(토), 15:30-17:30(2시간)
- 장소 : 온천천 새병교 주변
- 내용 : 하천살리기의 변천사(사진전시) 및 환경정화활동
- 대상 : 100여 명
일본 26명(지바근교 학생대표 15명, 교사 4명, 관계자 7명)
한국 74명(인터랙트학생 및 교사)
- 지도교사 : 학산여고(정윤훈), 디지털고(정태우), 해광고(지혜조)외
- 강사 : 이준경(부산하천연대사무국장)
유진훈(금정산 지킴이 공동대표)

- 부산시 교육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내된 위 두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육 교류와는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참가대상은 고등학생이지만 기존의 교육 교류가 양국문화의 이해에 중심을 두고 있는 데 반해, 교류목적이 봉사활동과 환경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교류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교류를 주재하는 곳도 학교만이 아닌 시도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나. 서울시 서부교육청의 미야자키현 교육청 방문기

(1) 방문목적

- 양 교육청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교육협력에 관한 합의서 교환과 지속적인 실천 방안 모색
- 각종 교육 교류를 통한 상호 교육 이해도 제고, 교육제도 및 교육방법 개선도모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양 교육청 산하 학교 간 자매결연 및 학생, 교원, 학부모의 상호방문 교류추진방안 모색

(2) 방문계획

- 방문기간 : 2003. 7. 8(화) ~ 7. 11(금).
- 주요 일정
 - 2003. 7. 9(수) 미야자키현 교육청 방문 및 교육 교류 합의서 체결, 미야자키미나토소학교 방문
 - 2003. 7. 10(목) 사이토바루 고분군 등 문화 탐방
 - 2003. 7. 11(금) 미야자키중학교 방문

(3) 방문단 구성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명	업무 내용
교 육 장	○○○	단 장	단장
관 리 국 장	△△△	부 단 장	부단장
초등교육과장	◇◇◇◇	실무책임관	방문준비 및 진행총관
중등주무장학사	□□□	진행 담당	진행, 학교방문 및 보고서 작성
평생교육지도계장	◎◎◎	예산 담당	진행 보조, 예산 확보 및 지출

(4) 방문기관

○미야자키현 교육청 및 미나타소학교



교육위원회회의실 - 채수언 교육장 인사말씀



교육장실 - 환담(2)



5학년 - 교육장님, 학생들에게 인사말



교류관련 업무협의

○ 학교탐방(미야자키중학교)



미야자키중학교 - 초등 교육 과장님의 서예 시범



미야자키중학교 - 교류관련 간담회

○ 문화시설탐방(박물관과 예술회관)



自然史, 歴史, 민속박물관 관람 (2003. 7. 10)



예술회관



예술회관

○사이토바루 고분군



(5) 미야자키 중학교

○학급수, 학생수 및 교원 현황

특수학급 1개학급 포함 총 18학급, 학생수는 남녀 공학으로서 총 639명, 교직원 현황은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29명 포함 총 42명의 교직원으로 구성

○교육과정 개관

총 수업일수는 약 202일, 주 수업시수 28시간, 교육과정은 필수교과, 선택교과, 도덕, 특별활동, 종합적 활동 시간 및 예비시수로 구성되었고, 필수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가정, 영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차례

1. 학교소개
2. 수업참관(한국전통문화의 이해)
 - ① 조화공작
 - ② 전통종이 공예
 - ③ 일본무용시간
 - ④ 서예 시범
 - ⑤ 종이접기 수업 참관
3. 종합적 학습시간 (지역문화 참관)

(6) 문화시설 탐방

(가) 종합박물관

1998년 5월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한 종합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 역사 박물관, 민속박물관 및 부속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사박물관은 미야자키현의 나무, 숲, 수생생물, 하천, 습지, 바다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박물관은 고대인의 수렵생활에서 오늘날 미야자키현 주민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었으며, 민속박물관에는 농촌, 어촌, 산촌에서의 생활의 특징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전시 자료의 다양성 및 보관 상태가 매우 우수하였고 특히, 설명, 안내하는 직원의 성실성에 큰 감명을 받았다.

(나) 미술관

1995년 10월 개관한 미야자키현립미술관은 국내외의 우수한 작품을 감상하고, 주민의 창작 활동의 발표와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입장료는 초·중학생 100엔(단체50엔)이었고,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관람하는 경우와 토요일 및 어린이날 등은 무료로 개방된다고 한다.

특히 향토 출신 작가의 작품과 일본 미술의 흐름을 전망하기에 어울리는 작품 그리고 해외의 우수한 작품 등 3개 영역으로 작품을 수집하여 전시하

고 있었다.

(다) 사이토바루(고분군) 시찰

동서 2Km, 남북 4Km의 사이토바루 대지에는 3세기의 고분군이 펼쳐져 있었는데 4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축조된 이 고분군은 일본 최대 규모로 그 중에는 200m가 넘는 커다란 것도 있었다. 1952년 特別史蹟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었으며, 고분 축조기술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신라 분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 금동마구 등의 부장품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설명과 사이토바루 대지의 풍경은 고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깊은 관련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라) 웨라톤 리조트 피닉스 시가이아

쏟아지는 태양과 풍성한 초록빛 소나무로 둘러싸였고 반짝이는 바다가 보이는 대형 리조트로 휴일 일과는 물론이고 회의 및 연회를 위한 이상적인 환경과 시설이 구비되었다. 부근의 넓고 넓은 골프장은 가히 환상적이었으며 국제 골프대회를 자주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 골프 관광객도 꽤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연의 풍요로움이 매우 부러웠다.

(마) 피닉스 자연동물원

광대한 녹지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한가로이 생활하고 있어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동물원이었으며 귀여운 동물과의 즐거운 교류 등 인간과 동물의 훈훈한 교류가 넘치는 곳이었으며 우리 학생들의 체험 학습의 장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바) 오션돔

가로 300m, 세로 100m, 높이 38m의 세계 최대의 워터파크이며 돔 안은 실내 30도, 수온 28도로 유지되어 언제든지 빅웨이브, 카니발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시설이었다.

(사) 아오시마 비치

해수욕, 서핑과 요트 등 미야자키를 대표하는 해양스포츠의 기지이며 여름에는 최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이었으나 우리가 방문할 때는 무더운 날씨이고 휴가철이 아니라 해수욕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

(아) 사계절 스포츠 천국

미야자키현은 온화한 기후로 해양스포츠는 물론이고 겨울에도 골프를 할 수 있는 등 일년 내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도 영상은 유지하는 날씨로 일본 내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전지 훈련장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특히 일본의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느긋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 등이 많아서 복 받은 관광지가 될 수 있었다.

(자) 콘서트 홀

좋은 소리의 좋은 음악을 듣고자 하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콘서트 홀의 디자인은 아름다움과 소리의 충만함, 그리고 적절한 반향을 만들어 내는데 우선성을 두고 있었다. 그곳에는 1,818개의 좌석이 있었으며, 비엔나에 있는 Musique Ferlai의 모형을 탄 것이었으며 반향 시간은 이상적인 2초이다. 홀과 그 곳의 비품은 그 현에서 나오는 keyaki와 mizume 나무의 목재로 만들어지는데, 그 목재가 연주회장을 특별히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무대의 뒤쪽에 있는 파이프오르간에는 66개의 음栓이 있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떤 오르간의 음栓보다도 가장 많은 수의 음栓이었다.

- 위 방문기는 교육 교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청관계자들이 일본의 미야자키현 교육청을 비롯해 미야자키현 소재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발전과

친선을 도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방문목적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양국 교육청의 가장 큰 역할은 앞으로 양교육청 산하 학교 간 자매결연 및 학생, 교원, 학부모의 상호방문 교류에 대한 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등단계의 교육 교류는 앞의 잠실고등학교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대부분 개인적인 지인을 통하거나 개별적인 루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초중등학교가 외국의 학교와 교육 교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 전반의 과정을 코디네이트해 줄 만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 즉 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 서부교육청의 시도는 교육 교류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6. 분석 및 평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체결된 ‘문화협정’을 토대로 지속적인 한·일 교류·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 양국 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정부도 한·일 간의 인적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1988년 2월 한·일정상회담 때는 한·일인적교류확대에 대해 합의하고, 1989년에는 양국 간 청소년 교류확대를 위한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사업’을 발족시킨다. 이와 같은 우호 분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은 1995년부터 ‘평화우호 교류계획’의 일환으로 한·일양국의 역사, 양국의 관계사, 기타 한반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에 착수하기에 이른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방문 시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에서는 청소년 교류확대가 합의되고, 2002년 7월 1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프로젝트’ 실시가 합의되어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 한·일청소년, 그리고 스포츠와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

다. 2004년 6월 5차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신규사업으로서 ‘일본어 및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하는 고교생 교류사업’을 시작하고 양국 간의 청소년 교류 및 스포츠 교류 증진에 힘쓸 것을 합의하여 교류에 한층 힘을 실어주었다. 나아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2005년에는 ‘한·일 우정의 해 2005’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실시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럼, 이상에서 살펴본 ‘한·일간 교육 교류 및 협력 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한·일 양국의 유학생 실태를 살펴보면, 일본인 학생이 한국에 유학 오는 수에 비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양국의 국비유학생 및 정부초청 유학생 수를 비교하면, 일본국이 부담하는 유학생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5월 통계로 일본 대학 등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는 78,812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유학생들 중에서 약 90%가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중국, 한국, 대만 3개국 학생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5월 통계는 95,550명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21.1%가 다시 증가했다. 중국, 한국, 대만 3개국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82%로 전년도에 비해 그 비율이 약간 늘어나, 한·중일 삼국의 유학생 교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3년 9월 기준 한국에 유학하는 일본인 유학생 수는 2,486명인데 반해, 일본에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 수는 17,339명으로 일본인 학생의 7배나 된다.

한편, 한·일 간의 국가차원의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그리고 교원의 학술문화교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23> 한·일 교육 교류 및 협력의 현황과 분석

연도 별	중고생			대학생			교원			교류 관계자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89	-	-	0	0	80	80	0	20	20	0	0	0	0	100	100
90	-	-	0	90	87	177	80	85	165	0	0	0	170	172	342
91	-	-	0	90	90	180	78	100	178	0	60	60	168	250	418
92	-	-	0	90	90	180	60	103	163	19	32	51	169	225	394
93	-	-	0	90	83	173	60	121	181	21	29	50	171	233	404
94	-	-	0	87	119	206	123	121	244	12	34	46	222	274	496
95	-	-	0	86	87	173	78	125	203	36	29	65	200	241	441
96	-	-	0	87	88	175	99	120	219	15	0	15	201	208	409
97	-	-	0	85	81	166	78	97	175	15	0	15	178	178	356
98	-	-	0	51	75	126	59	78	137	15	0	15	125	153	278
99	470	-	470	98	77	175	100	76	176	20	15	35	688	168	856
00	470	303	773	79	80	159	80	79	159	0	0	0	629	462	1,091
01	469	228	697	20	100	120	80	38	118	0	0	0	569	366	935
02	469	326	795	77	80	157	79	80	159	0	0	0	625	486	1,111
계	1,878	857	2,735	1,030	1,217	2,247	1,054	1,243	2,297	153	199	352	4,115	3,516	7,631

자료: 국제교육진흥원 통계자료.

위 표-20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한·일 간의 교육 교류 현황이다. 초등학교 단계의 교류는 안전을 비롯한 제 문제로 현 단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꾸준히 이루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11, 2003년 서울시 교육청 통계). 공식적인 중고생의 교류는 1998년까지는 전무한 상태지만,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 이후, 중고생의 교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 교류는 양국 상호간의 초청과 파견을 통해서 유학을 비롯해 문화교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원의 경우 또한 상호간의 초청과 파견을 통한 연수 및 문화교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초·중등단계에서의 한·일 간 교육 교류 및 협력은 시·도교육청 및 도서관, 각급학교 등이 자매결연을 맺어 개별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주요 교류내용은 1) 교사·학생의 상호방문 및 홈스테이 2) 수학여행 및 방학 중 학생교류 3) 친선스포츠교류(축구경기, 필드하키, 핸드볼, 야구, 농구) 4) 문화교류 및 전통문화체험(음악회, 아동작품, 미술작품, 합창단) 5) 교육자료 교환 및 서신교환(화상교류) 6) 추천입학제 및 어학연수 7) 국제교환학습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는 제 2외국어 가운데 그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에서 제 2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치는 다소 미약하다. 2002년부터 일본대학센터시험에 한국어가 제 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일선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한 학교는 차츰 늘어나고 는 있지만 아직 적은 숫자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고등학교 가운데 한국어를 제 2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하여 수학하고 있는 일본고교생 및 한국어 담당교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영화와 드라마 붐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의 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 강좌 개설이 늘고 있는데,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류스타를 넘어 한국어와 한국문화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NHK 교육방송에서 한글강좌를 시작한지 20년 만에 2004년 4월 6일에 개강된 NHK 교육방송 한글강좌 교재(4월호)의 발행부수는 추가인쇄를 포함하여 20만 부에 달했다. 이제까지 한국어의 발행부수는 독어, 불어와 같은 수준의 11만 부였는데, 거의 두 배를 인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영어를 제외한 제 2외국어 중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던 중국어 교재가 지금까지 15만 부를 기록했던 것보다 5만 부나 많은 수량이다.

대학단계에서의 한·일 간 교육 교류 및 협력은, 2003년 기준 총 1,096건의 자매결연이 체결된 상태다. 일본의 대학은 세계의 1만천여개의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는 3번째로 많은 대학과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대학단계에서의 교육 교류는 대부분이 교환학생과

장단기 어학연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1년 동안의 연수기간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교류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개별학교 별 교류사례를 보면, 개별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매결연 대상학교를 찾아내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측 학교가 찾아 나서는 경우와 일본 측 학교가 찾아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개별적인 지인을 통하는 사례도 엿볼 수 있다.

먼저 광남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국제이해라는 목표 하에 고베시 교육원장을 통해 비슷한 환경의 자매학교 찾기를 의뢰한다. 2000년 국제 이해의 주제를 ‘가까운 이웃, 일본을 만나자’로 정하고,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한반도 문화 탐구 및 유적지 탐사, 일본 고등학교와 자매 교류 및 일본 학교·가정·청소년 문화 비교 체험을 통한 한·일 우호 증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교류를 추진한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국제사회 첫 진출에서 얻은 감동과 식견으로 새로운 자신감을 배양하게 된다. 또한 순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민감한 갈등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내며, 자매학교와의 교류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학생들의 훌륭한 태도가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게끔 하는 성과도 얻어낸다.

잠실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2002년 교육계 인사를 통해 일본의 하시모토고교에서 자매학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양교의 개별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 2003년 나가노 다카코 교장과 교류추진 실무담당자가 직접 잠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류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조인식 합의문서와 교류형태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 합의에 이른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격년제로 홈스테이를 통한 학생교류를 하여 상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해당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며 상호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에 2003년 8월 27일 일본 가나가와현 현립 하시모토고등학교 교장 및 국제교류담당교사 2명, 학생 13명이 잠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조인식을 갖고 4박 5일 동안 홈스테이를 통한 한국가정문화

체험과 영어, 일본어 수업참관, 전통대금시연, 아리랑 장단에 따른 장구체험, 잠실제 관람, 시내고궁답사 등의 행사를 마치고 돌아간다. 이에 2004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답방형식으로 하시모토고교를 방문해 영어, 수학수업참관과 일본 전통음악체험, 유리공예체험, 홈스테이를 통한 일본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가나가와현립 교육청과 사가미하라시청에서 한국교육전반과 잠실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오며 따라 교육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깊이 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상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체험을 통하여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을 키우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교류사례로는 교류내용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사례를 들 수 있고, 일선 학교를 위한 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시 서부교육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부산시 교육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내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육 교류내용과는 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두 프로그램 모두 참가대상은 고등학생이지만 기존의 교육 교류가 양국문화이해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교류목적이 봉사활동과 환경활동이다. 이처럼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국의 교류내용이 다양해지고 있고, 교류를 주관하는 곳도 학교만이 아닌 시도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는 교육 교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청관계자들이 미야자키현 교육청을 비롯해 미야자키현 소재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발전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양국 교육청의 교류목적은 양교육청 산하 학교 간 자매결연 및 학생, 교원, 학부모의 상호방문 등 교육 교류에 있어서 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등단계의 교육 교류는 앞의 잠실고등학교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대부분 개인적인 지인을 통하거나 개별적인 루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초·중등학교가 외국의 학교와 교육 교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 전반의

과정을 안내해 줄만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 즉 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교육 교류에 관한 다양한 역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단계의 교류사례로는 건국대학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건국대학교는 국제화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7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주요 협정내용은 ① 교원교류 ② 학생교류 ③ 공동연구 및 그 외의 학술활동 ④ 간행물교환 등이다.

자매교 중에서도 오비히로대학·마쓰야마대학·메이카이대학과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매년 양국 학생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양국의 교환학생으로 초청·파견된 학생들은 첫 학기에는 학교 생활과 언어습득에 열중하고, 후기에는 전공수업에도 참가하면서 새로운 지식습득과 시야를 갖추면서 양국문화에 적응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역사회와도 다양한 교류기회를 갖으면서 이문화 경험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모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한층 관심을 갖게 된다. 1년 동안의 짧은 수학기간이기는 하지만, 교환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이 하고, 나아가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국제적인 사고와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면, 일본과의 교육 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 쌍방향 교류보다는 일방적인 교류의 감을 씻을 수 없다. 현재까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국교정상화 40여년 만에 교육 교류·협력은 초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는 정부주관 교류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일선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창기의 한·일교육 교류는 문화협정을 바탕으로 (1) 제 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2) 재외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 등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

국비유학생교류 (2) 정부초청장학생교류 (3)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 (4) 한·일 중고생교류 등 국가차원의 다양한 방면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일선 학교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한·일 양국의 꾸준한 교육 교류에도 불구하고 유학에 있어서는 한국 측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기준 일본으로 유학하는 한국학생 수는 17,339명인데 반해, 한국에 유학하는 일본인학생 수는 2,486명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한국학생이 약7배나 많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일본인 유학생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류·협력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자매학교를 찾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교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기관이 없다. 대부분 개별적인 지인이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의 학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협정체결 후에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일 간의 특수사정과 단계별·유형별 교류를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학교 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교류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어 학교 및 학생개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 교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모든 경비가 대부분 학생에게 전과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국제교육 교류의 참의미를 실현하기는 힘들고, 지속적인 교류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2005년에 한·일 간 교육 교류의 역사는 40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짧지 않은 한·일 간의 교육 교류·협력과정을 통

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일 두 국가는 상호이해를 통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약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위 교육 교류·협력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천해 나가면서, 일방적인 교류가 아닌 균형 잡힌 쌍방향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에는 단계별로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사업’, ‘평화우호교류사업’, ‘한·일중고생교류사업’, ‘일본어 및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하는 고교생 교류사업’ 등 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는 한·일 청소년간이 우호증진과 문화이해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내년 ‘한·일 우정의 해 2005’를 맞이하여 제 사업이 결실을 맺고,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사업의 확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그동안의 정부주관 교류 사업을 살펴보면, 일본주도의 초청 사업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균형 잡힌 교육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에서 한층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둘째, 한·일 간의 교육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담부서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초·중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교류 및 협력은 시·도교육청 및 도서관, 각급학교 등 극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단계의 교류 또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단계별 교육 교류현황과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교육 교류 및 협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교육 교류현황을 파악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각 기관 및 학교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한·일교육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알차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정부주도 하에 국제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비장학생들의 교육 교류 및 문화교류의 경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류내용을 충실화함으로써 교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체계적으로 이들 업무를 전담하고 일선 학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 설치·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그들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단계별·유형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앞으로의 교육 교류 및 협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넷째,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일 간의 교육 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교육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조가 있을 때 비로소 국제교육 교류의 참의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VII

결론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추진하였다. 우선 올해에는 중국과 일본의 변화와 교육의 특성, 그리고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인접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상호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침략과 전쟁, 점령과 저항이라는 3국의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상호 적대감이나 경계심은 동등한 수준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많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체결된 「문화협정」을 토대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 양국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정부도 인적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중국과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일제 강점기에 공식적인 국교는 단절된 상태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에서 교류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자유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와 교류가 오랜 동안 유지된 것에 비하면 중국과의 교류 역사가 그리 긴 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3국의 협력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 무역 측면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일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한·일우정의 해 2005」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느 때보다도 우호

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우호적인 관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교육적 특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중 및 한·일간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본다.

우선 중국과 일본의 교육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동북아 3국은 공통적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교육체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상호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교육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3국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경쟁이 치열하게 빚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앞서서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로서 교육에서 산업화의 후유증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학교붕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교육이 지위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교육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교육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단계부터 개설되어 있는 중점학교 때문에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하다. 이들 학교에 다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상급단계 중점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입시위주 교육이 만연되어 있으며 일찍부터 과외를 받는 등 우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사립학교가 아닌 소위 국공립 명문학교까지도 많은 액

수의 기부금을 받아 학생을 입학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 대학 진학률이 최근 대폭 늘어나 취학연령의 15%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고등학교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자비로라도 외국에 유학하려는 풍조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 유학하여 외국의 발달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면 상당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교육이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회균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임으로써 교육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상황은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이다.

그 동안 일본은 도시화가 진전되고 자녀 수가 감소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열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그리고 이지메(왕따), 등교거부 등으로 이른바 학교붕괴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말하자면 청소년 사이에 공적인 윤리를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본 교육은 지나친 평등주의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와 과도한 지식주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개성이나 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이 경시되어 왔다. 또한 학교제도나 입시교육 등 현행의 교육제도가 학생 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로 전파되는 정보화 등 사회적 변화에 학교교육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 전망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일본인의 육성을 발표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주도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풍부한 감성

의 문화적 감각을 지닌 교양 있는 일본인을 육성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과 경제협력이 진전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교육 교류·협력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1994년 3월 한·중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부차원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장학생 초청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차원의 유학생 교류는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실태를 보면 양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의 교육 교류를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중심의 민간형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교류부문에서 유학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유학생 증가 추세로 볼 때 한국 측의 수요가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교육 교류·협력은 중국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한 교류의 경우도 상당수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영속성이 미흡하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

셋째, 중국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외부기관의 지원 없이 개별학교가 자체경비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넷째, 일본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정책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외 홍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인 육성 전략으로서 상호이해 증

진을 위한 국제교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한국에 앞서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다섯째, 일본과의 교육 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쌍방향 교류보다는 일방적인 교류가 많다. 한·일 국교정상화 40여년 만에 교육 교류·협력은 초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주관 교류 외에도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의 일선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꾸준한 교육 교류에도 불구하고 유학에 있어서는 한국 측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일본에 유학하는 한국 학생 수는 한국에 유학하는 일본 학생 수의 약 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일본인 유학생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류·협력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자매학교를 찾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교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기관이 없다. 대부분 개별적인 지인이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의 학교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협정체결 후에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일간의 특수사정과 단계별·유형별 교류를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일곱째, 학교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교류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으며, 학교나 학생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 교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모든 경비를 대부분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국제교류의 의미를 실현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다시 한 번 약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동북아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협력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상호 간의 현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교육 분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의, 연구, 조사,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 교류, 상호 방문, 자매결연,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중 간의 고구려사 문제나 한·일간의 고대사, 독도 문제에 대하여 학술적인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적인 지역 연합을 통하여 공동 시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교육협력교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간 공동체형성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 조약을 통하여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청소년프로그램(Youth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이웃나라를 방문하면서 상호 이해를 모색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학생과 교원의 인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상호간의 교류·협력 정책을 별도로 추진할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은 과거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상호 갈등 관계 또는 대립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한·중, 한·일의 사안이 다르며, 별도의 사업을 통하여 각각의 우호 증진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 「한·일 우정의 해 2005」을 맞이하여 제 사업이 결실을

맺고,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 사업의 확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는 한·일 청소년간이 우호증진과 문화이해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넷째, 교육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민간형 전문교육 교류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교육 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 교류 통계 및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교육 교류현황을 파악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각 기관 및 학교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교육기관별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교단계별 교육 교류현황과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교육 교류 및 협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교육 교류현황을 파악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각 기관 및 학교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교육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알차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정부주도하에 국제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비장학생들의 교육 교류 및 문화교류의 경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류내용을 충실화함으로써 교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 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체계적으로 이들 업무를 전담하고 일선 학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그들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단계별·유형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앞으로의 교육 교류 및 협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여섯째, 한국은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다양한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식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및 아

프리카, 남미에 대한 국제교육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교육 교류에 필요한 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가칭 「동북아교육협력교류기금」을 확보하여 한·중·일 교육 교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3국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 분야의 교류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국제교육 교류의 참의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공보처. 『세계화·지방화 추진전략』. 서울: 공보처, 1995.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구자역. 『중국의 교육』. 서울: 원미사, 1997.
- 구자역 외. 『교육개혁 지역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 김경준. 『청소년국제교류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김병관. 『해외봉사활동의 원칙과 실제』. 한국국제협력단, 1997.
- 김상태·유지운. 『한국여행업 발전방안』. 서울: 한국관광연구원, 1997.
- 김성재. 『평화교육과 민주교육』. 서울: 풀빛, 1990.
- 김신일 외. 『국제이해교육의 실태와 국제비교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 김태홍.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개혁과 농업성장』. 한국경제신문사, 1987.
- 노화준·정정길. 『정책평가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84.
-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1991~2002.
- _____.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2000년도 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2000.
- 박원순.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과 대안』. 시민운동지원기금, 2001.
- 서재진 외. 『사회주의 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서정우. 『국제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 1987.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경기: 나남, 1997.
-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엮음. 『평화사상의 모색』. 서울: 일념, 1983.

- 송봉규 외. 『중국어학 개론』. 서울: 동양문고, 1998.
- 양기용 외. 『경기도청 평가자료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1996.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이해교육 연구사례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1.
- _____.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 서울: 오름, 1995.
- _____. 『CCAP 2000년도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 윤철경 외. 『한·일교류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_____.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와 평가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이민희 외.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병술. 『21세기 한·일 지방자치단체간의 청소년교류 활성화 전략』.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와 청소년교류 발전전략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병술 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와 평가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이상오. 『청소년 국제 교류 홈스케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종각. 『외국에는 어떤 교육열 현상이 나타나는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이종원 외. 『청소년 정책·사업 종합평가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홍표. 『동아시아 협력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1997.
- 임반석. 『중국 경제: 두 가지 기적과 딜레마』. 해남, 1999.
- 전재범. 『중국의 공업화전략과 외국인 직접투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

- 원, 1996.
- 정두용·신은숙·정득진 편저. 『국제이해교육』. 서울: 정민사, 2000.
- 정승재. 『한국 청소년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정영록·강일규. 『중국전문가 양성 및 재중 동포교육 강화 방안 정책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2.
-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조영승외. 『청소년교류의 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1999.
- 조영승. 『청소년학 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통일연구원.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서울: 공보처, 2001.
-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국제교류매뉴얼』. 2001.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요약설명자료』.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_____. 『청소년국제교육사업 실태와 평가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홍문식 외. 『지방자치시대의 주요 보건·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5.
- Billis, David & Harris, Margaret (Ed.). *Voluntary Agencies: Challenges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London: Macmillan Press, 1996.
- Central Bureau for Educational Visits & Exchanges. *Working Holidays 1997*. London: Page Bros, 1997.
- Dey, Krishno and Westendorff, David (Ed.). *Their Choice or Yours : Global Forces or Local Voices*.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996.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 SAGE Publications, 1996.
- Iriye, Akira.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World Order*.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 Oh, Chi-sun.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Seoul: Ji-Young Book, 1999.
- _____. *Lifelong Education*. Seoul: Ji-Young Book, 1992.
- Turner, Grame, 김연중역. 『문화연구입문』. : British cultural Studies. 서울: 한나래, 1995.
- United Nations University. *Volunteers Against Conflict*. United Nations, 1996.
- 國立オリソピック記念青少年綜合セクター. 『青少年教育データブック』, 1994.
- 國際文化交流に關する懇談會. 『國際文化交流に關する懇談會報告書』, 內閣官房內閣外政審議室, 1989. 5.
- _____. 『新しい時代の國際文化交流』, 內閣官房內閣外政審議室, 1994. 6.
- 根本招他3人. 『文化政策概論』, 晃洋書房, 1996.
- 吉澤柳子. 『青少年の國際交流』, 丸善ブックス, 2002.
- 毎日新聞社. 『國際ボラソテイア講座』, 東京: エビシク, 1997.
- 五月女光弘. 『日本の國際ボラソテイア』, 東京: 丸善, 1997.
- 原田種雄. 『國際理解教育キーワード』, 東京: 有斐閣, 1992.

2. 논문

- 강 정. 「현대 평화교육의 이론과 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고병현.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영주. 「평화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 접근」.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정은. 「청소년의 국제교류 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철영.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와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영래.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통한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진경. 「중국의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에의 적용가능성」. 성신여자대학교, 2001.
- 백대현. 「일본의 청소년국제교육사업 실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송용배. 「일본시네마현의 국제교류 실태에 관한 연구」. 경북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유승현. 「청소년국제교류의 만족과 선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임정은.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국제문화학술 교류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경애. 「평화교육 방법론으로서의 프레이리 교육이론 연구」. 한신대학교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조부근. 「한국 대외문화교류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조운성. 「고등학교 사회과교육의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최재경. 「세계화와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현수. 「유럽의 대외문화교류정책에 비춰 본 동북아속의 한국문화외교방향 고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황양복. 「한국 라보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황정홍.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정책 : 경상북도 사례」. 대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구자역. “개방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관 고찰 : 등소평의 교육관과 중국 교육의 변화.” 『한국교육』. 제24권 제1호, p19.
- _____. “시장경제의 실험장, 중국의 교육.”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서울: 문음사, 1997.
- 김현덕.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서울: 정민사, 1996.
- 박용구. “일본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일본연구』. 제 14호.
- 박치정.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특성 연구.” 『중소연구』. 17(4), 1993.
- 오치선 외. “세계화 지도방법.” 『청소년 조직 행동론』. 서울: 솔과학, 2002.
- 윤철경.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오늘의 청소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9.
- 이삼열.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한길사, 1992.
- 이종각. “교육열의 개념 재정립.”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구조』. 경기: 한국정신문화원, 2000.
- 홍성범 · 이춘근.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국가별과학기술정책분석』.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 Becker, J, eds. “Looking Ahead—An Agenda for Action.” *Schooling for a Global A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9.

3. 기타 자료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경기도 각급학교의 자매결연 현황』. 2001.
- 경기도청 국제교류과. 『시·군 해외결연 및 교류 현황』. 2002.
- 국제교육진흥원. 『통계자료』. 2003. 11.
- _____.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 평가보고서』. 2004. 2.
- 국제문화교류원.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2000.
- 문화체육부. 『주요업무추진계획』. 1997~1999.
- 박구선. 『중국의 산업기술 및 정책 동향』.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책자료.
- 일본 문부과학성. 『2003년도 일본의 대학간 교류협정 체결현황』. 2003. 10.
- 자오윤대. “중국사회의 교육열 형성요인 분석.” 『한·중·일·이스라엘 교육열의 진단해부 대책』. 2002교육열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역사·지리 교육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상호이해 증진 방안』. 한·중국제학술회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1.
- 文部科學省 報道發表資料, 2001. 1. 17.
- 文部科學省 報道發表資料, 2002. 3. 11.
- 文部省編. 『我が國の文教政策 : 文化發信社會に向けて』. 大藏省印刷局, 1994.
- 文化廳. 『地方文化行政狀況報告書(平成4年度)』. 大藏省印刷局, 1995.
- _____. 『我が國の文化政策の現状と課題』. 大藏省印刷局, 1993.
- _____. 『我が國の文化と文化行政』. 大藏省印刷局, 1989.
- 文化廳文化政策推進會議. 『新しい文化立國をぬぎして』. 大藏省印刷局, 1995.
- 首相官邸. 『子どもの未來と世界について考える懇談會資料』. 2000. 3.
- 神奈川・國際政策研究會. 『年次報告書』. 2002.
- 神奈川懸. 『新總合計劃21』. 1997.
- 安達健二. 『文化廳事始』. 東京書籍株式會社, 1978.

- NGO情報局. 『國際ボラソテイア NGOガイドブック』. 東京: 三省堂, 1993.
- NGO活動推進セソター(JANIC). 『あなたもできる國際ボラソテイア』. 東京: ジャパンタイム.
- 日本國際交流基金/(財) 大阪國際交流セソター. 『實踐國際交流』. 1997.
- 日本國際交流基金/(財) 大阪國際交流セソター. 『實踐國際交流』. 1992.
- 日本内閣府. 『青少年白書』. 2000~2002.
- 日本文部省. 『第119年報』 1991.
- 電通總研. 『我が國の文化の動向に關する調査報告書』. 電通, 1993.
- (財)自治体國際化協會. 『自治体國際化 フォーラム』. Vol. 131. 2000.
- 齊藤千宏. 『NGO國際ボラソテイアレポート』. 東京: 明石書店. 1997.
- Paxton, Midori. 『國際ボラソテイアガイドル』. 東京: The Japan Times, 1996.
- 總務廳行政監察局編. 『國際文化交流の現狀と課題-總務廳の行政監察結果からみて』. 大藏省印刷局, 1991.
- 總務省. 『報道發表資料』. 1999. 3. 16.
- 總合研究開發機構. 『NIRA政策研究-文化政策への提言』. Vol.11, no. 51, 1998.

4. 인터넷 자료

- 中國經濟文化研究院. www.chinapec.or.kr.
- 중국교육부홈페이지.
- http://www.moe.edu.cn/news/2004_03/12.htm, 中國教育報 2004년 3월 19일자.
-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www.chinaemb.or.kr.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후쿠이고등학교 홈페이지.

www.osaka-c.ed.jp/fukui/toppage/toppage.html.

회민학교(소수민족학교) 홈페이지. www.bjhmxx.com.

<http://www.jp.f.go.jp>. (1998.12.17).

<http://www.clair.nippon-net.ne.jp>. (1998.12.09).

<http://www.asc-net.or.jp>. (1998.12.09).

<http://www.jp.f.go.jp>. (1998.12.09).

<http://www.bunka.go.jp>. (1998.12.09).

<http://www.monbu.go.jp>. (1998.12.07).

<http://www.mofa.go.jp>. (1998.12.04).

<http://www.youthforunderstanding.org/index.htm>.

<http://www.oneworld-jobs.org>.

<http://europa.eu.int/en/comm/dg22/socrates.html>.

<http://www.bbj.de/potsdam/news3.htm>.

<http://chi.co.kr/homeindex.htm>.

<http://chi.co.kr/exchinde.htm>.

<http://www.jica.go.jp/english/activities/schemes/01tec.html>.

<http://www.jica.go.jp/english/activities/schemes/02tec.html>.



부 록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육 교류 실태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는 2004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동북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교육 교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 또는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류·협력 실태를 파악하여 3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 과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교육 교류에 관한 실태 자료와 의견을 보내 주시면 이 연구를 추진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이 종 재

◆ 조사지는 작성하신 후 동봉한 회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10월 20일 (수)까지 우송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송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동북아 교육협력 연구 담당 : 한만길, 이은봉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3460-0274(이은봉), (02) 3460-0271(한만길)

E-mail : mgghan@kedi.re.kr

I. 다음은 귀교와 중국 및 일본의 교육 교류 실태에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_____에 V표하여 주시거나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 기관에서 2002년 이후 추진한 바 있는 한국과 중국 또는 일본의 교육
교류 현황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시기	대상 기관 (학교)	인원	교류의 동기	교류 내용	경비
예시) 2002. 4. 1- 4. 7	일본 오사카공고	20명	자매결연 2001. 7. 1	학생교사교류, 정보 교환, 공업기술참관	500만원 교육청 지원

※ 당시의 교류에 관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보내주십시오.

2. 교류 사업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까?

- 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습득과 전달
- ② 외국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 ③ 학생과 교사(교수) 간의 접촉과 친목 도모
- ④ 외국의 현장 답사 및 유적지 관광
- ⑤ 외국 문화의 이해
- ⑥ 기타 :

3. 교육 교류는 어떤 내용이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까?(해당 사항 모두 표시)

- ① 연수, 강의, 실습 등 주로 정보와 기술의 전달
- ② 학교 참관 및 수업 관찰
- ③ 학생과 교사(교수) 간의 접촉과 친목 도모
- ④ 현장 답사 및 유적지 관광
- ⑤ 가정 방문과 문화 이해
- ⑥ 기타 :

4-1.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과가 대단히 크다 ② 성과가 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성과가 거의 없다 ⑤ 성과가 전혀 없다

4-2. 성과가 크다면 특히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4-3. 성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상급 기관(교육청,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
- ② 일선 학교(대학)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다
- ③ 관계자(교육청, 학교)의 이해가 부족하다
- ④ 외국 교육기관과 협조가 어렵다
- ⑤ 교류 행사의 일정을 진행하기가 번거롭다
- ⑥ 기타 :

6. 향후 교류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나 교육청 또는 대학 당국은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 사항 모두 표시)

- ① 상급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② 외국 기관과 연계하고 교류하는 데 관련 정보와 조언이 필요하다
- ③ 담당 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배치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④ 교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개발해야 한다
- ⑤ 지도자(교장, 총장 등)의 소신과 안목이 중요하다
- ⑥ 기타 :

7. 한국과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육 교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해당 사항 모두 표시)

- ① 상대방에 대한 사전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 ②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③ 교류 대상인 학생을 선발하고 지도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 ④ 우리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친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⑤ 지도자(교장, 총장 등)의 소신과 안목이 중요하다
- ⑥ 기타 :

8.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거의 되지 않았다 ⑤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9-1. 상대방의 좋은 점을 새롭게 발견하였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중국 또는 일본

9-2. 상대방의 나쁜 점을 새롭게 발견하였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중국 또는 일본

10. 앞으로도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② 추진할 것이다
③ 모르겠다
④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⑤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11. 외국과의 교류 사업에 대한 소감(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적어 주십
시오.
(중국 또는 일본)

II. 다음은 귀교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_____에 V표 하여
주시거나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학교 :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2. 설립 유형 :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3. 학교 소재지 :

- ① 서울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읍·면 지역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철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 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